정답 및 해설

고등 내신 1등급을 위한 기출문제집

100발100중

고등 기출 문제집

공통 국어 1

1학기·전과정

비상

박영민



1 네 가지 빛깔로 만나는 문학

01. 서정 갈래_산속에서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12~015쪽

01 ①	02 ②	03 ⑤	04 ①	05 ②	06 ②	07 ④	08 ⑤
09 ①	10 ④	11 ④	12 ④	13 ⑤	14 ③	15 ③	16 ④
17 ①	18 ①						

01 위로와 격려 등을 의미하는 '불빛', '누군가 맞잡을 손', '작은 지붕들'과, 절망, 시련, 고난 등을 의미하는 '어둠', '밤'의 대조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1연과 4연은 문장을 도치하여 목적격 조사(을)로 끝맺고 있으며, 2연과 3연은 '-ㄴ지'로 끝맺고 있다. ③ 도치, 대조, 공감각적 심상 등을 활용하여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나, 의문형 어미는 사용되지 않았다. ④ 화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으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⑤ 시각적 심상('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 '막무가내의 어둠',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 '먼 곳의 불빛')과 공감각적 심상('불빛의 따뜻함')이 사용되었지만, 청각적 심상은 찾을 수 없다.

02 '불빛', '작은 지붕들'은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존재이다. 이를 통해 화자는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따스한 위로가 되어 주는 삶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힘든 일을 겪는 이들에게 격려와 위안을 건넬 수 있는 존재를 긍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에 대한 존중을 짐작할 수 있지만, 생명의 소중함과는 관련이 없다. ③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으나, 자신의 처지에 만족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없다. ④ '산'은 '나그네'가 길을 잃은 공간으로, 삶의 고통을 치유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올바른 삶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

03 4연의 '불빛'은 '나그네'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존재이므로 밝음의 이미지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어둠과 대조되고 있지 않으며 비판적 의도 역시 4연과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1연과 4연은 '을'로, 2연과 3연은 '-ㄴ지'로 끝맺으면서 형태상 안정감을 주고 있다. ② 1연은 '길을 잃어 보지 않은 사람은 /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모르리라'라는 문장의, 3연은 '산속에서 밤을 맞아 본 사람은 /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 거대한 산줄기보다 /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 주는지 알리라'라는 문장의 어순을 도치하고 있다. ③ '길을 잃어 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리라'에 부정의 잔술이 나타나는데, 이는 '길을 잃어 본 사람은 안다.'라는 긍정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④ 2연은 1연의 '길을 잃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에, 4연은 3연의 '산속에서 밤을 맞아 본 사람은 알리라'에 연결되어 있다.

04 화자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산속에서 밤을 맞은 경험을 바탕으로 힘들 때 위로가 되는 존재의 가치에 대해 깨닫고 있다.

오답 해설 ② 화자는 어려움에 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안을 건넬 수 있는 존재가 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뿐, 현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 않다. ③ '산'이라는 자연이 제시되어 있지만, 불변하지 않는 자연 예찬과는 관련이 없다. ④ 인간과 자연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 또한 '산'은 화자가 어려움과 마주하게 된 공간으로, 인간이 본받을 긍정적인 속성을 지닌 자연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다. ⑤ '불빛'과 '누군가 맞잡을 손'을 통해 힘든 상황에 놓인 대상에게 힘을 주었던 존재들을 형상화하고 있지만, 미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5 '거대한 산줄기'가 아닌 '작은 지붕들'이 '산속에서 밤을 맞아 본 사람'에게 힘이 되는 존재이다.

오답 해설 ① '산속에서 밤을 맞아 본 사람'은 삶의 과정에서 곤경에 처했던 사람을 의미한다. ③ '산속에서 밤을 맞아 본 사람'의 '어깨를 감싸 주는' '작은 지붕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을 위로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④ '먼 곳의 불빛'은 산속에서 밤을 맞은 나그네에게 위안이 되는 존재이다. ⑤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과 힘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06 ㉠에는 시각(불빛)의 촉각화(따뜻함)를 통한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다. '새파란 초승달이 시리다'에도 시각(새파란 초승달)의 촉각화(시리다)를 통한 공감각적 심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⑤ 시각적 심상이 활용되었다. ④ 청각적 심상이 활용되었다.

07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막무가내의 어둠'을 만난 화자에게 ㉡은 막막한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고 위안을 주는 존재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삶의 방향을 정해 주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산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어둠'은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때 ㉡은 그러한 상황에서 희망을 주는 존재를 뜻한다. ② 산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화자는 도움을 받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③ 누군가와 손을 맞잡는다는 것은 힘든 순간에 함께하며 서로 위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군가와 손을 맞잡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위안과 격려를 얻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08 화자는 1연과 3연의 경험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힘과 위안이 될 수 있는 존재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볼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꿈의 적합성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② 1연을 통해 화자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멀리서 보이는 불빛에 따뜻함을 느꼈었음을, 3연을 통해 산속에서 밤을 맞았을 때 작은 지붕들에게 큰 위로를 받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④ 화자는 1연의 경험을 통해 어둠 속에서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됨을, 3연의 경험을 통해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 줌을 깨달았다.

09 화자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지쳐 있을 때 '불빛'을 발견하고 따스한 위로를 느낀다. 이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상황을 이겨 낸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②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은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발견한 불빛은 따스한 위로를 건네는 존재라 할 수 있다. ③ '어둠'은 '불빛'의 밝은 이미지와 대비되면서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작은 지붕들'은 어둠 속에서 위안을 주는 존재를 의미한다. ④ '작은 지붕들'은 거대한 산줄기에 비해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위안과 격려를 준다. ⑤ 4연에서 '불빛'은 잠깐의 쉼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는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다.

10 문장의 도치, 대조적 이미지, 공감각적 심상 등을 활용하여 일상적인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지만, 의문형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1연에서 화자는 부정의 표현('길을 잃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을 통해 '길을 잃어 본 사람은 알리라'라는 긍정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어둠', '밤'과 '불빛', '누군가 맞잡을 손', '작은 지붕들'을 대조적인 의미로 사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③ '~ 사람은 ~리라'와 같은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⑤ 1연과 3연에서 문장의 일반적인 어순을 바꾸어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11 화자는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은 바를 전달하고 있을 뿐, 시선의 이동에 따라 자신의 내면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작품 속에 '나'로 드러나지 않는다. ② 긍정적 이미지('불빛', '누군가 맞잡을 손', '작은 지붕들')와 부정적 이미지('어둠', '밤')를 대비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③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멀리서 보이는 불빛에 따뜻함을 느낀 경험(1연)을 통해, 어둠 속에서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됨(2연)을, 산속에서 밤을 맞았을 때 작은 지붕들에게 큰 위로를 받은 경험(3연)을 통해,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 줌(4연)을 깨닫고 있다. ⑤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 '막무가내의 어둠',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 '먼 곳의 불빛'과 같은 시각적 심상을 통해, 암담한 상황 속에서 화자가 희망이 되는 따뜻한 힘을 느낌을 보여 주고 있다.

12 화자는 어두운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불빛'과 '작은 지붕들'을 통해 위로를 받은 것을 바탕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화자는 힘든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삶을 추구할 뿐, 정의를 추구하거나 부끄럽지 않게 살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③ 소외된 자들의 삶을 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맞지만,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산'이라는 자연이 등장하지만, 자연의 소중함이나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과는 거리가 멀다.

13 '새로운 발견'은 힘든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A]와 [B]에서 산에서 길을 잃은 상황, 그 상황에서 어둠을 만난 것은 모두 절망적인 상황으로, [A]의 '불빛'과 [B]의 '누군가 맞잡을 손'은 그러한 상황에서 위로를 주는 존재를 의미한다. ② [A]의 '불빛'과 [B]의 '누군가 맞잡을 손'은 '어둠', '밤'과 대조되면서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를 뜻한다. ③ [A]는 문장의 일반적인 어순을 도치하여 표현함으로써 '불빛의 따뜻함'을 강조하고 있다. ④ [B]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 상황을 이겨 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14 ㉠은 산속에서 밤을 맞은 사람, 즉 힘들고 지친 사람의 어깨를 감싸 주며 위로해 주는 존재를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은 화자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지만, ㉡은 그렇지 않다. ② ㉠은 ㉡에 비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고통을 겪는 이를 위로해 주는, 따뜻한 인정을 지닌 존재이다. ④, ⑤ ㉡은 ㉠과 비교되는 대상이지, 삶의 고통을 겪어 본 존재나 절대적인 존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15 '나그네'에게 ⓑ를 가능하게 한 것은 '먼 곳의 불빛'이므로, 계속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나그네'의 의지와 확신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는 지친 '나그네'를 일시적으로 쉬어 가게 한다는 의미이다. ② ⓐ는 힘든 상황에서 잠깐 동안 쉬는 것을 의미한다. ④ ⓑ는 ⓐ와 달리 힘든 상황에 있는 '나그네'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한다는 의미이다. ⑤ 화자는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포기하지 않을 힘과 용기를 주는 삶의 태도를 긍정하고 있다.

16 〈보기〉에서는 '길'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 '길'은 화자가 걸었던 산길, 즉 사전적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삶이 전개되는 과정'과 관련지어 화자의 삶의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경험과 그로 인한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주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②, ③ 화자는 어려운 순간에 따뜻한 힘을 주는 존재에 대해 노래하고 있으므로, '길'을 화자의 목표나 화자를 변화시킨 가르침으로 볼 수 없다. ⑤ 화자는 어두운 산속에서 길을 잃은 경험을 했을 때 자신에게 따스한 위로를 주었던 '불빛'을 통해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즉, '길' 자체가 화자가 본받으려는 삶의 모습인 것은 아니다.

17 갈등을 활용하여 긴장감을 주는 것은 서사 갈래의 특징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 '-리라', '-ㄴ지' 등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화자가 '불빛', '어둠', '밤' 등의 함축적인 시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화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로가 되는 존재의 가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⑤ '불빛'은 힘든 상황에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주는 존재로, 함축적인 언어에 해당한다.

18 화자는 어두운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불빛'에서 '따뜻함'을 느꼈으며, '불빛'은 '어둠'이나 '밤'과 대조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

오답 해설 '거대한 산줄기'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작은 지붕들'과 대비되는 존재이다. 또한 '누군가 맞잡을 손'은 '불빛', '작은 지붕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희망과 위로, 위안을 주는 존재이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16-019쪽

01 ③	02 ③	03 ②	04 ⑤	05 ④	06 ③	07 ①	08 ②
09 ③	10 ①	11 ①	12 ⑤	13 ②	14 ①	15 ②	16 ①
17 ⑤	18 ②	19 ④	20 ③				

▸ (나)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_나희덕

핵심 정리

갈래	경수필
성격	회상적, 교훈적, 서정적
주제	삶의 고통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깨달음
해제	탱자나무의 가시라는 자연물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교훈을 이끌어 냄.

01 (가)는 어두운 산속에서 길을 잃었던 경험을 통해, (나)는 어린 시절 탱자 가시를 가지고 놀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화자와 나그네가 동일시된다고 볼 수 있지만, (나)는 글쓴이와 탱자나무가 동일시되고 있지 않다. ② (가)는 산속에서 길을 잃고 밤을 맞은 상황을, (나)는 어린 시절 탱자 가시에 대한 기억을 다루고 있는데, 두 작품 모두 대조적인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는 어두운 산속에서 길을 잃은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으나, 인식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후 탱자 가시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 변화를 보여 준다. ⑤ (가)와 (나) 모두 역설적인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Plus 〈참고〉 역설

역설	문장 자체는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앞뒤가 맞지 않으나, 그 속에는 진실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 방식 예 소리 없는 아우성

02 산속에서 길을 잃고 어둠을 만난 '나그네'가 '불빛'과 '작은 지붕들'에게서 위안을 얻는 상황을 통해, 누군가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의 가치를 '인간에 대한' '새로운 발견'으로 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어두운 산속에서 길을 잃은 상황이 시련과 고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②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은 시각을 촉각화한 공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표현이다. ④ '산줄기'가 아닌 '작은 지붕들'이 '나그네'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이다. ⑤ 화자는 '나그네'가 아니며, 작품 속에 드러나 있지 않다.

03 '큰 힘'은 '작은 지붕들'이 시련을 겪어 본 사람들의 어깨를 감싸 주는, 즉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는 힘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작은 지붕들'과 관련 있는 것으로, '거대한 산줄기'와는 관련이 없다. ③ '그 산에 갇힌' 것은 '작은 지붕들'이다. ④, ⑤ '산속에서 밤을 맞아 본 사람'에게 '작은 지붕들'이 준 위로와 위안이다.

04 (나)는 수필로, 글쓴이는 자신이 체험한 것에서 가치를 발견하여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즉, 글쓴이가 상상한 내용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찔레꽃, 장미꽃, 아카시아는 탱자나무처럼 가시가 있는 식물의 사례이다. ② 탱자나무의 가시라는 자연물을 통해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③ 탱자나무 가시에 손이 찔려 상처가 난 후 그 가시에는 독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난 후 가시는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④ 글쓴이가 어린 시절 고향에서 탱자 가시를 가지고 놀던 경험과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후의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05 글쓴이는 고향을 생각하면 탱자의 맛이나 냄새, 탱자 가시를 가지고 놀던 일이 떠오른다고 했지만,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을 뿐 탱자 열매를 그리워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르면, 나무(생명)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가시를 가지거나, 냄새가 지독하거나, 나뭇잎이 아주 써서 먹을 수 없거나, 열매에 독성이 있거나, 모습이 아주 흉하게 생기기도 한다. ② 탱자 가시에 대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글쓴이의 생각이 달라졌다. ③ 어린 시절 작은 소읍에서 자란 글쓴이는 뾰족한 탱자 가시에 침을 발라 손바닥이나 코에 붙이고 놀거나, 가시를 붙인 손으로 악수하자고 해서 친구를 놀려 주었다. ⑤ 글쓴이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시가 스스로를 찌른 것을 보고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06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르면, 탱자 가시는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글쓴이는 어느 날 탱자 꽃잎이 스스로의 가시에 찔린 것을 보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는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에 슬픔을 느낀다.

오답 해설 ① 탱자 가시는 자신을 지키지만 스스로를 찌르기도 하는데, 이는 삶의 고통을 피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② 탱자 가시가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을 통해 삶의 고통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지만, 겸손함과는 거리가 멀다. ④ 탱자 가시는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므로 스스로를 완전히 보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외부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 때로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다는 인식을 보여 주는 것으로, 성장을 위한 시련과는 거리가 멀다.

07 ⓐ는 시련과 고난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존재를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② ⓐ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새로운 도전을 위해 잠시 쉬어 가는 사람과는 관련이 없다. ③ ⓐ는 산속에서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냉소적이라 할 수 없다. ④ ⓐ가 삶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⑤ ⓐ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지붕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얻는 사람이다.

08 ㉡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어둠'까지 만나게 된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지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③ ㉢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지친 인물에게 위로를 주는 존재를 의미하다. ④ ㉣은 ㉢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간은 다른 누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⑤ ㉤은 '거대한 산줄기'보다 작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막막한 상황에 놓인 대상이 의지할 수 있는, 그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들을 의미한다.

09 [A]에는 목적어가 서술어 뒤에 위치하는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에도 도치법이 사용되었는데, ㉦를 원래 어순대로 쓰면 '얼마 후에 아버지는 내게, 가시에 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그런 나무들에는 가시가 있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다.'가 된다.

10 〈보기〉를 통해 화자가 '불빛'을 본 후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나그네'도 '불빛'을 보고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것이다.

오답 해설 ② '나그네'는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막막한 상황에 놓였지만 '불빛'을 보고 위안을 얻어 계속 나아갈 수 있었다. ③ '불빛'은 '나그네'를 잠시 쉬게 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다. ④ '불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에게 힘을 준 존재이다. ⑤ 산속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가 자신의 처지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 (나) 연필로 쓰기_정진규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산문시
성격	성찰적, 사색적
주제	삶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고 싶은 소망
해제	잘못된 것을 지우거나 고쳐 쓸 수 있도록 시를 연필로 쓰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남. '향기론 영혼의 냄새'는 서로가 서로를 표용하고 보듬어 주는 삶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11 (가)는 '~ 사람은 ~리라'의 문장 구조와 '~인지', '~을'의 문장 종결 방식, '얼마나'와 같은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나)는 '-ㅂ니다'의 문장 종결 방식과 '연필로 쓰기' 등의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가)의 '산'은 '나그네'가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공간으로, 관조적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나)에는 자연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와 (나) 모두 색채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④ (가)와 (나) 모두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거나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12 (가)는 밝음과 어둠의 대조, 도치 등의 표현 방법을 통해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처음과 끝을 유사하게 표현하는 수미상관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작품 속에 '나'로 등장하지 않는다. ② 1연과 3연에 산속에서 길을 잃고 밤을 맞은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③ '불빛'과 '어둠', '밤' 등의 상징적 시어를 통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존재들에 관해 노래하고 있다. ④ 화자는 어두운 산속에서 길을 잃은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Plus 〈참고〉 수미상관

수미상관	시의 시작과 끝을 유사하거나 동일한 시구로 구성하는 방식. 균형미와 안정감을 얻고 의미를 강조함.

13 화자는 자신을 '온전치 못한 반편'이라고 말하면서 실수와 잘못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삶에서 성취한 것을 회상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나도 연필로만 시를 쓰고자 합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가 작품 속에 '나'로 등장하고 있다. ③ 쓰고 지울 수 있는 연필의 속성을 활용하여 연필로 시를 쓰고 싶은 이유를 표현하고 있다. ④ '나는 언제나 온전치 못한 반편'에서 화자가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화자는 지워 버릴 수 있고 고쳐 쓸 수 있기 때문에 연필로 시를 쓰겠다고 하였다.

14 화자는 연필을 깎을 때 나는 '향기론 영혼의 냄새'에 관한 '그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를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이 연필로 시를 쓰려는 이유를 '향기론 영혼의 냄새'로 만나고 싶기 때문이라며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 따라서 '영혼의 냄새'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연필과 화자가 쓰려는 시는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그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를 시작하고 있으나 '그분'의 삶은 (나)에 나타나지 않는다. ③, ④ 화자는 자신의 생애가 지워 버릴 수 있기를, 용서

밭을 추구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④ 화자는 자신의 삶을 고칠 수 있고 지워 버릴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연필로 시를 쓰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 쓴 글도 지워 버릴 수 있다는 가르침이나 글을 고쳐 쓰는 단계에서의 유용성 등과는 거리가 멀다. ⑤ 화자가 떳떳하고 잔실한 자신의 모습이 지워져도 괜찮다고 한 것은 자신은 감추려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만, 연필 자체가 솔직한 글을 쓰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15 '산속에서 밤을 맞아 본 사람'에게는 '거대한 산줄기'보다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위로를 준다. 이는 '거대한 산줄기'와 '작은 지붕들'을 대조함으로써 어려운 처지에 있는 존재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는 주제를 부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문장의 일반적인 어순을 도치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을 뿐,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고 있지 않다. ③ 작품 전체적으로는 '-리라', '-ㄴ지' 등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나, [A]에는 시구의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위안을 주는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나타나 있을 뿐,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정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⑤ 두 가지 이상의 뜻으로 해석되는 중의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16 ㉠은 일시적으로 나그네를 편안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② 길을 잃고 어둠을 만난 것이 고통, 시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은 그것을 잊게 하는 희망이 아니라 일시적인 휴식을 의미한다. ③~⑤ ㉠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어둠을 만나 좌절한 나그네가 지친 몸을 잠시 쉬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신의 상태를 고려한 계획, 현재보다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와는 거리가 멀다.

17 ㉡은 화자가 두려워하는 것으로,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성취를 이루어 낸 경험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자신의 삶에서 실수한 것을 지워 버리기를 원한다. ② 화자는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기를 원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은 곧 화자가 두려워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③ 후회는 화자가 지워 버리고 싶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후회와 잘못을 지워 버리고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추구한다. ④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 과오를 지워 버리고 싶어 하는 화자에게 친구와 다투고 화해할 수 없는 상황은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8 (나)는 '-ㅂ니다'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며(ㄱ), 연과 행의 구분이 없는 산문시이다(ㄷ).

오답 해설 ㄴ. 화자가 연필로 시를 쓰려는 이유를 노래하고 있으며, 의인화된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ㄹ. 어휘의 사전적 의미에 충실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고 보듬어 주는 삶을 '향기론 영혼의 냄새'와 같이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9 (가)의 '산줄기'는 '작은 지붕들'과 대조되는 대상이며, 〈보기〉의 '씨앗'은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을 이야기하기 위해 제시된 소재이다. 즉, (가)의 '산줄기'와 〈보기〉의 '씨앗' 모두 화자가 본받고자 하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어두운 산속에서 길을 잃은 상황을, (나)는 '벽'에 가로막힌 상황을 다루고 있다. ② (가)의 '불빛'은 길을 잃은 사람에게 보내는 따뜻한 위로를, (나)의 '담쟁이'가 '여럿이 함께' 나아가는 모습은 연대 의식을 보여 준다. ③ 〈보기〉의 '벽'은 '어쩔 수 없는' '절망의 벽'으로 암담한 상황을 의미하므로, (가)의 '산속에서 밤을 맞'은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나그네'가 '불빛'을 보고 계속 걸어가는 것과, (나)에서 '담쟁이'가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 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Plus 〈보기〉 담쟁이_도종환

갈래	서정시, 자유시
성격	상징적, 의지적, 교훈적
주제	절망을 극복하는 담쟁이의 생명력과 의지
해제	담쟁이에게 인격을 부여하여 고난을 이겨 내는 강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여럿이 함께 절망을 이겨 내는 태도를 형상화함.

20 화자는 자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말하며 삶에서 생기는 실수나 잘못을 지우고 고칠 수 있기를 원한다. 즉, '잘못 간 서로의 길은 서로가 지워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모습에서 너그럽고 포용적인 태도를 지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지워 버릴 수 없는 삶이 두렵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은 고쳐 쓸 수 있는 것이기를 바라고 있다. ② 화자가 자신의 생애를 지우고 고쳐 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실수나 잘못을 지워 버리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 할 수 있다. ④ 화자는 서로의 실수를 지워 주는 너그러운 삶의 태도를 긍정하고 있으므로, 자존감을 키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⑤ 화자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지우고 싶다고 했으므로, 그 이유를 찾아보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20~021쪽

01 ⓐ: 불빛, ⓑ: 지붕, ⓒ: 위로, 위안, 희망 **02** 힘든 '어둠' 속에서 나그네를 위로하는 '불빛의 따뜻함'처럼 화자는 시련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따스한 인정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자는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03** '-리라', '-ㄴ지'라는 어미의 반복과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배치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4**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 제시하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불빛의 따뜻함'을 강조한다. **05** ㉠은 일시적으로 '나그네'를 편안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은 '나그네'가 계속 움직일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01 화자는 어두운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불빛을 보고 따뜻함을 느끼며, 작은 지붕들에게 큰 위로를 받는다. 이를 통해 자신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불빛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한다.

02 시각적으로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를 대비시키고 있으며, '불빛의 따뜻함'과 같은 공감각적인 심상을 활용하고 있다.

03 1연의 '길을 잃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와 3연의 '산속에서 밤을 맞아 본 사람은 알리라'에서 '-리라'의 반복을, 2연의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와 3연의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 주는지'에서 '-ㄴ지'의 반복을 확인할 수 있다.

04 [A]에는 목적어가 서술어 뒤에 위치하는 도치법이 사용되었고, 〈보기〉는 문장의 일반적인 어순을 따르고 있다.

05 ㉠은 순간적, 일시적인 것이고, ㉡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게 해 주는 힘이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22~023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2 화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은 바를 전달하고 있을 뿐, 지나온 삶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다.

03 산속에서 길을 잃었던 화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만, 나그네를 보고 화자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린 것은 아니다.

08 1연의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 2연의 '막무가내의 어둠'에서 시각적 심상이, 1연의 '불빛의 따뜻함'에서 공감각적 심상이 활용되었다.

17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은 산에서 길을 잃고 밤을 맞이한 화자의 어깨를 감싸 주는 존재들로, 힘든 상황에 놓인 이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존재들을 비유한다고 할 수 있다.

18 '작은 지붕들'은 산속에서 밤을 맞아 본 사람'에게 위안이 되는 존재를 의미한다.

19 '거대한 산줄기'는 힘들고 지친 이를 위로하는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과 비교되는 대상이다.

02. 서사 갈래_관내 분실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26~031쪽

01 ③ 02 ⑤ 03 ⑤ 04 ③ 05 ④ 06 ② 07 ① 08 ②
09 ⑤ 10 ⑤ 11 ③ 12 ② 13 ③ 14 ③ 15 ② 16 ④

01 이 글은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지민의 시각에서 상황을 해석하며 지민의 생각과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로, 서술자가 지민의 생각과 내면을 전달하고 있다. ② (다)에서 지민이 과거에 엄마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가)에서 도서관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마인드를 통해 고인과 접촉할 수 있는 가상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02 지민은 자신이 몰랐던 엄마의 모습을 알게 된 후 마인드에 접속하여 엄마와 만나 그동안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하지만 지민과의 관계 회복이 엄마의 소망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지민은 마인드를 통해 3년 전에 죽은 엄마와 만나게 된다. ② 엄마를 부담스러워하고 엄마와 인연을 끊고 싶어 했던 지민은 엄마의 과거 삶을 알게 된 후 엄마를 이해하게 된다. ③ 지민은 엄마에게도 아이를 낳기 전의 진짜 삶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엄마를 이해하게 된다. ④ 과거에 지민은 엄마와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마인드를 통해 죽은 엄마와 다시 만난 후에는 엄마를 이해한다고 말한다.

03 ㉤는 엄마가 지민을 낳기 전에 직장에 다니면서 어딘가에 소속되어 자신의 삶을 살던 때를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엄마가 죽은 후 지민이 엄마가 기록된 도서관을 한 번도 찾지 않은 이유는 엄마와 지민의 사이가 소원했기 때문이다. ② 엄마가 지민에게 사랑한다고 했다가 지민이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하는 등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지민이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③ 엄마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일이 반복되자 지민은 엄마와 자신 사이에 남아 있던 약한 끈마저 잘라 내고 싶어 하는데, 이는 엄마와의 인연을 끊어 버리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다. ④ 지민은 "너희 엄마가 일하던 곳에서 펴낸 책이야. 지금은 이런 종이책을 찾아보기도 어렵지만."이라는 아빠의 말을 듣고 나서야 엄마가 과거에 책 만드는 일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04 ㉠은 고인과 유족이 재회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ㄷ)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남겨진 사람들의 상실감'을 덜게 해 주었다(ㄴ).

오답 해설 ㄱ. ㉠은 '죽음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그 사람이 지금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말해 주었을까?', '살아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분명 기뻐해 줄 텐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었지만, 가족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도구는 아니다. ㄹ. ㉠은 삶과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었지만, 삶과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05 지민의 기억 속에서 엄마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며 가족에게 집착하는 모습이다. 서술자는 지민의 기억과 생각을 통해서만 엄마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엄마가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지민이 엄마가 책 만드는 일을 한 것을 몰랐고 엄마의 과거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지민은 자신이 몰랐던 엄마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엄마를 이해하게 되고, 엄마와의 갈등을 해소한다. 이 과정에서 한 인간이 지닌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지민과 엄마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지민은 엄마가 죽은 후에도 엄마를 추모하려 가지 않았다. ⑤ 지민은 자신을 낳기 전 엄마에게도 진짜 삶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엄마와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엄마가 겪었던 힘든 시간을 이해하게 된다.

06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이야기를 서술하면서도 지민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지민의 내면을 전달한다.

오답 해설 ① 서술자는 이야기 외부에 있으며, 작품 속에 등장하지 않는다. ③ 서술자는 지민의 심리와 내면을 전달하고 있으나 인물에 대해 평가하지는 않는다. ④, ⑤ 서술자는 지민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작중 상황과 거리를 유지한다거나 객관적 태도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07 지민은 엄마와 소원했던 관계였으나 엄마의 마인드가 분실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인드를 찾는 과정에서 동생, 아빠를 만난다. 즉, 이 글은 엄마의 실종 사건이 지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엄마는 너무 찾기 쉬운 사람이었다.', '엄마는 지민을 사랑했던 것이 맞을까. 그건 사랑이었을까. 사랑할 수 없는 관계를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엄마와 지민은 더 불행해진 게 아닐까.'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동생의 기억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엄마에 대한 지민의 생각을 보여 주고 있다. ③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사건을 서술하면서도 지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엄마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서술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④ 지민은 임신 후 새 업무를 맡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은 과거 엄마가 겪은 상황과 유사하다. 하지만 지민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통해 지민이 겪는 내적 갈등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⑤ 지민과 엄마의 사이가 소원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만, 구체적으로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08 지민은 아빠의 말을 통해 엄마가 자신을 고유하게 만들었던 일, 즉 책을 만드는 일을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엄마가 일부러 그것을 숨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라)를 통해 지민을 임신한 엄마가 일을 그만두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지민이 도서관에 기록되었던 엄마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건이 진행된다. ④ "누나도 참 이상하다. 난 그냥 잊으려고 할 것 같은데."라는 동생의 말이나 "나는 네 엄마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지. 그것만 아니었어도."라는 아빠의 말을 통해, 엄마는 지민뿐 아니라 동생이나 아빠와도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엄마는 임신 후 일을 그만두면서 책을 만들었던 자신의 진짜 삶을 포기했다.

09 (라)는 지민이 아빠를 통해 엄마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이고, (나)는 엄마의 마인드가 분실된 상황이다. (나)에는 도서관을 찾지 않았던 지민의 결정이 나타나지만, (라)는 이러한 결정의 원인과 상관없다.

오답 해설 ① (가)에는 엄마가 실종된 상황이, (나)에는 지민이 엄마의 마인드 분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온갖 키워드로 검색하는 행동이 나타난다. ② (다)에서 엄마의 마인드의 분실이 지민을 당혹스럽게 했다는 것은 지민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③ (다)에서는 엄마에 대한 지민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④ (다)에서 지민이 임신 후 새 업무를 맡지 못한 것은 (라)에서 엄마가 지민을 임신하면서 일을 그만두었던 상황과 유사하다.

10 ㉠은 첨단 기술인 마인드가 기록된 공간으로, 사람들은 마인드에 접속하여 고인을 추모한다.

오답 해설 ① ㉠은 책을 데이터로 만든 공간이 아니라 고인의 마인드가 기록된 공간이다. ② ㉠의 외관은 그것을 오랜 전통을 가진 관광 명소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제 ㉠이 관광 명소로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③ 사람들이 ㉠에서 휴식과 안정을 취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④ 종이책들이 대부분 사라졌다는 것과 ㉠에 드나드는 사람들 중 실제로 책을 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통해, ㉠이 종이책을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1 도서관에서 엄마의 마인드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지민은 엄마의 마인드를 찾기 위해 동생과 아빠를 만난다.

오답 해설 ① 지민은 동생 유민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언쟁은 벌이지 않는다. ② 팀장이 지민에게 새 업무를 맡기지 않았을 뿐 지민 스스로 임신을 해서 일을 쉬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④ 엄마와 지민의 화해는 작품의 가장 마지막에 제시되는 내용이다. ⑤ 지민이 엄마의 흔적을 찾다가 엄마의 과거를 알게 되는 것은 아빠의 말을 들은 후의 일이다.

12 지민은 엄마와 다투면서 엄마에게 제발 입원하라고 말한다. 따라서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지민이 바라지 않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지민이 엄마에게 입원하라고 말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③ "왜 몰라주는 거니?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라는 엄마의 말에서 알 수 있다. ④ "너도 이제 네 아빠처럼 나를 무시하는 거니?"라는 엄마의 말에서 알 수 있다. ⑤ 엄마와 지민의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 상처를 주는 말을 했었음을 알 수 있다.

13 [A]에서 지민은 저주와 비난을 퍼붓다가 사랑한다고 했다가 하는 엄마의 모순적인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지민은 엄마와 서로 체념하고 살았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두 사람이 서로 체념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지민은 엄마의 태도가 숨 막힌다고 생각하며, 엄마의 모순적인 태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엄마의 일방적인 희생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엄마와 지민은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⑤ 엄마와 지민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갈등이 깊어졌다.

14 지민은 엄마의 인덱스를 지운 것이 아빠(현욱)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 낸다.

오답 해설 ① 현욱은 지민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았다. ② 현욱은 마인드에 접속하여 엄마를 만났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지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지민은 현욱이 인덱스를 지운 행동을 비난하고 있을 뿐, 인덱스를 지운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⑤ 지민은 현욱을 감정적으로 대하며 원망하지만, 현욱은 지민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한다.

15 지민은 엄마의 신경질적인 태도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데, 그러한 행동에 대한 자조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통증 같은 슬픔'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엄마와 자신 사이에 남아 있던 약한 끈마저 잘라 내고 싶다는' 것은 엄마와의 인연을 끊고 싶다는 의미이다. ④ '약한 끈'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과 ㉡ 모두 엄마를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지민의 심리가 나타나 있다.

16 지민이 기억하는 엄마는 '원래의 이름'을 잃어버렸을 시기의 엄마로, 자신의 이름에 만족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지민 엄마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했던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스무 살의 엄마, 세계 한가운데에 있었을 엄마, 이야기의 화자이자 주인공이었을 엄마. 인덱스를 가진 엄마. 쏟아지는 조명 속에서 춤을 추고, 선과 선 사이에 존재하는, 이름과 목소리와 형상을 가진 엄마'인 김은하는 '누구보다도 선명하고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이 세계에 존재했'던 가치 있는 인물이었다. ② 지민은 엄마의 인덱스를 찾기 위해 아빠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자신이 몰랐던 엄마의 과거를 알게 되고,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존재 가치를 지녔던 그 시기의 엄마의 흔적을 찾으려고 한다. ③ 지민이 기억하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던 엄마는 '지민 엄마'로 살아가던 시기의 엄마이다. ⑤ 지민은 '지민 엄마'가 아니라 고유한 개인으로서의 엄마, 의미 있는 존재로서의 엄마를 찾으려고 한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32~037쪽

01 ⑤ 02 ④ 03 ③ 04 ⑤ 05 ③ 06 ④ 07 ② 08 ⑤
09 ⑤ 10 ③ 11 ② 12 ④ 13 ⑤ 14 ④ 15 ④

01 (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민은 엄마의 마인드를 찾기 위해 유품을 찾아보다가 엄마가 과거에 책을 만드는 일을 했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다.

오답 해설 ① '지민은 엄마의 집착이 싫었고 자신을 소유물처럼 통제하는 것이 지긋지긋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지민이 알던 엄마는 언제나 집 안에서 무기력한 얼굴을 한 모습이었으니까.'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아빠는 엄마의 산후 우울증에 대해 엄마가 원래 예민한 성격이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④ 지민은 3년 전에 죽은 엄마가 도서관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도서관을 찾지 않았다.

02 서술자는 지민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며 지민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을 뿐, 인물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에는 죽은 엄마가 도서관에 기록되었지만 찾아간 적이 없는 지민의 행동이, (나)에는 엄마와 지민의 과거가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② (가)~(라)에서 서술자는 지민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지민의 심리와 내면을 전달하고 있다. ③ (나)에서 지민은 엄마에게도 진짜 삶이 있었다는 것을 모른 채 엄마의 집착과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⑤ (다)에는 현욱의 말을 통해 엄마가 책 만드는 일을 했었다는 것이, (라)에는 현욱이 엄마의 마인드에 접속했던 적이 있다는 것이 나타난다.

03 지민이 죽은 엄마가 기록되어 있는 도서관을 한 번도 찾지 않은 것은, 지민이 엄마의 집착과 통제를 부담스러워했고 이로 인해 지민과 엄마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지민이 3년 만에 도서관에 가 본 후 엄마의 마인드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선후 관계가 잘못되었다. ② 지민이 자신을 소유물처럼 통제하려던 엄마를 싫어했던 것은 엄마가 죽기 전의 일이다. ④ 엄마가 죽고 엄마의 마인드를 찾기 위한 과정에서 지민은 엄마의 과거를 새롭게 알게 된다. ⑤ 지민은 도서관에 가기 전에는 엄마의 마인드가 도서관에서 사라진 것을 모르고 있었다.

04 현욱은 자신이 산후 우울증을 겪는 아내를 방치하면서 힘들게 했는데 죽어서까지 자신을 만나는 게 아내에게 고통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지민은 도서관에서 엄마의 마인드가 사라진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엄마의 정보를 기록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엄마의 인덱스는 아빠가 제거했다. ② 현욱은 엄마가 지민을 낳기 전에 책 만드는 일을 했었던 것을 지민에게 이야기해 준다. 엄마가 가족들 몰래 일을 한 것은 아니다. ③ 현욱은 지민에게 과거의 일을 이야기해 줄 뿐, 지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④ 현욱은 지민이 마인드에 접속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 지민을 원망하고 있지 않다.

05 이 글은 지민의 입장과 기억을 통해 엄마와의 관계가 서술되고 있으며, 지민에 대한 엄마의 생각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지민의 말을 통해 현욱이 엄마의 유언에 따라 인덱스를 지워 엄마의 마인드가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② 지민은 분실된 엄마의 마인드를 찾기 위해 노력하던 중 생각지도 못했던 종이책에서 인덱스를 발견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엄마와 접촉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된다. ④ 현욱은 마인드에 접속하여 엄마와 만났던 일을 지민에게 이야기하며 목이 잠긴다. ⑤ 지민은 엄마가 죽은 후 한 번도 도서관을 찾지 않을 정도로 엄마와 관계가 소원했으나, 사라진 엄마의 마인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현욱을 만나 엄마의 과거도 알게 된다.

06 (나)에서는 특정한 마인드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는 유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다)의 방법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에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엄마를 검색망에서 분리했기 때문에 엄마가 도서관 검색망에서 사라졌음이 제시되어 있다. ② (가)에 제시된 문제 상황, 즉 엄마의 마인드의 분실을 해결하기 위해 (다)에서 엄마가 만든 책을 스캐닝하고 있는 것이다. ③ (나)에서 데이터 검색에 성공하기 위해 고인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유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⑤ 엄마가 만든 종이책은 엄마에게 의미 있는 유품일 것이라는 지민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나)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한다.

07 마인드는 고인에 관한 방대하고 깊이 있는 정보의 모음으로, 인덱스의 보존과 삭제를 기록하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직원들은 마인드에 접근할 수 없고,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다. ③ "김은하 씨의 마인드에 접근 권한을 가진 분 중 누군가가 은하 씨를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종류의 인덱스를 지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민 씨가 한 일이 아니라면 주위 가족분일 겁니다. 저희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지요."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인드의 인덱스를 지우는 것은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④ 한 사람의 일생에 이르는, 매우 막대하고 깊이 있는 정보의 모음이다. ⑤ 수십조 개가 넘는 뇌의 시냅스 연결 패턴을 스캔하고 마인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구현한 결과물이다.

08 "사서가 말한 '관내분실'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으로서는 그분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에서 알 수 있듯이, 누군가가 엄마의 인덱스를 제거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엄마의 마인드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오답 해설 ① 이미지나 동영상이 아니라 엄마의 인덱스가 삭제된 것이다. ② 인덱스가 삭제되어 엄마의 마인드가 검색되지 않는 상태이다. ③ 마인드에 접근할 수 있는 누군가가 인덱스를 지운 상태이므로 지민이 엄마의 마인드에 접근할 수 없다. ④ 지민은 사라진 엄마의 마인드를 찾기 위해 엄마에게 의미 있는 유품인 책을 가져간다.

09 ㉡은 고인을 고유하게 특정할 수 있는 물건, 즉 고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지민은 모두가 공산품을 쓰는 시대에 고인에게 의미 있는 유품이 무엇일지 고민한다. 하지만 그 유품이 공산품이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시냅스 스캐닝의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은 고인이 남몰래 숨겨 둔 것이라기보다는, 고인에게 의미가 있던 물건들이다. ④ (나)에서 도서관 관계자는 지민에게 텍스트나 이미지처럼 곧장 데이터화가 가능한 것보다는 실체가 있는 유품을 가져오라고 했다.

10 '은하가 가졌을 감각과 취향'은 엄마가 만든 책의 표지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런데 지민은 엄마가 만든 책이 엄마를 찾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물건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 책을 보고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마인드 업로딩은 작가가 상상한 것으로, 이 글이 미래의 가상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④ 지민은 사서의 말을 듣고 엄마를 고유하게 특정할 수 있는 물건으로 엄마가 만든 종이책을 가져간다. ⑤ 책을 스캐닝하는 과정에서 지민이 초조해하는 모습을 통해 엄마의 마인드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함을 알 수 있다.

11 엄마는 마인드를 남기지 않겠다고 했으나 아빠의 설득으로 마인드를 남기는 대신 인덱스를 지워 달라고 했다.

오답 해설 ① 지민은 임신 후 엄마의 부재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죽은 엄마의 마인드가 도서관에 있음을 떠올린다. ③ 현욱은 엄마에게 마인드를 남기라고 설득하였지만, 세상에서 잊히기를 바라는 엄마의 결정을 존중하여 인덱스를 지웠다. ④ 지민은 누군가 고의적으로 엄마의 인덱스를 지웠다는 것을 알게 되고, 현욱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⑤ (가)를 통해 지민이 도서관에 가서야 엄마의 마인드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을 알 수 있다.

12 ㉠은 엄마의 데이터가 도서관 내에 존재하기는 하나 검색되지는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은 엄마가 도서관 데이터 내에 있으나 찾을 수 없는 상태이다. ②, ③ 소멸되거나 도서관 밖으로 이관된 데이터는 기록이 남게 되어 있으나 엄마의 데이터는 소멸 목록에 없다. ⑤ 엄마가 검색망에서 분리된 상태이지 인덱스에 오류가 생긴 것은 아니다.

13 (마)를 통해 엄마는 자신을 고유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되지 못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엄마는 세상에서 잊히고 싶어 인덱스를 지워 달라고 했으므로, 세상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싶어 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지민은 엄마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엄마를 자신의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 알아 가게 된다. 하지만 (마)를 통해 이러한 것을 엄마가 바랐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② 엄마는 아빠에게 인덱스를 지워 줄 것을 요구했으나 죽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엄마는 자신이 세상에서 잊히길 원했다. ④ 엄마는 세상에서 잊히길 원했으므로, 자신을 규정할 수 있는 장소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싶어 했다고 볼 수 없다.

14 (마)를 통해 엄마가 일을 그만둔 것이 연쇄적으로 엄마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글에서는 이를 ㉢과 같이 표현하였다. 따라서 엄마에게 일은 '자신을 고유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일을 그만둔 뒤 엄마의 삶이 '세상과 연결되'지 못하고 '깊은 바닥'으로 내려앉게 된 것으로 보아 일에 대한 애정이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지민의 엄마는 일을 그만둔 후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한 적이 없다. ③ 지민이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리를 둔 것은 엄마와 지민이 갈등한 이후의 일이다. ⑤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15 서술자는 지민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지민의 내면을 드러내기 때문에, 독자는 지민과 엄마에 관계에 대해서도 지민의 관점에 의지하게 된다.

오답 해설 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독자는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② 독자는 현욱의 말을 통해 현욱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③ 서술자는 지민의 관점에서 지민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기 때문에 독자 역시 지민의 관점에서 상황을 받아들이게 된다. ⑤ 지민은 현욱의 말을 듣고 '현욱이 그녀를 자식들의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대한 적이 예전에는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상황을 지민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38~039쪽

01 인덱스 **02**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으나 지민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며 지민의 내면을 전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지민의 감정과 생각을 잘 파악할 수 있다. **03** 엄마는 우울증이 심한 상태에서 가족들의 돌봄을 받지 못했으며 지민이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했고, 지민은 엄마의 간섭과 통제가 숨 막힌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갈등이 심화되었을 것이다. **04** 지민은 사라진 엄마의 마인드를 찾기 위해 노력하던 중 엄마가 하던 일을 알게 되고 엄마가 만든 책을 통해 엄마의 마인드에 접속할 것이다. **05** ㉠은 출산과 육아의 과정을 거치기 전 엄마가 책을 만드는 자신만의 일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던 시간을 의미한다.

01 지민은 사라진 엄마의 마인드를 찾기 위해 한 사람을 고유하게 특정할 수 있는 인덱스를 찾으러 다니고, 현욱을 만나 엄마의 인덱스인 종이책을 얻게 된다.

02 서술자의 위치와 서술 태도에 따라 이야기의 내용과 이야기가 주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글에서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지만 지민의 관점에서 사건을 전개한다.

03 엄마는 산후 우울증을 심하게 앓으면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지민은 그런 엄마를 부담스러워했다.

04 지민은 현욱과의 대화를 통해 엄마가 책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일을 하던 시간에 엄마는 고유한 개인으로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05 지민이 몰랐던 엄마의 과거가 ㉠에 해당한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40~041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2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으며, 지민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여 전달한다.

07 도서관에는 마인드 접속기가 자리하고 있다.

09 지민은 임신을 한 후 자신이 건강한 사랑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여 엄마의 마인드에 접속하기 위해 도서관을 찾는다.

10 지민은 배 속에 있는 아이에게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자신과 엄마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13 엄마는 아이를 낳고 난 후 일을 그만두었으며 산후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지만, 지민과 유민이 자신의 경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다.

17 현욱은 산후 우울증을 앓는 아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했다.

03. 극 갈래_결혼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44~049쪽

01 ③	02 ③	03 ④	04 ②	05 ⑤	06 ②	07 ④	08 ⑤
09 ③	10 ④	11 ③	12 ①	13 ①	14 ⑤	15 ④	16 ②
17 ③	18 ②	19 ⑤	20 ⑤				

01 극 갈래에 속하는 희곡은 서사 갈래와 달리 효과적 표현을 위해 효과음을 사용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⑤ 희곡이 포함되는 극 갈래의 일반적 특징이다. ④ 극 갈래의 하위 갈래인 시나리오와 구분되는 것으로, 이 글이 해당하는 희곡의 특징이다. 시나리오는 시공간의 설정에 제약이 없다.

02 하인은 시간에 따라 남자가 빌린 물건을 회수하는 행동만 반복할 뿐 대사를 하지는 않으므로, 근엄한 목소리를 지닌 배우를 섭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하인은 빌린 물건에 대한 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남자에게 일깨워 주는 보조적 인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② 남자가 빌린 물건들은 극의 진행에 매우 의미 있는 소품들이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④ 남자가 관객에게 말을 걸거나 관객의 물건을 소품으로 활용하는 등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방안이다. ⑤ 이 글에는 특별한 배경 음악은 활용되지 않았다.

03 남자는 여자가 듣는 상황에서는 하인에게 큰 소리로 명령하지만, 하인의 귀에 속삭이며 말할 때는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여자는 하인이 남자에게서 난폭하게 물건을 빼앗는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으므로, 둘 사이의 갈등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의무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시 어머니 성품은 어떻습니까? 난폭하십니까? 상냥하십니까?"에서 알 수 있듯이 남자는 여자보다는 여자의 어머니의 성품에 대해 형식적으로 질문하고 있다. 여자의 "(작게 한숨을 쉬고) 그럼 저 자신에 대한 건 아직 멀었군요."에서 알 수 있듯이 남자는 아직 여자의 성품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③ 남자가 하인에게 넥타이를 빼앗긴 후 '씩씩거리면서 웃고 있'는 것을 통해, 남자가 넥타이를 빼앗기지 않으려 했지만 실패하였으며, 애써 태연한 척함을 알 수 있다. 즉, 넥타이를 가져가는 하인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하인은 남자에게 감정적 지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만 한다.

04 극이 전개되면서 남자가 빈털터리임을 알게 된 여자가 남자를 떠나가려고 하기는 하나, 이는 남자의 고백에서 비롯된 것이지 여자 스스로 넥타이를 통해 남자가 처한 상황이나 처지를 눈치챈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오 분 동안 넥타이를 잘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남자의 약속을 통해, 관객은 소유라는 것이 일정 시간 빌려 쓰고 돌려주는 것이 본질임을 깨달을 수 있다. ③, ④ 남자가 넥타이를 맨 관객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넥타이를 빌리는 것에서 드러난다. ⑤ 남자가 넥타이의 소유자인 관객에게 "혹시 모르긴 하지요, 당신도 누구에게서 빌려온 것인지는."이라고 말한 것은 세상 모든 것은 빌린 것이라는 주제 의식과 연결된다.

05 여자는 넥타이를 매고 돌아온 남자를 멋있다고 칭찬하지만, 넥타이가 관객에게 빌린 것임을 알아차리지는 못한다.

오답 해설 ① 넥타이를 주어로 진술한 ㉠은 넥타이가 사라졌다는 정보만을 전달함으로써 "내가(내 목이) 넥타이를 빼앗겼습니다."에 비해 빼앗겼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② ㉡은 남자의 화제 전환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 여자의 심리를 드러낸 것으로, 여자가 여전히 하인의 행동에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③ ㉢은 남자가 하인에게 오 분만 더 넥타이를 빌려 달라고 사정하는 대사이다. ④ ㉣은 남자가 관객에게 넥타이를 빌리면서 빌리는 시간을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여자는 남자의 넥타이가 관객에게 빌린 물건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상대역은 듣지 못하고 관객과 주고받는 대사인 방백임을 알 수 있다.

Plus 〈참고〉 희곡의 대사

대화(對話)	둘 이상의 배우가 서로 말을 주고받는 대사
독백(獨白)	배우가 상대 배우 없이 무대 위에서 혼잣말로 하는 대사
방백(傍白)	상대 배우와 함께 무대 위에 있지만, 상대는 듣지 못하고 관객만 들을 수 있다고 약속되어 있는 대사

06 ⓑ는 화제를 전환하려는 남자에게 자신은 하인의 행동에 대해 알고 싶다는 점을 밝히려다 말을 중단하는 여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남자에게 자신의 뜻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여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이는 남자와 대화하고 싶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는 남자의 넥타이를 난폭하게 빼앗아 간 하인에 대한 여자의 의구심과 반감을 드러낸다. ③, ④ ⓒ는 자신을 지켜보는 여자를 의식하는 남자의 모습을, ⓓ는 여자가 관찰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속마음을 드러내는 남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⑤ ⓔ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나 아직은 화제의 단계가 어머니에 머물러 있음을 알아차린 여자의 아쉬움을 드러낸다.

07 ㄱ. 남자는 자신을 지켜보는 여자를 의식하여 하인에게 큰 소리를 치지만, 하인의 귀에 대고는 넥타이를 오 분만 더 빌려 달라며 사정하고 있다. ㄴ. 남자를 곁눈쩍은 듯 바라보고 하인을 훔쳐보는 여자의 표정을 통해 상황에 대해 불편해함을 드러내는 등 여러 지시문에서 배우의 비언어적 표현이 인물의 감정을 드러낸다. ㄷ. '곁눈쩍은 듯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관심을 돌리려고'로 볼 때, 남자가 화제 전환을 위해 여자의 어머니에 대한 관심을 표현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ㄹ. 남자는 하인과 넥타이를 맨 관객에게 도움을 요청하나, 넥타이를 오 분만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는 약속 외에 보상에 대한 언급은 없다.

08 상대방의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연민을 갖게 되는 것은 여자의 이야기를 들은 남자의 반응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여자의 어머니가 난폭하면서 상냥하다는 말을 들은 남자가 어려움을 호소하자, 여자는 용기를 내야 한다며 남자를 독려한다. ② 여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홀로 자신을 키우며 고생을 많이 했기에 어머니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③ 자신이 '덜'이었으며 이는 아버지가 사기꾼인 것과 연관된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느끼는 호감이 커진다. ④ 여자는 자신의 덜 이야기는 처음으로 남에게 하는 것이라면서, 자신이 이야기를 꺼내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해 준 남자를 친절한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09 [A]는 관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다음 딸의 순서에 따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B]는 여자가 남에게 처음으로 개인적 사정을 밝힌다며 남자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A]에서 남자는 여자 어머니의 성품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한편 [B]는 여자의 성품에 대한 궁금증과는 관련이 없다. ② [B]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 대한 진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만, [A]는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 ④ [A]에서 남자는 여자의 가족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평가가 아니다. [B]에는 남자에 대한 여자의 평가("당신은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가 드러난다. ⑤ [A]에는 형식적 예의에 충실한 남자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B]에 상대방에 대한 무례한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10 ㉤은 자신의 힘들었던 경험 때문에 딸의 결혼 상대자를 꼼꼼하게 따지려는 어머니의 입장을 여자가 이해한다는 것으로, 여자가 결혼에 있어 어머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한편 ㉡ 앞에 제시된 대사를 통해 여자가 자신이 덤인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여자의 어머니가 어떤 성격인지를 설명한 것으로, 이어지는 남자의 반응을 통해 결혼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은 여자의 아버지 역시 남자처럼 결혼하기 위해 물건을 빌리고 부자 행세를 했다는 것으로, 여자의 어머니가 딸을 사기꾼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이유(결혼의 조건으로 물질을 고려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③ ㉢은 여자와 어머니를 두고 도망친 아버지임에도 여자가 아버지를 긍정한다는 것이므로, 여자가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처지인 남자도 미워하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은 여자에 대한 남자의 진심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점점 진실한 사랑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다.

11 ⓐ는 여자의 어머니가 난폭하면서도 상냥한 인물이라는 말을 듣고 난 후 남자의 반응으로, 여자와의 결혼이 어려울 것이라는 곤혹스러움이 드러난 행동이다. ⓑ는 여자의 덤 이야기를 들은 남자가 관객에게 빌린 물건을 스스로 돌려주면서 보이는 반응으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했음을 드러낸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 ⓑ에 대한 설명 모두 적절하지 않다.

12 '덤'이 여자의 어렸을 때 별명이기는 하나, 여자는 자신이 덤임을 긍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존감이 낮은 인물로 볼 수 없으며, '덤'이라는 별명이 여자의 자존감에 대한 정보를 암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답 해설 ②, ④ 애초에 자신의 것이 아니면서 무언가 더 얹어 주는 것이라는 의미를 바탕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빌린 것이라는 소유의 본질을 드러낸다. ③ 여자의 덤 이야기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는 것으로 볼 때, 아버지에 대한 여자의 긍정적 인식을 알 수 있다. ⑤ '덤'의 사전적 의미로, "왜 조금 더 주는 것 있잖아요."라는 여자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뭔가 어려워서요."는 남자가 여자와의 결혼을 진전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어려움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반응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 무능함과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②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놀라시겠지만요……."는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화제를 꺼내는 것에 대한 조심스러움과 상대방에 대한 양해를 드러낸다. ③ "그만둘까요, 제 이야기?"라는 여자의 말에 남자가 "더 해 주세요."라고 답하는데, 이를 통해 남자가 여자의 이야기에 빠져들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후에 여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남자에게 호감을 느낀다. ④, ⑤ "빌린 건 돌려 드립니다."와 "난 당신을 사랑해……." 모두 남자의 상대역인 여자가 듣지 못하는 것으로 약속된 방백으로, 각각 사건 전개와 인물의 내면에 대한 정보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14 이 글은 무대 상연을 위한 희곡으로, 관객에게 사건을 보여 주는 형식을 통해 관객이 현장감을 느낄 수는 있다. 하지만 관객의 반응에 따라 사건 전개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①, ② 연극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희곡의 갈래적 특성이다. ③, ④ 희곡을 포함한 극 갈래의 형상화 방법에 해당한다.

15 여자의 덤 이야기를 듣고 관객에게 빌린 넥타이를 돌려준 다음부터 빌린 물건의 회수 과정에서 나타나는 남자의 반응은 달라졌으며, 부자 행세가 아니라 소유의 본질을 알게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남자는 여자의 사진에 관심을 보이는 하인을 밀어내는 것으로 거부감을 표현하였다. ② 여자는 사진을 꺼내 놓으며 자신의 가문 여인들이 대대로 미인임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③ 하인의 시선이 사진으로 향하기는 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반응은 제시되지 않았다. ⑤ 남자가 세 장의 사진 중 현재 여자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여자는 자신을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하는 남자에게 "제일 젊으니까 그렇죠."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다.

16 [A]에서 남자는 하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B]는 남자가 하인을 왜 두려워했는지, 여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오답 해설 ① 남자와 하인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지 않으며,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도 않다. ③ 여자가 꺼내는 사진은 남자와 여자의 추억을 담은 것이 아니다. ④ [B]에서 하인이 남자에게 덤벼든 것과 [D]에서 남자가 하인을 밀어낸 것이 대비되는 동작이기는 하나, 시간이 되면 남자가 빌려 간 물건을 회수하는 하인의 역할과 하인에게 물건을 회수당하는 남자의 역할은 고정되어 있다. ⑤ [E]는 남자가 여자의 현재 모습, 즉 가장 젊고 아름다운 모습에 해당하는 사진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장면으로, 실물인 눈앞의 여자와 사진 속 여자 간의 차이에 대한 반응은 드러나지 않는다.

17 여자는 자신의 집 가문의 여인들이 대대로 미인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핸드백에서 사진 석 장을 꺼낸다. 남자는 이 석 장의 사진을 통해, 시간이 흐르고 젊음과 아름다움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보여 주는데, 이는 여자가 발견한 진실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② 여자는 자랑거리가 없느냐는 남자의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핸드백에서 사진을 꺼냈으며, 사진이 자신의 가문의 여인들이 대대로 미인임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남자는 이 점에 동의하며 사진 속 인물 중 현재의 여자가 가장 아름답다고 말한다. ④, ⑤ 남자가 사진 석 장을 차례로 여자의 얼굴에 대어 준 것은 사진을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가정한 것이지, 젊음과 아름다움 또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것임을 드러낸다.

18 ㉡은 시간이 흐르면 젊음도 결국 사라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 앞에서 영원한 것은 없음을 보여 준다.

오답 해설 ① 여자는 결국 남자와의 결혼을 결심하지만, 그것이 ㉡과는 관련이 없다. ③ 남자와 여자 어머니가 만날 것이라는 것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고, 또 이를 대비하기 위해 남자가 여자와 ㉡을 한 것은 아니다. ④ 남자가 여자를 속인 것을 반성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여자가 외적 아름다움의 쓸모 없음을 깨달았다고 보기 어렵다.

19 ⓔ는 하인이 자신의 물건을 빼앗아 가는 상황에 대해 농담을 할 정도로 남자가 태연해졌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 전후에 나오는 지시문을 통해, 남자가 하인에게 물건을 빼앗기는 모습을 여자에게 보여 주고 싶어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② 남자가 소지품을 모두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는 소유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③ 모든 소유물은 일시적으로 빌린 것뿐이라는 남자의 깨달음에 따른 반응이다. ④ 소유의 본질을 깨달은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남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20 '목소리'는 여자가 남자의 놀이에 동참하는 방법으로, 젊음이 영원하지 않으며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임을 드러낸다.

오답 해설 ①, ② '어떤 나무'와 '고양이'는 생명과 자연 현상 또한 빌린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소유의 본질을 드러낸다. ③ 하인의 '시계'는 물건을 회수할 시간이 되었음을 나타낸다. ④ '모자'를 비롯해 무대에서 사라지는 소품들은 무대에서 회수됨으로써 일정 시간이 경과되었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50-055쪽

01 ⑤	02 ⑤	03 ②	04 ③	05 ④	06 ③	07 ④	08 ①
09 ⑤	10 ⑤	11 ①	12 ⑤	13 ⑤	14 ⑤	15 ①	16 ③
17 ②							

▸ (나) 정직한 사기한_오영진

핵심 정리

갈래	단막극, 풍자극
성격	풍자적, 비판적
주제	해방 직후의 혼란스럽고 타락한 사회에 대한 비판
해제	선량한 인물이 몰락하는 상황을 통해 사회의 부정직성과 배금주의 세태를 비판함.

01 (가)와 (나)는 모두 연극의 대본인 희곡이다. ⑤는 시나리오의 특징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연극 대본인 희곡의 갈래상의 특징에 해당한다. ②~④ 극 갈래의 일반적인 형상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02 (가)의 '경고문'은 시간이 지났으니 빌린 물건을 모두 놓고 집에서 나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나)의 '노크 소리'는 외부인의 인기척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물지 않기 위해 도망치려는 가족 사기단이 달아날 채비를 서두르도록 한다. 즉, 둘 모두 인물들이 현재의 공간에서 떠날 때가 되었음을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 해설 ① (가)의 남자와 (나)의 가족 사기단은 모두 빌린 공간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빌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일정 시간 경과 후 떠나야 하는 처지이다. 그런데 (나)의 가족 사기단은 쫓기는 처지라고 볼 수 있지만, (가)의 남자는 하인에게 쫓기는 처지가 아니다. ②, ④ '경고문'과 '노크 소리'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다. ③ (가)에서 '경고문'을 통해 남자는 자신의 정체를 말하게 되지만, (나)에서 '노크 소리'를 통해 인물의 정체가 밝혀는 것은 아니다.

03 ㉡은 부자와 결혼하기로 어머니와 맹세한 여자를 설득하기 위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변하고 진실한 사랑만이 남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행동이다. 소유에 대한 깨달음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은 경고문의 내용을 남자가 말하기 전까지 여자가 남자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③ 여자는 어머니와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을 통해 여자가 진심으로 떠나고 싶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④ ㉣은 여자가 남자에게 작별 인사를 했지만 미련이 남아 망설이는 모습과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남자를 외면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 준다. ⑤ ㉤은 다른 가족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허둥거리는 것과 대비되는 사원 D의 모습을 보여 준다.

04 (가)에서 무대 밖의 공간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처리된 맹세에 대한 여자의 언급에 대해, 남자는 시간이 흘러 젊음이 사라지더라도 진정한 사랑은 남을 것이라 답하고 있다. 즉, 남자의 초조함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남자의 청혼은 관객의 눈앞에 드러나는 무대 공간에서 전개되는 사건이다. ② (가)에서 남자가 관객석의 사람을 불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말하는 것은, 무대 공간과 관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관객석까지 무대 공간으로 설정하여 표현하는 것에 해당한다. ④, ⑤ (가)는 문 앞 너머의 응접실 밖, (나)는 비상구 입구 너머의 사무실 밖과 같은 무대 밖의 공간을 설정하고 있다.

05 ⓑ는 남자가 여자를 부르는 호칭에 해당하나 남자는 여자에게 실망하고 있지 않다. 또한 '덤'을 부르며 모든 소유가 결국 '덤'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경제력이라는 비본질적 가치를 무시하지 못하는 여자를 설득하려는 남자의 노력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는 시간이 지나면 남자를 발로 차 쫓아내기 위한 도구로, 극의 긴장감을 높인다. ③ ⓑ는 남자가 여자를 부르는 호칭인 동시에 소유의 본질이 온전한 자신의 것이 아니라 덤으로 얻고 돌려주는 것임을 드러낸다. ⑤ ⓒ는 위조지폐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정직한 청년에게 떠넘김으로써 청년이 감수하게 된 희생의 결과로, 가족 사기단이 저지른 불법을 인정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에 해당한다.

06 (가)에서 "결혼"을 "당신을 빌"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남자의 고백은 여자를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대하겠다는 다짐의 표현으로, 결혼의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되어야 할 참된 사랑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물질 중심적 세태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② (가)의 남자와 여자는 경제력을 중요한 결혼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을 드러내는 인물이다. ④, ⑤ (나)의 사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자행하고 순진한 청년을 기만하면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 준다. 한편 사원 D는 정직하고 착실한 사람이 부정직한 사회의 희생양이 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는 인물이다.

▸ (나)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_하명희

핵심 정리

갈래	시나리오(드라마 대본)
성격	현실적, 서정적
주제	사랑의 정의와 참된 행복의 의미
해제	네 커플의 연애와 결혼 과정을 통해 사랑과 결혼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갈등을 보여 줌.

07 사전 촬영 후 영상을 편집하는 시나리오(드라마 대본)인 (나)와 달리, 희곡인 (가)는 시간과 공간상의 설정과 무대 위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이 따른다.

오답 해설 ① 희곡인 (가)에만 해당한다. ② 서사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극 갈래에 해당하는 (가), (나)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③, ⑤ (가), (나) 모두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을 전개하며, 표현 효과를 위해 의상과 소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극 갈래이다.

08 (나)에서 혜윤의 마지막 대사를 통해 자신의 외적 조건이 완벽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혜윤의 모습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의 여자는 자신이 덤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결함이라고 여기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가)의 "아버진 덤이 태어나자 달아나셨대요."라는 여자의 대사와 (나)의 "따지는 집에선 홀어머니 싫어해."라는 혜윤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여자는 빈털터리인 남자를 외면하려는 욕망과 남자에게서 느끼는 호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나)에서 혜윤은 자신이 결혼하려는 상대의 조건을 두고 들자와 생각의 차이로 인해 다툰다. ④ (가)의 남자는 여자가 자신의 소중한 덤임을 고백하며 여자의 마음을 되돌리는 데 성공하였으나, (나)의 혜윤은 결혼 상대에 대한 들자의 생각을 돌리지 못했다. ⑤ (가)의 여자가 갈등 끝에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남자가 자신을 소중한 덤으로 대하겠다는 고백이었다는 점에서, 여자는 남자가 자신을 진심으로 대할 것이라고 믿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의 "엄마, 나 정훈이 사랑해. 삼 년 사귀는 동안 한 번도 내 믿음에 어긋난 적 없고 책임감도 강해."라는 혜윤의 대사를 통해 혜윤은 정훈이 자신을 진심으로 대했다고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9 (가)에서 '덤 이야기'는 여자에 대한 남자의 호감이 커지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여자는 소유의 본질을 깨달은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인다.

오답 해설 ① 여자는 자신이 '덤 이야기'를 그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를 통해 여자가 남자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②, ④ 여자의 '덤 이야기'를 듣고서 남자는 여자의 어머니가 결혼 상대의 조건으로 경제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자가 그런 어머니를 이해한다는 점을 알게 된다. ③ '덤 이야기'에서 여자의 아버지는 남자와 같이 빈털터리이면서 부자 행세를 한 사기꾼으로 소개되었다.

10 [A]에서 남자를 외면하며 떠나려고 했던 여자는, [B]에서 남자

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음을 보여 준다.

오답 해설 ① [A]에서 여자는 남자를 외면하려고 노력했으나, [B]에서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임으로써 남자를 외면하는 데 실패했다. ② [A]에서 고조된 긴장감이 [B]에서 해소되었다. ③ [A]에서는 남자가 부자인 줄 알았던 여자가 남자를 외면할 뿐, 둘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B]도 여자가 남자를 오해하는 상황이 아니다. ④ [A]에서 남자를 외면하려고 했던 여자가 [B]에서 남자를 더 이상 외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남자에 대한 여자의 동정심은 [A]가 아니라 [B]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 ㉠은 자신과 아버지 모두 세상에 덤으로 태어난 존재일지 모른다는 여자의 인식을 통해, 아버지와 자신의 출생에 대한 여자의 이해와 연민의 태도를 드러낸다. 냉소적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② ㉡은 여자에게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남자의 질문으로, 누구에게도 완전한 소유물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③ ㉢은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간 되돌려드렸지요."에서 알 수 있듯이 넥타이를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자신이 빌린 넥타이를 소중히 쓰고 돌려준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자신은 가진 것이 없어 더욱 빌린 물건을 소중히 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④ ㉣은 자신에게 여자가 세상에서 덤으로 빌린 존재임을 언급한 것으로, 남자는 앞으로 여자를 소중히 대하겠다는 다짐을 강조하고 있다. ⑤ ㉤은 사랑은 결혼과 별개로 경험해 보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사랑은 결혼을 결정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들자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12 (나)의 "엄마, 나 정훈이 사랑해. 삼 년 사귀는 동안 한 번도 내 믿음에 어긋난 적 없고 책임감도 강해."라는 혜윤의 대사를 통해 혜윤이 정훈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사랑이 외적 조건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가)의 여자는 남자가 부자일 것이라고 오해한 상황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남자를 친절하다고 평가하였으나 이후 남자가 빈털터리임을 알게 되었을 때 남자를 외면하려고 했다. 이 점에서 여자의 "친절"하다는 평가가 경제력과 같은 외적 조건보다 내면적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② (가)의 여자의 어머니와 (나)의 들자는 모두 딸이 결혼할 상대의 조건으로 경제력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인물이다. ③ (나)에서 들자는 교사라는 혜윤의 직업을 결혼에 유리한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④ (가)의 여자는 사기꾼 아버지를 만나 고생한 어머니의 사정을 헤아리지만, (나)의 혜윤은 혜윤이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정훈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 들자의 생각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 (다) **원고지**_이근삼

핵심 정리

갈래	단막극, 희극, 부조리극
성격	반사실적, 서사적, 풍자적, 실험적
주제	현대인의 기계적인 삶에 대한 풍자
해제	무대 장치, 소품, 인물의 분장, 대사, 행동 등을 희극적으로 과장하여 삶의 의미를 상실한 현대인의 일상과 현대 사회의 부조리함을 보여 줌.

13 ㉤은 교수의 처가 교수의 허리에 감겨 있던 철쇄를 풀고 난 다음 다시 허리에 감아 주는 것으로, 현대인의 삶을 구속하는 현실적 압박이 집 밖에서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오답 해설 ① ㉠은 남자가 하인에게 난폭하게 물건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 여자가 의아함을 느끼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남자에 대한 여자의 평가가 바뀌지는 않는다. ② ㉡은 남자가 물건을 빌리기로 관객과 약속한 시간으로, 남자는 시간을 축소하고 있지 않다. ③ ㉢은 교수가 느끼는 현실 생활의 중압감을 드러낼 뿐, 처에 대한 거부감과는 관련이 없다. ④ ㉣은 장면 전환의 신호일 뿐 장녀의 공간 이동과는 관련이 없다.

14 "여봐! 그 가져간 것 오 분만 더 빌려주게.", "딱 오 분만 더. 사정해도 안 되겠나, 응?"에서 알 수 있듯이 남자는 물건을 빌릴 때부터 물건별로 정해진 시간에 따라 되돌려줘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오답 해설 ①, ② 하인은 시간의 경과를 확인하고 물건을 회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로, 맡겨진 역할 외에는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다. ③ 여자는 남자가 넥타이를 난폭하게 빼앗긴 것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남자에게 반복적으로 묻는다. ④ 남자는 여자가 듣는 데서는 하인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여자가 관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하인에게 사정을 하며 부탁하고 있다.

15 (가)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람들'이라고 밝힌 것은, (나)에서 관객을 작품 안에 끌어들이는 것과 물건을 빌리고 되돌려주는 행위를 구현하는 것이 극의 전개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② "빌려주시렵니까?", "혹시 모르긴 하지요, 당신도 누구에게서 빌려 온 건지는."은 모두 관객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나)의 주제가 실감 나게 전달되도록 한다. ③ "어머님은 늘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세요."라는 장녀의 대사와 모순되는 처의 행동은 장녀가 아버지를 대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희극적 과장으로, 가족 간의 단절된 모습을 보여 준다. ④ (나)는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는 것을 통해 무대와 객석이 구분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다)는 원고지 칸투성이라는 무대 장치를 통해서 현대인의 규격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⑤ (나)는 남자가 관객에게 소품을 빌리는 것을 통해 소유의 본질을 일깨우고 있으며, (다)는 교수가 쇠사슬을 두르는 것을 통해 현대인이 느끼는 압박감이나 답답함을 드러내고 있다.

16 ⓒ는 자신이 하인에게 사정하는 모습을 여자에게 보이지 않으면서 여자가 계속해서 신경 쓰는 '빼앗긴 물건(넥타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남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오답 해설 ① ⓐ는 하인이 남자를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여기면서 의구심을 가지고 하인을 쳐다보는 여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여자는 하인을 대화 상대로 대하고 있지 않다. ② ⓑ는 화제를 돌리는 남자를 채근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남자에게 답변을 요구하지 못하는 여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④ ⓓ는 하인의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하는 남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⑤ ⓔ는 현재 교수의 삶이 피곤에 찌든 상태임을 보여 준다.

17 (가)에서 보통 명사로 설정된 여자는 남자의 경제력을 중요한 결혼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에 사로잡힌 인물이다. 또한 여자가 하인이 난폭한 행동에 표시하는 유감은, 하인은 주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통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폭력 문제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 (가)와 (나)에 등장하는 인물의 명칭은 모두 보통 명사로 설정되어 있다. 이로써 (가)는 결혼과 소유에 대한 사회의 보편적 인식을, (나)는 무의미하게 기계적으로 살아가면서 가족에게서도 소외된 현대인의 일상을 보여 준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56~057쪽

01 나무, 고양이 02 (가)와 (나)는 모두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보여 주지만, (나)는 하인의 발걸음 소리를 나타내는 ⓐ(이펙트), 여자의 얼굴을 화면에 크게 나타내는 ⓑ(클로즈업), 여자와 남자가 대화하는 장면 사이에 낙엽이 지는 나무 이미지를 삽입하는 ⓒ(인서트), 남자가 말하는 장면이 사라지며 다른 화면이 점차 나타나도록 하는 ⓓ(디졸브)와 같은 영상 편집 기법을 활용하여 장면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와 차이가 있다. 03 ㉮: 빌렸던 물건들을 모두 빼앗기고 있다. ㉯: 소유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04 남자가 여자를 부르는 호칭, 소유의 본질을 드러내는 표현

01 남자는 수천 개의 이파리를 몽땅 되돌려주고도 항의하지 않는 '나무'와 늙어 죽음을 맞고서도 태연했던 '고양이'를 통해, 자연의 변화, 삶과 죽음까지도 영원한 소유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돌려주어야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02 희곡과 시나리오는 모두 극 갈래이지만, 시나리오는 시공간이나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이 없으며, 여러 가지 특수한 기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희곡과 차이가 있다.

03 남자는 빌렸던 물건들을 하인에게 빼앗기고 있지만, 소유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04 '덤'은 여자의 별명으로 남자가 여자를 부르는 호칭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 되돌려주는 것으로 덤으로 얹어 준 것에 해당한다는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58~059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3 소설(서사 갈래) 역시 희곡(극 갈래)과 마찬가지로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사건을 전개할 수 있으며, 서술자의 유무에서 차이가 난다.

04 방백에 대한 설명이다. 독백은 상대역 없이 혼자 중얼거리는 대사이다.

16 남자의 깨달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자는 놀이에 동참했음에도 소유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

17 여자가 꺼내는 사진은 여자가 젊음과 미모를 자랑거리로 여기는 인물임을 드러낸다.

18 남자는 소유의 본질을 깨달은 후 하인의 물건 회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경고문을 받게 될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 여자 또한 남자가 경고문의 내용을 전달하며 자신이 빈털터리임을 고백하기 전까지 그에 대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20 여자가 빈털터리 남자의 청혼을 수락하는 것으로 극이 끝나는데, 이는 여자가 어머니 앞에서 맹세했던 부자와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04. 교술 갈래_화단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62~065쪽

01 ④ 02 ⑤ 03 ① 04 ② 05 ② 06 ② 07 ⑤ 08 ⑤
09 ② 10 ④ 11 ① 12 ② 13 ②

01 이 글은 수필이다. 허구적인 사건과 인물을 통해 감동과 깨달음을 전달하는 것은 소설이다.

오답 해설 ① 수필은 형식이 자유롭다. ② 수필은 비전문가도 쓸 수 있는 글이다. ③ 수필은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쓴 것이므로, 글쓴이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⑤ 수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한다.

02 화초를 가꾸는 것은 글쓴이가 아니라 노인이며, 화초를 가꾸는 노인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오답 해설 ① '벌벌', '누릇누릇' 등의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다. ② 신변잡기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적은 수필체의 글을 말한다. 글쓴이는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소재로 이 글을 썼다. ③ '철철하신 노(老) 주인이', '손아(孫兒)들을 데리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수필은 글쓴이가 체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쓴 글이다.

03 '자연은 신이다. ~ 그러나 그것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재주는 없을 것이다.'에서 알 수 있듯이, 글쓴이는 자연은 있는 그대로일 때 가장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노인이 화단을 가꾸는 것을 자연을 망친다고 여길 수도 있으나, 인간이 욕심 때문에 자연을 망친다는 것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거리가 멀다. ③ 자연에서 배우는 삶의 모습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④ 노인이 자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에 관심을 덜 주는 것이 더 낫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⑤ 글쓴이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아는 것을 바탕으로 자연을 가꾸는 것의 중요성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거리가 멀다.

04 노인은 화단을 가꾸는 일에 정성을 다한다. 글쓴이는 노인이 자연을 인위적으로 변형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화단을 계기로 노인의 정성을 평가 절하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화단은 노인이 인위적으로 키운 것으로, 일반적인 자연에서는 볼 수 없다. ③ 구경하는 사람들은 노인의 화단을 희한해하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④ 노인은 사람들에게 화단을 자랑할 정도로 자부심을 갖고 있다. ⑤ 글쓴이는 노인의 인공적인 화단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05 노인은 화단에 노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욕망에 의해 변형시킨 화단이다. 따라서 나무를 인공적으로 변형시킨 인간의 욕망에 대해 비판적 인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는 노인이 병든 화단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도시의 환경 문제로 병든 자연에 대한 안타까움과는 거리가 멀다. ③ 사람들은 노인이 가꾼 화단에 대해 감탄하고 있으므로, ⓒ가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병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봉선화는 인간의 정성 없이도 잘 크고 있다. 따라서 ⓓ를 보존해야 할 자연을 보살피지 않은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⑤ ⓔ는 노인이 가꾼 나무들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으로, 산업화와 관련이 없다.

06 ㉠은 만물의 생명력을 환기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은 인공적인 것을 의미할 뿐 죽음을 환기하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① 하늘에서 내리는 ㉠은 자연적이고 수도관을 통해 나오는 ㉡은 인공적이다. ③ ㉠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므로 자연의 섭리를 드러내지만, ㉡은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인위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④ 노인은 비가 오기 전에는 ㉠과 ㉡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다가 비가 온 후 식물의 상태를 보고는 차이를 깨닫는다. ⑤ 글쓴이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중시하므로 자연적인 ㉠이 글

쓴이의 가치관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노인은 인위적으로 화단을 가꾸고 있으므로 인공적인 ㉡이 노인의 생각과 통한다고 볼 수 있다.

07 병이 든 화단에 비가 내려서 식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글쓴이가 인간이 자연에 비해 발전된 존재라고 믿은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④ 노인은 화단을 가꾸며 자연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변형시키는 도구적 자연관을 갖고 있으므로, 자신이 자연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② 노인은 자신의 미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나무들을 변형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도구적 자연관을 가진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지니고 있다.

▸ (나)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_이문재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비판적, 상징적
주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현대 문명 비판
해제	현대 문명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는 도시 생태계의 문제를 비판적 시선으로 형상화함.

08 (가)의 글쓴이는 노인이 자연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나)의 화자는 밤늦도록 나무에 전구를 켜 놓는 부자연스러움에 대해 부정적 시선을 보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는 인공적인 화단에 대해, (나)에서는 현대 사회의 인공적인 물질문명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나타나지만, 안타까움은 확인할 수 없다. ② (가)의 글쓴이는 '자연은 신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연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낸다. 하지만 (나)의 화자는 현재 처한 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뿐 예찬적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③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가)와 (나) 모두에 등장한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가)의 글쓴이와 (나)의 화자는 모두 자연의 섭리를 인식하고 있지만, 자신을 반성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09 글쓴이가 노인이 화단을 가꾸는 방식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이는 것이지, 노인이 글쓴이가 화초를 키우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화단에서 어정거릴 때마다 노인은 자못 섭섭해하였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물은 마찬가지일 텐데……."라며 자연적인 빗물과 인공적인 수돗물을 동일하게 여겼던 노인이, 비가 온 후 식물들이 살아나자 "그저 하늘 물이라야…… 억조창생이 다 비를 맞아야……."라며 빗물의 가치를 깨닫고 있다. ④ '손아(孫兒)들을 데리고 일삼아 공을 들이건마는'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노인이 석류나무, 복숭아나무, 장미를 키우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10 (나)의 화자는 도시 생태계가 위협당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나)의 화자는 (가)의 노인에게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노인이 마음이 힘들 때 화단을 키운다는 내용은 (가)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② 인간과 자연의 공생과 관련된 내용은 (가)와 (나) 모두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③ (나)의 화자가 자연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⑤ (가)의 노인이 화단의 나무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1 ㉠은 노인이 화단에 아침저녁으로 주는 것으로, 화단에 대한 노인의 애정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오답 해설 ② ㉠은 화단에 대한 노인의 애정을 드러낼 뿐, 이를 통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는 없다. ③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④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노인의 자연관은 확인할 수 없다. ⑤ 노인은 화초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다.

12 ⓐ는 인위적으로 가꾼 화초가 아니라 자연의 순리 안에 존재한다. 그리고 ⓑ는 도시에서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으므로 자연의 순리에서 벗어난 환경에 존재한다.

오답 해설 ① ⓐ가 자연의 느긋함을 보여 준다거나 ⓑ가 인간의 성급함을 보여 준다는 것은 (가)와 (나)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③ ⓐ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것은 (가)에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도 않다. ④ ⓐ는 자연 상태 그대로를 의미하는 존재이고, ⓑ는 비정상적 환경에서 인간에 의해 꾸며진 존재이다. ⑤ ⓐ를 스스로 초라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는 스스로를 화려하게 꾸민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꾸며진 것이다.

13 '어둠'은 모든 것들이 쉬어야 하는 것임에도 권력자들에 의해 밝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즉, '어둠'은 휴식해야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온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도시 문명의 화려한 빛으로 인해 밤이 어두워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③ 해군 장군의 동상이 한밤중에도 잠들지 못한다는 것은 밤이 휘황찬란한 불빛에 잠식당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정상적인 생활의 가치가 방해받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무가 빛으로 인해 밤에 광합성을 하고 있으므로, 순환하는 생명력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알 수 있다. ⑤ 업록소를 버린 겨울 나무들이 한밤중에 도시의 불빛에 의해 광합성을 하는 모습을 겨울이 교란당한다고 표현했는데, 이를 통해 도시 문명에 대한 화자의 우려를 확인할 수 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66~069쪽

01 ④ 02 ④ 03 ④ 04 ② 05 ④ 06 ③ 07 ⑤ 08 ⑤ 09 ③ 10 ③

▸ (가) 거산호2_김관식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탈속적, 자연 친화적, 예찬적
주제	자연에 동화하고 싶은 마음
해제	창을 통해 산을 마주하는 화자의 자연 친화적 태도, 자연에 동화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함.

01 (가)에서는 '산'과 '사람'의 대비를 통해 속세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 준다. 또한 (나)에서는 화단의 나무들과 봉선화를 대비하여 노인의 삶의 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 준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나) 모두 색채의 대비는 찾을 수 없다. ② (가)와 (나) 모두 계절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 ③ (가)와 (나) 모두에서 시선의 이동을 확인할 수 없다. ⑤ (가)와 (나) 모두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

02 (가)의 화자는 자연과의 공존을 통해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모습을, (나)의 글쓴이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아름답다는 가치를 바탕으로 자연의 이치에 순응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사람'은 변한다는 가변성을 지니고 있지만, (나)의 '구경하는 사람'이 가변적 특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② (나)의 노인이 자연을 경제적 가치로 판단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③ (가)의 화자는 산을 삶과 죽음의 고향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나)에서 노인이 자연을 죽음의 고향으로 생각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⑤ (가)와 (나) 모두 현실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

03 글쓴이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가장 아름답다고 했으므로,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은 그대로의 자연을 뜻하는 '무위자연(無爲自然)'과 어울린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가 노인의 행동을 본 후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 – 타산지석(他山之石):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기 산의 옥돌을 가는 데에 쓸모가 있다는 뜻으로, 남의 하찮은 말이나 행동도 자신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글쓴이가 자연과 하나가 되겠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물아일체(物我一體): 외물(外物)과 자아, 객관과 주관, 또는 물질계와 정신계가 어울려 하나가 됨. ③ 모든 일이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을 주제 의식으로 보기 어렵다. –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 ⑤ 글쓴이가 노인의 행동을 보고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좋지 않으니 적당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 과유불급(過猶不及):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중용(中庸)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

04 (가)에서 ㉠, 즉 창문을 여는 것은 산을 맞이하는 것이므로 대상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나)에서 ㉡, 즉 화단에 물을 주는 것은 대상에 대한 정성 어린 심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을 현실에 저항하는 태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도 현실에 순응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③ ㉠은 산을 맞이하는 것이므로 탈속의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을 자연과 공존하겠다는 노인의 지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을 산이라는 가치를 발견하고 만족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을 화단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아쉬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⑤ ㉠은 산을 경외의 대상으로 보며 공존을 추구한다. 하지만 ㉡이 자연과 인간의 분별을 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05 (나)에서 노인은 자연을 자신의 욕망을 채워 줄 도구로 생각하며, 인간이 자연을 개작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화단을 가꾼다. ④에서 포수는 순수한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 문명을 상징하는데, 이는 (나)의 노인과 그 태도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불교적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이별의 슬픔을 재회에 대한 희망으로 전환시킨 작품으로, '님'은 종교적 절대자, 조국, 연인 등을 의미한다. ② 이별의 슬픔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내적 의지를 형상화한 작품으로, '진달래꽃'은 화자의 분신이자 사랑과 한의 표상이다. ③ 생명의 근원이 되는 흙의 속성을 예찬한 작품이다. ⑤ 자식을 잃은 슬픔을 절제된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유리'는 단절의 이미지인 동시에 화자와 아이를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06 (가)의 화자가 산에 있으면서 오히려 산을 그린다는 것은 표면상 논리에 맞지 않으므로 역설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산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강조하는 것이지 현실의 부조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화자는 태고로부터 푸른 변하지 않는 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나)의 글쓴이는 자연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② 〈보기〉에서 (가)는 자연을 경외의 대상이자 교훈의 대상으로 인식한다고 했다. 따라서 화자가 산을 보고 산을 배우라는 것은 산을 교훈을 주는 경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나)에서 노인은 자연을 소생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열심히 화단을 가꾸고 있다. ⑤ (나)의 글쓴이는 노인의 화단을 불편해하고 있는데, 이는 글쓴이가 자연은 있는 그대로 둘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가) 돌다리_이태준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성격	사실적, 비판적, 교훈적
주제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비판과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
해제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며,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 줌.

07 (가)는 [앞부분 줄거리]에서 알 수 있듯이 땅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인물 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제시된 부분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이미 해소된 상황이다. 한편 (나)에는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로, 작품 밖의 전지적 서술자가 인물들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② (나)는 글쓴이가 노인을 관찰하는 것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창섭과 어머니의 대화를, (나)에서는 노인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④ (가)에는 창섭의 태도 변화가, (나)에는 노인의 심리 변화가 나타난다.

08 (가)의 아버지는 인간이 자연의 순리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의 노인에게 자연의 이치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그 이상은 분수에 넘친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노인의 손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확인할 수 없다. ② 노인이 돈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③ 이미 노인은 화단에 정성을 쏟고 있다. ④ 노인이 화단을 가꾸는 것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다.

09 ㉠에서 창섭은 아버지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에서 글쓴이는 노인의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에서 창섭은 아버지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아버지에 대해 반감을 보인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에서 글쓴이가 노인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② ㉠에서 창섭은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에서 글쓴이는 노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④ ㉠의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볼 때 창섭이 아버지에게 서운함을 느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에서도 노인에 대한 글쓴이의 서운한 감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에는 아버지에 대한 창섭의 평가가, ㉡에는 노인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가 제시되어 있는데, 모두 객관적 관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0 (가)에서 창섭은 아버지가 지닌 가치관을 이해하며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 노인이 글쓴이의 가치관을 인정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창섭은 자연인 땅을 교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② (나)에서 노인은 자신의 욕망으로 화초를 변형하고 있으므로 도구적 자연관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④ (가)의 아버지와 (나)의 글쓴이는 모두 자연의 이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⑤ (가)의 아버지는 창섭이 자연인 땅을 물질적 가치로만 따지는 것에 비판적 시각을 보인다. 또한 (나)의 글쓴이는 노인이 자연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에 비판적 시각을 보인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70~071쪽

01 ㉠: 석류나무, 장미, 복숭아나무, ㉡: 봉선화 **02** 노인은 비가 오기 전 수돗물을 주며 빗물이나 수돗물이 같다고 생각하여 화초가 살아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비가 와서 화초가 살아나자 인공적인 수돗물보다 자연적인 빗물이 더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03** 〈보기〉에서는 자연적인 나무를 인간의 욕망에 의해 인공적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이는 노인이 석류나무를 휘어 붙이거나, 장미를 틀어 올리거나, 복숭아나무를 약으로 기른 것과 같다. **04** 글쓴이는 노인이 가꾼 화단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가꾼 화단에 대해 칭찬하지 않은 것을 '서운한 일'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글쓴이가 지닌 부정적 인식과 반대로 표현한 반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01 석류나무, 장미, 복숭아나무는 노인이 정성을 들여 가꾸는 식물인 반면, 봉선화는 노인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응달 밑에서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란다.

02 노인은 처음 빗물과 수돗물이 같다고 생각했으나 비가 온 이후

화초가 살아나자 깨달음을 얻는다. 이를 통해 물에 대한 노인의 인식 변화를 알 수 있다.

03 〈보기〉는 겨울나무에 전구를 인위적으로 둘러 나무를 꾸미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자연을 꾸민 것으로, 노인이 화초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것과 성격이 같다.

04 글쓴이는 노인이 키운 화단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지만, 이를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화단이 자신의 방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신이 서운해할 일이라고 표현하였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72~073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6 글쓴이는 화단을 칭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신이 서운해할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반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즉, 글쓴이는 노인이 키운 화단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12 노인은 비가 온 후 자연적인 빗물의 가치를 깨닫지만, 이후에도 화초를 자연 상태로 키우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위적으로 키운다.

17 자연이 인간에게 종속되었다는 것은 도구적 자연관으로, 노인에게만 해당한다.

18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것이 자연물 자체의 본성을 상실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20 글쓴이는 신이 자연물을 만든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그 본질에 다가가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 않다.

2 품격을 높이는 언어생활

01. 음운의 변동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78~083쪽

01 ④	02 ④	03 ⑤	04 ③	05 ③	06 ③	07 ②	08 ⑤
09 ①	10 ③	11 ⑤	12 ①	13 ⑤	14 ①	15 ②	16 ⑤
17 ⑤	18 ⑤	19 ②	20 ③	21 ②	22 ④		

01 '물약 → [물냑] → [물략]'의 과정을 보면, 먼저 'ㄴ'이 첨가되고 이 'ㄴ'이 'ㄹ'로 교체된다. 이때 'ㄴ'이 첨가되므로 음운의 개수는 1개 늘어난다. 따라서 첨가와 교체 두 개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국밥 [국빱]'에서 'ㅂ'은 'ㅃ'으로 교체된다. 이때 음운 개수에는 변화가 없다. ② '막내[망내]'에서 'ㄱ'은 'ㅇ'으로 교체된다. 이때 음운 개수에는 변화가 없다. ③ '밟힌[발핀]'에서 'ㅂ'과 'ㅎ'이 결합하여 'ㅍ'으로 축약된다. 이때 두 음운이 결합하여 하나의 음운이 되었으므로 음운의 개수는 1개 줄어든다. ⑤ '뚫는'은 '뚫는 → [뚤는] → [뚤른]'에서 'ㅎ'이 탈락하고 'ㄴ'이 'ㄹ'로 교체된다. 이때 'ㅎ'의 탈락으로 인해 음운의 개수는 1개가 줄어든다.

02 '곡물', '굳는'은 비음화에 해당하고, '실내', '관리'는 유음화에 해당한다. '비음화와 유음화는 모두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앞뒤 자음의 조음 방법을 같게 하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로 볼 때, '곡물', '굳는'과 '실내', '관리'는 모두 발음할 때 조음 방법을 같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실내'는 [실래], '관리'는 [괄리]로 발음되므로, 'ㄴ'이 앞뒤의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유음화에 해당한다. ② '곡물'은 [공물], '굳는'은 [군는], '입는'은 [임는]으로 발음되므로, 모두 비음화에 해당한다. ③ '곡물', '굳는', '실내', '관리'는 비음화와 유음화에 해당하며, 이는 모두 음운 교체이다. ⑤ '실내[실래]'는 앞의 자음 'ㄹ'의 영향으로 뒤의 'ㄴ'이 'ㄹ'로 바뀐다. 이와 달리 '곡물[공물]'은 뒤의 'ㅁ'의 영향을, '굳는[군는]'은 뒤의 'ㄴ'의 영향을, '입는[임는]'은 뒤의 'ㄴ'의 영향을 받아 앞의 음운이 변동한다.

03 '중력'은 [중녁]으로, '칼날'은 [칼랄]로, '실내'는 [실래]로 발음되어 뒤 음절의 초성 자리에 놓인 음운이 바뀌므로 '중력', '칼날', '실내'는 ⓐ에 해당한다. '곡물'은 [공물]로, '집념'은 [짐념]으로 발음되어 앞 음절의 종성 자리에 놓인 음운이 바뀌므로 '곡물', '집념'은 ⓑ에 해당한다.

Plus 〈참고〉 동화의 방향

동화의 방향

동화는 동화의 방향에 따라 순행 동화와 역행 동화로 나눌 수 있음. 〈보기〉의 설명 중 ㉠이 순행 동화, ㉡이 역행 동화에 해당함.

순행 동화(앞 → 뒤)	역행 동화(앞 ← 뒤)
앞 음운의 영향으로 뒤 음운이 바뀜. 예 칼날[칼랄](앞 → 뒤)	뒤 음운의 영향으로 앞 음운이 바뀜. 예 국물[궁물](앞 ← 뒤)

04 '굳히다'는 'ㄷ'과 'ㅎ'이 'ㅌ'으로 축약(거센소리되기)되어 [구티다]가 된 후, 'ㅌ'이 'ㅊ'으로 교체(구개음화)되어 [구치다]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미닫이'는 'ㄷ'이 'ㅈ'으로 교체(구개음화)되어 [미다지]로 발음된다. 이때 축약은 일어나지 않는다. ② '옷고름'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인해 [옫고름]으로 교체가 일어난 후, 'ㄱ'이 'ㄲ'으로 교체(된소리되기)된다. 따라서 교체만

2번 일어난다. ④ '노랗다'는 'ㅎ'과 'ㄷ'이 'ㅌ'으로 축약(거센소리되기)되어 [노라타]로 발음된다. 이때 교체는 일어나지 않는다. ⑤ '한여름'은 'ㄴ'이 첨가되어 [한녀름]으로 발음된다. 이때 교체와 축약은 둘 다 일어나지 않는다.

05 '꼿꼿한[꼳꼬탄]'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꼳꼳한]이 된 이후 'ㄷ'과 'ㅎ'의 축약(거센소리되기 – ⓐ)으로 인해 [꼳꼬탄]이 된다.

오답 해설 ① '여닫이[여다지]'는 'ㄷ'과 'ㅣ'가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② '갈히는[가티는 → 가치는]'은 'ㄷ'과 'ㅎ'이 만나 'ㅌ'으로 축약되고 이후 'ㅣ'를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④ '낱낱이[낟나티 → 난나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낟낟이]가 되고 이후 'ㄷ'은 'ㄴ'의 영향으로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ㅌ'이 'ㅣ'를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⑤ '해돋이[해도지]'는 'ㄷ'과 'ㅣ'가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06 '끝인사'에서 '끝'의 받침 'ㅌ' 뒤에 'ㅣ'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인 명사 '인사'가 오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후 연음되어 [끄딘사]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같이'에서 '같'의 받침 'ㅌ' 뒤에 'ㅣ'로 시작하는 '-이'는 접사이므로 형식 형태소이다. 따라서 구개음화에 의해 [가치]로 발음된다. ② '굳이'에서 '굳'의 받침 'ㄷ' 뒤에 'ㅣ'로 시작하는 '-이'는 접사이므로 형식 형태소이다. 따라서 [구지]로 발음된다. ④ '곧이어'의 '이어'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아 [고디어]로 발음된다. ⑤ '굳은'에서 '굳'의 받침 'ㄷ' 뒤에 '-'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인 어말 어미 '-은'이 오기 때문에 연음되어 [구든]으로 발음된다.

Plus 〈참고〉 접사와 어미

접사	단독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어근(語根)이나 단어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 예 갈이
어미	용언 및 서술격 조사가 활용하여 변하는 부분 예 굳은

07 '산길'은 두 개의 어근인 명사가 합쳐진 말로, 사잇소리 현상 중 두 개의 형태소나 단어가 결합하여 합성어가 될 때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현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용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역도[역또]'는 받침 'ㄱ' 뒤에 'ㄷ'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③ '넘고'는 용언의 어간 받침 'ㅁ' 뒤에 어미의 첫소리 'ㄱ'이 와 [넘꼬]로 발음되므로 ㉡에 해당한다. ④ '열정(熱情)'은 한자음 'ㄹ' 뒤에 'ㅈ'이 와 [열쩡]으로 발음된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⑤ '둘 바'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오는 'ㅂ'이 된소리로 발음된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Plus 〈참고〉 사잇소리 현상

사잇소리 현상
합성 명사에서,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이면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현상. 또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데 뒷말이 'ㅁ, ㄴ'으로 시작되면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하나 덧나고, 모음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되면 앞말의 끝소리와 뒷말의 첫소리에 'ㄴ'이 둘 덧나는 현상을 이르는 말 예 냇가, 예삿일

08 '먹힐지[머킬찌]'는 '먹힐'에서 'ㄱ'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되기가 먼저 일어난 후, '지'가 '찌'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많던[만턴]'은 'ㅎ'과 'ㄷ'이 'ㅌ'으로 합쳐지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② '놓더라[노터라]'는 'ㅎ'과 'ㄷ'이 'ㅌ'으로 합쳐지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③ '애틋한[애트탄]'은 받침 'ㅅ'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이 먼저 일어나고, 앞의 'ㄷ'과 뒤의 'ㅎ'이 'ㅌ'으로 합쳐지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④ '맞는지[만는지]'는 받침 'ㅈ'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이 먼저 일어나고, 'ㄷ'이 'ㄴ'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09 '서서'는 '서-+-어서'에서 'ㅓ'가 탈락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② '나-+-아서'에서 'ㅏ'가 탈락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따르-+-아'에서 '_'가 탈락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가-+-아서'에서 'ㅏ'가 탈락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아프-+-아'에서 '_'가 탈락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10 '일반적으로 반모음 첨가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를 바탕으로 '개어'는 [개어]만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며, [개여]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되어, 피어'의 어미는 [어]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를 바탕으로 '되어'는 [되어]와 [되여] 모두 발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피어'를 [피여]로 발음하는 것은 'ㅣ'에 반모음이 첨가된 것이다. 따라서 옳은 첨가에 해당한다. ④ '일반적으로 반모음 첨가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되어, 피어'의 어미는 [어]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를 바탕으로 '되어'와 '피어'는 일반적인 반모음 첨가에서 인정하는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모음 'ㅓ, ㅗ'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반모음 'ㅣ[j]'가 새로 생겨 발음되는 현상을 반모음 첨가라고 한다.'를 바탕으로 '되어', '피어', '개어'는 모두 용언의 어간 뒤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1 〈보기〉는 탈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라라'는 '자라-+-아라'에서 '아'가 탈락한 것이다. '소나무'는 '솔+나무'에서 'ㄹ'이 탈락한 것이다. '치러'는 '치르-+-어'에서 '_'가 탈락한 것이다. '따님'은 '딸'+'님'에서 'ㄹ'이 탈락한 것이다.

오답 해설 • '닦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로 인해 [닥따]로 발음된다. • '물난리'는 유음화로 인해 [물랄리]로 발음된다. • '축구'는 된소리되기로 인해 [축꾸]로 발음된다.

12 '아니오[아니요]'는 '오'에 반모음이 첨가되어 '요'가 되었다. '나뭇잎[나문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나묻입]이 되고 'ㄴ'이 첨가되어 [나묻닙]이 된 이후, 비음화로 인해 [나문닙]이 된다. '앉지[안치]'는 'ㅎ'과 'ㅈ'이 만나 축약되어 [안치]가 된다.

오답 해설 ② '피어[피여]'는 '어'에 반모음이 첨가되어 '여'가 된다. '국밥[국빱]'은 된소리되기(교체)이다. '앉지[안치]'는 'ㅎ'과 'ㅈ'이 만나 축약되어 [안치]가 된다. ③ '아니오[아니요]'는 '오'에 반모음이 첨가되어 '요'가 된다. '맨입[맨닙]'은 'ㄴ' 첨가이다. '놓아[노아]'는 'ㅎ' 탈락이다. ④ '되어[되어/되여]'는 '어'에 반모음이 첨가되어 '여'가 된다. '축제[축쩨]'는 된소리되기이다. '파랗게[파라케]'는 'ㅎ'과 'ㄱ'이 만나 축약되어 [파라케]가 된다. ⑤ '이오[이요]'는 '오'에 반모음이 첨가되어 '요'가 된다. '축제[축쩨]'는 된소리되기, '놓아[노아]'는 'ㅎ' 탈락이다.

13 '발이랑'은 '발'+'이랑'의 형태로 실질 형태소끼리 이루어진 단어이다.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발이랑]으로 바뀌고 이후 'ㄴ'이 첨가되어 [발니랑]으로 바뀐 뒤 비음화로 인해 [반니랑]이 된다. 따라서 구개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붙여라'는 'ㅌ'이 '여'를 만나 'ㅊ'으로 바뀌어 [부쳐라]가 되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② '곧이듣지'는 'ㄷ'이 '이'를 만나 'ㅈ'으로 바뀌어 [고지듣찌]가 되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③ '끝이'는 'ㅌ'이 '이'를 만나 'ㅊ'으로 바뀌어 [끄치]가 되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④ '해돋이'는 'ㄷ'이 '이'를 만나 'ㅈ'으로 바뀌어 [해도지]가 되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14 '받는다[반는다]'는 'ㄴ'의 영향으로 'ㄷ'이 'ㄴ'으로 변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쫓는[쫀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ㅊ'이 'ㄷ'으로 변한 후, 'ㄴ'의 영향으로 'ㄷ'이 'ㄴ'으로 변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앞마당[암마당]'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ㅍ'이 'ㅂ'으로 변한 후, 'ㅁ'의 영향으로 'ㅂ'이 'ㅁ'으로 변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② '쪽문[쫑문]'은 'ㅁ'의 영향으로 'ㄱ'이 'ㅇ'으로 변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금빛[금삗]'은 된소리되기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문법[문뻡]'은 된소리되기만 일어난다. ③ '받는다[반는다]'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감

기[감:기]'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밥그릇[밥끄륻]'은 된소리되기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일어난다. ④ '공로[공노]'는 'ㅇ'의 영향으로 'ㄹ'이 'ㄴ'으로 변하는 비음화가, '나뭇잎[나묻입 → 나묻닙 → 나문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ㅅ'이 'ㄷ'으로 변한 후, 첨가된 'ㄴ'의 영향으로 'ㄷ'이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발꼬[발꼬]'는 된소리되기만 일어난다. ⑤ '공신력[공신녁]'은 'ㄴ'의 영향으로 'ㄹ'이 'ㄴ'으로 변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국밥[국빱]'은 된소리되기만, '신여성[신녀성]'은 'ㄴ' 첨가만 일어난다.

Plus 〈참고〉 'ㄹ'의 비음화

'ㄹ'의 비음화	'ㄹ'을 제외한 자음 뒤에 'ㄹ'이 올 때, 'ㄹ'이 'ㄴ'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 예 공로[공노], 공신력[공신녁]

15 '옆집'은 관형사형이 아닌 명사 '옆'과 '집'이 결합한 것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엽집]이 된 이후에 'ㅂ' 뒤에 'ㅈ'이 오면서 [엽찝]이 된다.

오답 해설 ① '잡고'는 받침 'ㅂ' 뒤에 'ㄱ'이 오면서 [잡꼬]로 발음되므로 적절하다. ③ '갈등(葛藤)'은 한자어 '갈'의 받침 'ㄹ' 뒤에 'ㄷ'이 오면서 [갈뜽]으로 발음되므로 적절하다. ④ '감고'는 어간 '감-'의 받침 'ㅁ' 뒤에 어미의 첫소리 'ㄱ'이 오면서 [감:꼬]로 발음되므로 적절하다. ⑤ '신고'는 어간 '신-'의 받침 'ㄴ' 뒤에 어미의 첫소리 'ㄱ'이 오면서 [신:꼬]로 발음되므로 적절하다.

16 '신라[실라]'는 울림소리인 'ㄴ'이 울림소리인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에 해당한다. 'ㄴ'도 울림소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밥물[밤물]'은 안울림소리인 'ㅂ'이 울림소리인 'ㅁ'으로 발음되는 비음화이므로 적절하다. ② '국민[궁민]'은 안울림소리인 'ㄱ'이 울림소리인 'ㅇ'으로 조음 방법을 바꾸는 비음화이므로 적절하다. ③ '국물[궁물]'은 안울림소리인 'ㄱ'이 울림소리인 'ㅇ'으로 발음되는 비음화이므로 적절하다. ④ '난리[날리]'는 울림소리인 'ㄴ'이 울림소리인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이므로 적절하다.

17 '밥 한 사발[바판사발]', '국 한 대접[구칸대접]'과 같이 둘 이상의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할 때 'ㅂ'은 'ㅎ'과 결합하여 'ㅍ'으로 발음되고 'ㄱ'은 'ㅎ'과 결합하여 'ㅋ'으로 발음된다. 즉, 축약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끊는[끈는], 않는[안는]'과 같이 받침 'ㄶ'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으므로 탈락에 해당한다. ② '놓는[논는], 쌓는[싼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인해 'ㅎ'이 'ㄷ'으로 바뀐 후 뒤 음절의 초성 'ㄴ'의 영향으로 비음화가 이루어져 'ㄴ'으로 발음된다. ③ '옳은[오른], 싫어[시러]'와 같이 받침 'ㄶ'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으므로 탈락에 해당한다. ④ '놓고[노코], 국화[구콰]'와 같이 받침 'ㅎ' 뒤에 'ㄱ'이 오거나, 받침 'ㄱ' 뒤에 'ㅎ'이 오면 두 음을 합쳐 [ㅋ]으로 발음하므로 축약에 해당한다. 즉, 두 경우 모두 축약에 해당한다.

Plus 〈참고〉 받침 'ㅎ'의 발음

받침 'ㅎ'의 발음
• ㅎ(ㄶ, ㅀ)+ㄱ, ㄷ, ㅈ: 'ㄱ, ㄷ, ㅈ'을 [ㅋ, ㅌ, ㅊ]으로 발음함. 예 놓고[노코]
• ㅎ(ㄶ, ㅀ)+ㅅ: 'ㅅ'을 [ㅆ]으로 발음함. 예 싫소[실쏘]
• ㅎ+ㄴ: [ㄴ]으로 발음함. 예 놓는[논는]
• ㄶ, ㅀ+ㄴ: 'ㅎ'을 발음하지 않음. 예 않네[안네]
• ㅎ(ㄶ, ㅀ)+모음 어미 · 접미사: 'ㅎ'을 발음하지 않음. 예 낳은[나은]

18 '가-+-았-+-다'는 '갔다'가 되면서 'ㅏ'가 탈락한 것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날-+-는'은 '나는'이 되므로 'ㄹ' 탈락이다. ② '놓-+-아'는 [노아]가 되므로 'ㅎ' 탈락이다.③ '읽-+-어'는 '읽어[일거]'가 되므로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④ '젓-+-어라'는 '저어라'가 되므로 'ㅅ' 탈락이다.

19 '나-+-아 → 나'에서 'ㅏ'가 탈락(ⓐ)하고, '크-+-어서 → 커서'에서 'ㅡ'가 탈락(ⓑ)한다.

오답 해설 ① '뜨-+-어 → 떠'에서 'ㅡ'가 탈락(ⓑ)하고, '가-+-아서 → 가서'에서 'ㅏ'가 탈락(ⓐ)한다. ③ '담그-+-아 → 담가'에서 'ㅡ'가 탈락(ⓑ)하고, '서-+-어서 → 서서'에서 'ㅓ'가 탈락(ⓐ)한다. ④ '까-+-아서 → 까서'에서 'ㅏ'가 탈락(ⓐ)하지만, '끄-+-고 → 끄고'에서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⑤ '얼-+-ㄴ → 언'에서 'ㄹ'이 탈락한다. 한편 '뜨-+-는 → 뜨는'에서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20 반모음 'ㅣ[j]'가 어미의 단모음 'ㅓ'에 첨가되는 현상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치러]는 어간의 단모음 'ㅡ'가 탈락하는 현상에 해당한다. ② [자서]는 단모음 'ㅏ'가 탈락하는 현상에 해당한다. ④ [뛰여]는 반모음 'ㅣ[j]'가 어미의 단모음 'ㅓ'에 첨가되는 현상에 해당한다. ⑤ '살피-+-어'가 [살펴]로 발음되는 경우, 'ㅕ'는 반모음 'ㅣ[j]'와 단모음 'ㅓ'가 결합된 것이므로, 어간의 단모음 'ㅣ'가 반모음 'ㅣ[j]'로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21 '독립[동닙]'은 'ㄱ'이 'ㅇ'으로, 'ㄹ'이 'ㄴ'으로 변화는 비음화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담력[담녁]'은 받침 'ㅁ' 뒤에 연결되는 'ㄹ'이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이다. ③ '칼날[칼랄]'은 받침 'ㄹ' 뒤의 'ㄴ'이 'ㄹ'로 바뀌는 유음화이다. ④ '굳이[구지]'는 받침 'ㄷ'이 'ㅣ' 모음 앞에서 'ㅈ'으로 바뀌는 구개음화이다. ⑤ '신고[신:꼬]'는 받침 'ㄴ'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 자음이 된소리로 바뀌는 된소리되기이다.

22 ㉡의 '묻힌'은 (가)의 [붙임]('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ㅌ'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으로 볼 때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무친]으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맏이'는 'ㄷ' 뒤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마지]로 발음해야 한다. ② '솥을'은 'ㅌ' 뒤에 'ㅣ'나 '히'가 결합된 형태가 아니므로 연음되어 [수틀]로 발음해야 한다. ④ '느티나무'는 '느티'가 원래부터 한 형태소이므로 [느티나무]로 발음해야 한다. ⑤ '밭이랑'은 'ㅌ' 뒤에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바치랑]으로 발음해야 한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84~089쪽

01 ⑤	02 ②	03 ③	04 ⑤	05 ④	06 ②	07 ⑤	08 ①
09 ③	10 ①	11 ⑤	12 ④	13 ④	14 ③	15 ③	16 ⑤
17 ④	18 ⑤	19 ⑤	20 ⑤	21 ③	22 ②	23 ④	24 ④

01 '의복함[의보캄]'에서는 '복'의 끝소리 'ㄱ'과 함의 'ㅎ'이 축약되어 거센소리 [ㅋ]으로 발음된다. 탈락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물약'에서는 'ㄴ' 첨가가 일어나고([물냑]) 첨가된 'ㄴ'이 '물'의 끝소리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교체된다([물략]). ② '흙만'에서는 '흙'의 끝에 오는 두 자음 중 'ㄹ'이 탈락하고([흑만]) 남은 'ㄱ'은 뒤에 오는 'ㅁ'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교체된다([흥만]). ③ '읊는'에서는 '읊'의 끝에 오는 두 자음 중 'ㄹ'이 탈락하고([읖는]) 남은 'ㅍ'이 'ㅂ'으로 바뀐 후([읍는]) 'ㅂ'이 뒤에 오는 'ㄴ'의 영향을 받아 [ㅁ]으로 바뀌어 발음된다([음는]). ④ '묻히다'에서는 '묻'의 받침 'ㄷ'과 뒤에 오는 자음 'ㅎ'이 만나 'ㅌ'으로 축약되고([무티다]) 이후 'ㅌ'이 '이'를 만나 'ㅊ'으로 교체된다([무치다]).

02 ㉡의 '깊숙이[깁쑤기]'는 '깊 → 깁'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ㅅ → ㅆ'의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의 '실없네[시럼네]'는 '없 → 업'에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ㅂ → ㅁ'의 비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③ ㉢의 '짓밟지[짇빱찌]'는 '짓 → 짇'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ㅂ → ㅃ'의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④ ㉣의 '꺾는[껑는]'은 '꺾 → 꺽'에서 음절

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ㄱ → ㅇ'의 비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⑤ ⓔ의 '훑고[훌꼬]'는 '훑 → 훌'에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ㄱ → ㄲ'의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03 '색연필'은 'ㄴ'이 첨가되어 [색년필]이 된 후, 'ㄴ'의 영향으로 '색'의 'ㄱ'이 비음화되어 'ㅇ'으로 바뀐다. 따라서 [생년필]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눈요기'는 'ㄴ'이 첨가되어 [눈뇨기]로 발음된다. ② '내복약'은 'ㄱ'이 첨가되어 [내:복냑]이 된 후, 'ㄴ'의 영향으로 '복'의 'ㄱ'이 'ㅇ'으로 바뀌어 [내:봉냑]으로 발음된다. ④ '들일'은 'ㄴ'이 첨가되어 [들:닐]이 된 후, '들'의 'ㄹ'의 영향으로 'ㄴ'이 'ㄹ'로 바뀌어 [들:릴]로 발음된다. ⑤ '분말약'은 'ㄴ'이 첨가되어 [분말냑]이 된 후, '말'의 'ㄹ'의 영향으로 'ㄴ'이 'ㄹ'로 바뀌어 [분말략]으로 발음된다.

04 '잠그다'의 어간 '잠그-'에 어미 '-아'가 연결되며 'ㅡ'가 탈락하여 '잠가'가 되었고, 이것이 그대로 표기에 반영되었다.

오답 해설 ① '닦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로 인하여 [닥따]로 발음된다. ② '국밥'은 된소리되기로 인해 [국빱]으로 발음된다. ③ '놓지'는 거센소리되기로 인해 [노치]로 발음된다. ④ '담요'는 'ㄴ' 첨가로 인해 [담뇨]로 발음된다.

05 '난리'는 '난'의 받침 'ㄴ'이 뒤의 초성 'ㄹ'의 영향으로 'ㄹ'로 바뀌는 유음화에 해당한다. 또한 'ㄴ'이 'ㄹ'로 바뀐 것이므로 조음 방법만 바뀐 것이다.

오답 해설 ①, ② '국물'은 '국'의 'ㄱ'이 뒤의 초성 'ㅁ'의 영향으로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에 해당한다. 이는 조음 방법만 바뀐 것이다. ⑤ '해돋이'는 '돋'의 받침 'ㄷ'이 '이'를 만나 'ㅈ'으로 바뀌는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이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모두 바뀐 것이다.

06 '훑어[훌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가 와서 'ㅌ'이 연음되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훑이[훌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 '-이'가 와서 'ㅌ'이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자음군 단순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③ '얹는[언는]'은 'ㄵ' 중 뒤의 자음인 'ㅈ'이 탈락되어 자음군 단순화만 일어난 것이다. ④ '끓고[끌코]'는 'ㅎ'과 그 다음 음절의 'ㄱ'이 축약되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⑤ '끓는[끌른]'은 자음군 단순화(ㅀ → ㄹ)가 일어난 후 남은 'ㄹ'로 인해 'ㄴ'이 'ㄹ'로 교체된 것이다.

07 '급행열차[그팽녈차]'는 '급'의 'ㅂ'과 뒤의 초성 'ㅎ'이 만나 축약(ⓔ)이 일어나고, '열'에 'ㄴ'이 첨가(ⓒ)된다.

오답 해설 ① '옷고름[옫꼬름]'은 'ㅅ'이 대표음 'ㄷ'으로 교체되고 'ㄱ'이 된소리되기를 통해 'ㄲ'으로 교체된다. ② '입학식[이팍씩]'은 '입'의 'ㅂ'이 뒤의 초성 'ㅎ'을 만나 'ㅍ'으로 축약되고 '식'의 'ㅅ'이 된소리되기를 통해 'ㅆ'으로 교체된다. ③ '넋두리[넉뚜리]'는 '넋'에서 'ㅅ'이 탈락하고 '두'의 'ㄷ'이 된소리되기를 통해 'ㄸ'으로 교체된다. ④ '영업용[영엄뇽]'은 [영업뇽]으로 'ㄴ'이 첨가된 후에 'ㄴ'의 영향으로 '업'의 'ㅂ'이 'ㅁ'으로 교체된다.

08 (가)를 보면 초성에 자음이 0~1개 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가)의 모든 유형에 모음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흘글밥:따]에서 첫음절은 [흘]이고 마지막 음절은 [따]이다. ④ [흘글밥:따]에서 모음 하나로 된 음절은 없다. ⑤ [흘글밥:따]에서 종성을 쓸 때 올 수 있는 자음의 개수는 1개인 것을 알 수 있다.

09 '신라[실라]'는 앞의 음운 'ㄴ'이 뒤의 음운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소리 나므로 역행 동화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종로[종노]'는 뒤의 음운 'ㄹ'이 앞의 음운 'ㅇ'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바뀌는 순행 동화에 해당한다. ② '작년[장년]'은 앞의 음운 'ㄱ'이 뒤의 음운 'ㄴ'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는 역행 동화에 해당한다. ④ '밥물[밤물]'은 앞의 음운 'ㅂ'이 뒤의 음운 'ㅁ'의 영향을 받아 'ㅁ'으로 바뀌는 역행 동화에 해당한다. ⑤ '국민[궁민]'은 앞의 음운 'ㄱ'이 뒤의 음운 'ㅁ'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는 역행 동화에 해당한다.

10 '쌓-+-아 → 쌓아[싸아]'에서 발음할 때 'ㅎ'이 탈락한다.

오답 해설 ② '좋-+-고 → 좋고[조:코]'에서 'ㅎ'과 'ㄱ'이 축약되어 'ㅋ'이 된다. ③ '업-+-하-+-지 → 업히지[어피지]'에서 'ㅂ'과 'ㅎ'이 축약되어 'ㅍ'이 된다. ④ '젖-+-하-+-다 → 젖히다[저치다]'에서 'ㅈ'과 'ㅎ'이 축약되어 'ㅊ'이 된다. ⑤ '깨끗-+-하-+-니 → 깨끗하니[깨끋하니] → 깨끄타니]'에서 '끗'의 'ㅅ'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ㄷ'으로 바뀐 후 이 'ㄷ'이 'ㅎ'과 축약되어 'ㅌ'이 된다.

11 '땀받이[땀바지]'는 앞말인 '받'의 끝소리 'ㄷ'이 연음되어 뒷말인 '이'의 가운뎃소리 'ㅣ'와 만나(ⓒ) 앞의 음운인 'ㄷ'이 'ㅈ'으로 바뀐다(ⓐ).

오답 해설 ① '마천루[마철루]'는 앞말인 '천'의 끝소리 'ㄴ'과 뒷말인 '루'의 첫소리 'ㄹ'이 만나(㉠) 앞의 음운인 'ㄴ'이 'ㄹ'로 바뀐다(ⓐ). ② '목덜미[목떨미]'는 앞말인 '목'의 끝소리 'ㄱ'과 뒷말인 '덜'의 첫소리 'ㄷ'이 만나(㉠) 뒤의 음운인 'ㄷ'이 'ㄸ'으로 바뀐다(ⓑ). ③ '박람회[방남회]'는 앞말인 '박'의 끝소리 'ㄱ'과 뒷말인 '람'의 첫소리 'ㄹ'이 만나(㉠) 앞의 음운인 'ㄱ'이 'ㅇ'으로, 뒤의 음운인 'ㄹ'이 'ㄴ'으로 바뀐다(ⓒ). ④ '쇠붙이[쇠부치]'는 앞말인 '붙'의 끝소리 'ㅌ'이 연음되어 뒷말인 '이'의 가운뎃소리 'ㅣ'와 만나(ⓒ) 앞의 음운인 'ㅌ'이 'ㅊ'으로 바뀐다(ⓐ).

12 '집일'은 '집+일'로 실질 형태소끼리 연결된 합성어로, 표준 발음법 제29항에 의해 [집닐]이 되고 이후 제18항에 의해 [짐닐]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굳이'는 표준 발음법 제17항인 구개음화와 관련된 것으로, [구지]로 발음된다. ② '덮이다'는 표준 발음법 제13항인 연음과 관련된 것으로, [더피다]로 발음된다. ③ '웃어른'은 표준 발음법 제15항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된 것으로, [우더른]으로 발음된다. ⑤ '색연필'은 [색년필 → 생년필]로 발음되는 것으로, 비음화인 제18항, 'ㄴ' 첨가인 제29항과 관련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13 '닫히다'는 '닫'의 'ㄷ'과 '히'의 'ㅎ'이 만나 'ㅌ'으로 축약된다. 이후 구개음화로 인해 'ㅌ'이 'ㅊ'으로 교체된다.

14 '박람회'는 'ㄱ' 뒤의 'ㄹ'이 먼저 'ㄴ'이 되고, 이 'ㄴ'의 영향을 받아 앞의 받침 'ㄱ'이 비음 'ㅇ'이 되는 과정을 거쳐 최종 발음은 [방남회]가 된다.

오답 해설 ① '남루[남누]'는 'ㄹ'이 'ㅁ'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의 예시에 해당한다. ② '백노'는 'ㄱ' 뒤의 'ㄹ'이 먼저 'ㄴ'이 되고, 이 'ㄴ'의 영향을 받아 앞의 받침 'ㄱ'이 비음 'ㅇ'이 되는 과정을 거쳐 최종 발음은 [뱅노]가 된다. ④ '설날[설랄]'은 앞의 음운 'ㄹ'의 영향으로 뒤의 음운 'ㄴ'이 'ㄹ'로 바뀐다. ⑤ '진리[질리]'는 뒤의 음운 'ㄹ'의 영향으로 앞의 음운 'ㄴ'이 'ㄹ'로 바뀐다.

15 '끝에'는 연음이 되어 [끄테]로 발음이 된다. '끝이'는 구개음화로 인해 [끄치]로 발음된다. 구개음화는 'ㄷ, ㅌ' 뒤에 'ㅣ'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 실현된다.

16 '깻잎'은 '깨+잎'이 합쳐진 합성 명사이다. 앞 어근이 'ㅐ'인 모음으로 끝나고 뒤 어근이 'ㅣ'로 시작되는데, 앞 어근의 끝소리와 뒤 어근의 첫소리에 각각 'ㄴ'이 첨가되어 [깬닙]으로 발음되므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옷깃'은 합성 명사로, '옷'의 'ㅅ'은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이시옷이 아니다. 즉, 앞 어근의 끝소리는 'ㅅ'으로 울림소리가 아니므로 뒤의 예사소리 'ㄱ'이 된소리로 나더라도 ㉯의 예로 볼 수 없다. ② '흘이불[혼니불]'의 '흘-'은 명사가 아니라 접사이므로 '홑이불'은 합성 명사가 아니라 파생 명사이다. 또한 사이시옷이 온 것도 아니므로, 'ㄴ' 첨가가 나타나지만 ㉯, ㉰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빨랫돌'은 합성 명사로, 앞 어근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뒤 어근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므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④ '뱃머리'는 합성

명사로,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 어근이 'ㅁ'으로 시작하는 음운 환경에서 앞 어근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되므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17 '값까지'의 '값'은 ⓑ에 따라 [갑]으로 발음한다. 그런데 ⓓ는 [ㄱ]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연결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까지'가 결합한 '값까지'의 발음은 ⓓ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몫을'은 '몫'과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을'이 결합한 경우이기 때문에 ⓐ의 적용을 받아 [목쓸]로 발음해야 한다. ② '여덟이'는 '여덟'과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이'가 결합한 경우이기 때문에 ⓐ에 따라 겹받침의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여덜비]로 발음해야 한다. ③ '흙만'의 '흙'은 ⓑ에 따라 [흑]으로 발음하며, 여기에 '만'이 결합하면 ⓒ에 따라 [흑만]이 아닌 [흥만]으로 발음해야 한다. ⑤ '닭하고'의 '닭'은 ⓑ에 따라 [닥]으로 발음하며, 여기에 '하고'가 결합하면 ⓔ에 따라 'ㄱ'과 'ㅎ'을 합쳐서 [닥카고]로 발음해야 한다.

18 '(먼지를) 훑던'은 어간 받침 'ㄼ'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ㄷ'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에, '(남들이) 비웃을지언정'은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에서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신을) 신겠네요'는 어간 받침 'ㄴ'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에, '(땅을) 밟지도'는 어간 받침 'ㄺ'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에 해당한다. ② '(물건을) 얹지만'은 어간 받침 'ㄵ'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에, '(자리에) 앉을수록'은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에서 'ㅅ'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에 해당한다. ③ '(며느리로) 삼고'는 어간 받침 '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에, '(가슴에) 품을 적에'는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에 해당한다. ④ '(방이) 넓거든'은 어간 받침 'ㄻ'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에, '(두께가) 얇을지라도'는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에서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에 해당한다.

19 ㉠은 탈락, ㉡은 첨가, ㉢은 교체, ㉣은 축약에 대한 설명이다. '구급약[구:급냑 → 구:금냑]'은 'ㄴ'이 첨가(㉡)된 후 'ㅂ'이 'ㄴ'과 만나 비음 'ㅁ'으로 교체(㉢)되었다. '물엿[물엳 → 물렷 → 물렫]' 역시 'ㄴ'이 첨가(㉡)된 후 첨가된 'ㄴ'이 앞에 있는 'ㄹ'의 영향으로 'ㄹ'로 교체(㉡)되었으며, 둘째 음절의 'ㅅ'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ㄷ'으로 교체(㉢)되었다.

오답 해설 ① '놓아[노아]'는 발음할 때 모음 어미 앞에서 'ㅎ'이 탈락(㉠)하지만, '없을[업:쓸]'은 겹받침 중 'ㅅ'이 둘째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되면서 'ㅂ'의 영향으로 된소리 'ㅆ'으로 바뀌는 교체(㉢)만 일어난다. ② '한여름[한녀름]'은 'ㄴ'이 첨가(㉡)되었지만, '설날[설:랄]'은 'ㄴ'이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는 교체(㉢)만 일어난다. ③ '앉히다[안치다]'는 겹받침 중 'ㅈ'이 'ㅎ'과 합쳐져서 'ㅊ'으로 축약(㉣)되지만, '끓이다[끄리다]'는 겹받침 중 'ㅎ'이 탈락(㉠)하고 'ㄹ'이 연음된다. ④ '읊조리다[읍쪼리다]'는 겹받침 중 'ㄹ'이 탈락(㉠)하고 남은 'ㅍ'이 'ㅂ'으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난 후 이 'ㅂ'의 영향으로 둘째 음절의 'ㅈ'이 된소리 'ㅉ'으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난다. 하지만 '꼿꼿하다[꼳꼬타다]'는 '꼿꼿'의 'ㅅ'이 각각 'ㄷ'으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난 후, 둘째 음절의 'ㄷ'이 뒤의 'ㅎ'과 합쳐져서 'ㅌ'으로 바뀌는 축약(㉣)이 일어난다.

20 '믿는'은 교체(비음화)가 일어나 [민는]으로 발음되는데, 그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믿는'으로 표기함을 보여 준다.

오답 해설 ① 'ㄱ-+-어'의 과정에서 모음 'ㅡ'의 탈락이 일어난 경우로,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어 '꺼'로 표기함을 보여 준다. ② '쌓-+-으니'의 과정에서 'ㅎ'이 탈락하여 [싸으니]로 발음되는데, 그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쌓으니'로 표기함을 보여 준다. ③ '풀-+-니'의 과정에서 'ㄹ'의 탈락이 일어난 경우로,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어 '푸니'로 표기함을 보여 준다. ④ '서-+-어'의 과정에서 동일 모음의 탈락이 일어난 경우로,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어 '서'로 표기함을 보여 준다.

21 '물약 → [물냑] → [물략]'에서는 첨가와 교체가 각각 한 번씩 일어나는데, 둘 다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굳-'의 'ㄷ'은 종성에 올 수 있으므로 '굳이[구지]'의 구개음화(교체)는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② '값도'가 [갑또]로 소리 나는 현상에서는 'ㅄ → ㅂ'으로 종성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는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ㄷ → ㄸ'으로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④ '옷만 → [옫만] → [온만]'에서는, 'ㅅ → ㄷ'으로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ㄷ → ㄴ'으로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⑤ '핥는 → [할는] → [할른]'에서는 'ㄾ → ㄹ'로 종성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는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ㄴ → ㄹ'로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22 '써서'는 '쓰다'의 '쓰-'와 '-어서'가 결합된 것이므로 'ㅡ' 탈락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가서'는 '가-+-아서'이므로 'ㅏ' 탈락이다. ③ '고파서'는 '고프-+-아서'이므로 'ㅡ' 탈락이다. ④ '건너서'는 '건너-+-어서'이므로 'ㅓ' 탈락이다. ⑤ '잤다'는 '자-+-았-+-다'이므로 'ㅏ' 탈락이다.

23 '뻗대도'는 받침 'ㄷ' 뒤에 'ㄷ'이 연결되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 제23항에 따라 [뻗때도]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국밥'은 표준 발음법 제23항에 따라 된소리되기가 발생해 [국빱]으로 발음된다. ② '꺼안다'는 표준 발음법 제24항에 따라 된소리되기가 발생해 [꺼안따]로 발음된다. ③ '삼고'는 어간 받침 'ㅁ' 뒤에 'ㄱ'이 결합되어 표준 발음법 제24항에 따라 된소리되기가 발생해 [삼:꼬]로 발음된다. ⑤ '갈등(葛藤)'은 표준 발음법 제26항에 따라 [갈뜽]으로 발음하지만, '결과(結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4 '파묻힌 → [파무틴] → [파무친]'에서는 축약이 한 번,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그러나 '불이익 → [불니익] → [불리익]'에서는 첨가가 한 번,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읊조려 → [읖조려] → [읍조려] → [읍쪼려]'에서는 교체가 두 번, 탈락이 한 번 일어난다. ② '얽매는 → [억매는] → [엉매는]'에서는 탈락이 한 번,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③ '겉늙어 → [걷늙어] → [건늘거]'와 '재밌는 → [재믿는] → [재민는]'에서는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⑤ '버들잎 → [버들닙] → [버들립] → [버들립]'에서는 '버들'과 '잎' 사이에 'ㄴ'이 첨가되며, 첨가된 'ㄴ'이 'ㄹ'의 영향으로 'ㄹ'로 교체된다. 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ㅍ'이 'ㅂ'으로 교체된다. 따라서 첨가가 한 번,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그리고 '덧입어 → [덧닙어] → [덛닙어] → [던니버]'에서는 '덧'과 '입어' 사이에 'ㄴ'이 첨가된다. 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ㅅ'이 'ㄷ'으로 교체되며, 교체된 'ㄷ'은 'ㄴ'의 영향으로 'ㄴ'으로 교체된다. 따라서 첨가가 한 번,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90~091쪽

01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ㄴ' 첨가, ⓒ: 비음화 **02** (1) 부엌, 옷, 빛, 앞 (2) 간, 달, 섬, 창 (3) 밖[박], 밑[믿] 등 (4) ㄱ, ㄴ, ㄷ, ㄹ, ㅁ, ㅂ, ㅇ **03** ㉠: 생길른지 → 생길는지, ㉡: 얼키고설켜 → 얽히고설켜, ㉢: 치뤄야 → 치러야 **04** ⓐ: 된소리되기, ⓑ: 용언 어간, ⓒ: 한자어, ⓓ: 관형사형 어미 **05** ⓐ에서 '발이랑'이 [반니랑]으로 발음되는 이유는 '이랑'이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받이랑]. 'ㄴ' 첨가에 의해 [받니랑], 비음화에 의해 최종적으로 [반니랑]으로 발음된다. ⓑ에서 '발이랑'이 [바치랑]으로 발음되는 이유는 '이랑'이 조사로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개음화가 일어나 [바치랑]으로 발음되는 것이다. **06** ㉠: 색년필 ㉡: '색'의 받침 'ㄱ' 뒤에 반모음 'ㅣ[j]'가 왔으므로 '연'에 'ㄴ'이 첨가되었으며, '색'의 받침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01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 교체 이후 'ㄴ' 첨가가 일어난다. 그리고 비음화인 교체가 일어난다.

02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소리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일곱 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부엌'의 'ㅋ'은 [ㄱ]으로, '옷'의 'ㅅ'과 '빛'의 'ㅈ'은 [ㄷ]으로, '앞'의 'ㅍ'은 [ㅂ]으로 발음된다.

03 ㉠ '생길른지'는 '생길는지'를 소리 나는 대로 쓴 것이다. ㉡ '얼키고설켜'는 '얽히고설켜'를 소리 나는 대로 쓴 것이다. ㉢ '치르-+-어야 → 치러야'는 활용 과정에서 'ㅡ'가 탈락한다.

04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된소리되기라고 하는데, 'ㄱ, ㄷ, ㅂ' 뒤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또 용언 어간의 받침 'ㄴ, ㅁ'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가 'ㄱ, ㄷ, ㅅ, ㅈ'이면 된소리로 발음되며, 한자어의 'ㄹ' 받침 뒤에 오는 'ㄷ, ㅅ ㅈ'도 된소리로 발음된다. 한편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기도 한다.

05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 교체 현상은 뒤에 오는 단어가 실질 형태소일 경우 일어나는 현상으로, 뒤에 오는 단어가 형식 형태소이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랑'이 명사이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며, '이랑'이 조사이면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06 '색연필'은 'ㄴ'이 첨가되어 [색년필]이 되고, 다시 비음화가 일어나 [생년필]로 발음된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92~093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3 음운 변동은 어떤 음운이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으로, 변화의 결과에 주목할 때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등으로 인해 발음이 달라질 수 있다.

07 자음군 단순화는 '닭'이 [닥]으로 발음되는 것과 같이, 음절 끝의 겹받침 가운데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음절 끝의 받침 'ㄲ'이 [ㄱ]으로 발음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한 결과이다.

11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이다.

15 '크-+-어서 → 커서'와 같이 용언의 어간 말 모음 'ㅡ'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한다.

17 거센소리되기는 'ㄱ, ㄷ, ㅂ, ㅈ'의 앞이나 뒤에 'ㅎ'이 놓이는 경우에 일어난다.

02. 공동체와 의사소통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96~101쪽

01 ⑤ 02 ③ 03 ① 04 ③ 05 ⑤ 06 ② 07 ③ 08 ③
09 ① 10 ② 11 ① 12 ② 13 ④ 14 ③ 15 ⑤ 16 ①
17 ④ 18 ① 19 ③ 20 ④

01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은 협력의 원리 중 태도의 격률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협력의 원리는 정보의 양에 대한 양의 격률, 정보의 내용에 대한 질의 격률, 정보의 주제 관련성에 대한 관련성의 격률, 모호하고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는 태도의 격률로 구성되어 있다. ② 체면 유지의 원리의 내용에 해당한다. ③ 체면을 존중받으면 자신감과 같은 긍정적 감정을 느낀다고 하였다. ④ 대화 상대방과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에 필요한 언어 예절에 대한 격률을 공손성의 원리라고 한다.

02 (나)에서 화성이 동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하는 것과, 이어지는 동희의 위로로 보아 화성이 축구부 입단 시험에서 떨어진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내가 전학 오기 전에 말이야. ~ 주말마다 축구 교실에 나가 꾸준히 연습을 했더니 축구를 아주 잘하게 됐지."에서 동희가 축구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동희야, 너 축구 잘해?"라는 화성의 질문에서 추론할 수 있다. ④ 주인(김 선생의 벗)이, 집이 가난하고 시장까지 멀어 맛있는 음식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주인(김 선생의 벗)이 웃고서 닭을 잡았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03 [A]에서 동희는 화성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필요 이상의 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양의 격률을 위배했다. [B]에서 화성은 대화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관련성의 격률을 위배했다.

04 ㉠에서 김 선생은 닭을 잡아 안주로 장만하라는 제안을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고 있으므로, 완곡하게 말하는 담화 관습이 드러난다.

오답 해설 ① 겸손하게 말하기는 자기를 낮추어 말하는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담화 관습이다. ② 신중하게 말하기는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필요한 내용만 말하는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담화 관습이다. ④ 공감을 표현하며 말하기는 상대방의 말에 감정적 동의를 표시하는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담화 관습이다. ⑤ 상대에게 공을 돌리며 말하기는 성장 및 성취의 요인이 상대방의 도움 덕분이었음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담화 관습이다.

05 ㉮는 혼사를 제안한 유 소사의 명을 어길 도리가 없음을 언급하여 승낙의 의사를 전달한 발화이다.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상대방(동희)에게 행동(축구를 같이 할 것)을 제안하면서 의향을 묻고 있다. ② 상대방(화성)이 시도한 일(축구부 입단 시험)의 성패를 물음으로써 상대방의 근황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③ 화성이 물건(축구화)의 소재를 확인하는 혼잣말을 활용해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④ 상대방(김 선생)이 겪게 될 상황(말 없이 돌아가야 함.)을 환기시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06 [C]는 상대를 '노야'로 존칭하고 자신의 공간을 '누실'로 낮춰 부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겸양의 격률을 지켜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은 칭찬의 격률, ③은 관용의 격률, ④는 요령의 격률, ⑤는 동의의 격률에 대한 설명이다. [C]는 상대를 존중한 이후 불일치하는 의견을 말하는 것

이 아니라, 상대의 요구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07 (나)에서 동희의 첫 번째 발언이 과장된 말이라고 할 경우, 화성은 과장된 말을 들으면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체면 유지의 원리는 모두 대화 중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다룬 것이며, 〈보기〉는 대화 중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다룬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나)의 화성의 듣기 태도는 〈보기〉의 ⓐ에서 밝힌 '함부로 들어 넘기지 말도록 할 것'이라는 데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를 지키기 위한 대화 태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다)의 김 선생은 채소로 안주를 차릴 수밖에 없었다는 주인의 말을 정확히 파악하고 마당의 닭을 잡아 안주로 삼자고 제안한 것이므로, ⓐ를 지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와 ⓑ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라)에서 소사가 길일을 택했다는 것은 지현이 혼사에 대한 부인의 생각을 대신 전달한 유모의 말의 '대략을 잘 기억'하고 '함부로 들어 넘기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유 소사가 〈보기〉의 ⓐ와 ⓑ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8 허구적 사건을 전개하는 것은 서사 갈래와 극 갈래의 특징이다. 이 글은 글쓴이의 체험에 기반한 수필로서 교술 갈래에 속한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수필의 갈래적 특징에 해당한다.

09 글쓴이는 길에서 만난 아이에게 말을 붙이면서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모습을 회상하였으며, 전라도 고창에서 손님 대접을 받으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고향 마을에서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오답 해설 ② 특정 인물의 삶의 태도를 제재로 삼아 교훈을 전달하고 있지 않다. ③ 사물을 제재로 삼고 있지 않으며, 비유를 통해 특정 사물의 속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활용되지 않았다. ④ 엘리베이터, 시골 버스 등 대조적 성격의 공간이 제시되기는 하나, 각 공간이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 ⑤ 글쓴이의 '시골 마을 유람'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나, 여정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10 ㉡은 생활 양식으로서의 의식주를 가리킨다. 이는 글쓴이가 생각하는 이웃의 의미, 즉 같은 시대에 비슷한 의식주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개인적 친분이 없더라도 동시대에 마주치는 사람 모두를 이웃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밝히는 데 쓰였다.

오답 해설 ① ㉠은 어머니가 이웃 동네 아이들에게 베푼 온정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③, ④ ㉢과 ㉤은 낯선 방문객인 글쓴이에게 시골 마을에서 내민 온정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⑤ ㉥은 보따리장수에게 베푸는 온정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11 글쓴이의 어머니와 시골 마을에서 만난 노인들은 모두 낯선 사람을 이웃으로 대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인물들이다.

오답 해설 ② '서양인들이' '가벼운 인사나 눈웃음을 나누는 모습'에 대해 '참 좋아 보인다'고 한 것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못 본 척하지 않는 모습을 긍정하는 글쓴이의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③ 시골 마을 유람을 통해 글쓴이는 마을의 내밀한 속 풍경을 이해하고, 낯선 노인들과 소통하는 경험을 축적해 왔다. ④ 산다는 것의 의미와 가치는 소통과 나눔에 있다는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⑤ 낯선 타인과 소통하고 나누는 것을 바람직한 삶의 태도로 보는 글쓴이의 인식이 드러난다.

12 작년 여름 전라도 고창에서의 경험으로 옛날 고향 마을의 모습을 떠올리는 모습을 '작년 여름에도 전라도 고창의 어느 마을을 그렇게 구경하며 다니다가 나는 그렇게 손님 아닌 손님 대접을 받았다. ~ 안 먹었으면 우리 집에 가자고 청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낯선 사람과의 소통과 나눔, 환대를 당연하게 여긴 고향 마을의 문화를 언급함으로써 글쓴이가 추구하는 소통의 태도가 유별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한 것이지, 고향에 대한 향수를 나타낸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엘리베이터 안에서 엄마 손을 잡은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 그럴 때는 인사를 한 내 쪽이 무안해진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④ '길을 가다가 우리 아이들만 한 아이들이 지나가면 꼭 다가가서 말을 붙이게 된다. ~ 그러면서 묻는 말이 "엄마 걔 알아?"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우리는 지금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며 날마다 비슷한 음식을 먹고 살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웃이고 같은 사람이다. ~ "좋은 아침이에요." 같은 가벼운 인사나 눈웃음을 나누는 모습이 나는 참 좋아 보인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는 글쓴이의 인사를 외면하는 아이의 모습으로, 낯선 사람과 소통하지 않는 모습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는 낯선 사람과 소통하는 글쓴이의 모습에 해당한다. ②, ③ ⓑ와 ⓒ는 낯선 사람 또한 이웃이며 그러므로 외면하기보다는 소통하는 것이 낫다는 글쓴이의 인식에 해당한다. ⑤ ⓔ는 낯선 사람과의 소통에 인색한 사람들을 만날 때 글쓴이가 갖는 느낌으로, 낯선 사람과 소통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글쓴이의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다.

14 (나)에는 전라도 고창이라는 구체적 지명이 언급되어 글쓴이의 체험에 사실감을 부여하였지만, (가)에는 전달하는 정보의 출처가 언급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②, ⑤ (가)는 대화의 목적 달성 및 대화 참여자 간의 관계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원리라는 전문적 정보를 격식적 문체로 전달하고 있고, (나)는 글쓴이의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소통과 나눔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전달하고 있다. ④ (가)는 대화의 원리를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체면 유지의 원리로 분류하고 다시 그 각각에 해당하는 하위 요소인 격률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나)는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 엘리베이터에서의 경험과 시골 버스에서의 경험을 대조하여 내용을 전개하였다.

15 상대방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는 표현이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요청하기 또는 거절하기 발화 자체가 체면을 위협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요청을 거절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체면이 존중받거나 위협받을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② 체면 유지의 원리에 대한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공손성의 원리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예의 있게 말하는 태도를, 체면 유지의 원리는 상대방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존중하는 표현 사용을 내용으로 한다. ④ 대화의 목적 달성을 위한 협력의 원리에, 주제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관련성의 격률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16 ㉠은 상대방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최대화하는 요령의 격률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 해설 ㉡은 관용의 격률을, ㉢은 칭찬의 격률을, ㉣은 겸양의 격률을, ㉤은 동의의 격률을 나타낸다.

17 글쓴이는 시골 마을이 '어디나 비슷한 것 같지만' '내밀한 속 풍경은 다 다'르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의 시골 마을 유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를 나누지 않는 태도를 겪으면 '사는 게 정말 재미없게 느껴진다.'라고 하였다. ③ 시골 버스 안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본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작년 여름 전라도 고창에서 손님 대접을 받은 경험을 언급하며 '우리 고향 마을도 그랬던 것 같다.'라면서 고향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따리장수를 환대하였는지를 회상하였다.

18 글쓴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구면이면서도 시선을 피하고 침묵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했으나, 그 침묵은 글쓴이에게 사는 게 재미없게 느껴지게 한 것이지 침묵 자체가 무료함을 느끼게 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② 엘리베이터는 낯선 이와 소통하지 않아서 사는 게 재미없게 느껴

지는 공간이고, 시골 버스는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사는 맛을 느끼게 한 공간이다. ③ 눈을 마주치고도 못 본 체하기가 거북해 인사를 한 글쓴이의 시선을 피하고 엄마 뒤로 숨는 아이는 글쓴이를 무안하게 했다. ④ 글쓴이가 엘리베이터와 상반되는 체험을 하는 시골 마을 유람에서 낯선 방문객인 글쓴이를 부르는 동네 노인들에 대해 '처음 본 사람에 대한 경계의 빛이란 애초에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곧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타인에게서 경계심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⑤ 글쓴이는 낯선 사람 또한 이웃이며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인데,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인사를 외면한 아이와 구면이면서도 시선을 피하고 침묵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만났으므로 적절하다.

19 '밥'은 보따리장수가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지만 모른 체하지 않고 챙기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오답 해설 ①, ④ 물질적, 수단적 속성과는 거리가 멀다. ② 마을 공동체 구성원과 외부인 간의 유대감, 외부인에 대한 온정을 드러낸다. ⑤ 먹을 것을 나누고 베풀었던 마을 공동체의 문화와 분위기를 드러낸다.

20 B는 상대방인 선배의 실수를 지적하며 탓하고 있으므로 공손성의 원리 중 칭찬의 격률을 어긴 것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A가 체면 유지의 원리를 어겼다는 진술인데, A는 B에게 강요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② A는 경기 패배의 원인을 누구의 탓으로도 돌리지 않고 있다. ③ B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대화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발화를 한 것은 아니므로 협력의 원리 중 관련성의 격률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A가 경기 패배 요인을 분석한 것이 아니므로 A가 패배의 원인이라는 B의 발화는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동의의 격률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02~107쪽

01 ①	02 ②	03 ③	04 ⑤	05 ③	06 ③	07 ⑤	08 ③
09 ③	10 ④	11 ③	12 ②	13 ②	14 ③	15 ③	16 ①
17 ⑤	18 ⑤						

01 (가)에는 상대방을 거절하는 말하기 방법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② 체면 유지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체면 손상은 당혹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한다고 제시하였다. ③ 대화에서 지켜야 할 언어 예절로 공손성의 원리가 제시되어 있으며, 이에 속하는 세부 격률이 언급되어 있다. ④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잔실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전달하라는 질의 격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우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그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동의의 격률을 지키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02 협력의 원리는 대화 상대방과 주고받는 정보의 성격과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며, 체면 유지의 원리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협력의 원리를 지켰다고 해서 꼭 체면 유지의 원리도 지켰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③ 협력의 원리(양의 격률, 질의 격률, 관련성의 격률, 태도의 격률)에 대한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대화의 원리 중 협력의 원리는 대화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협력을, 공손성의 원리와 체면 유지의 원리는 상대방과의 관계 유지에 필요한 예의와 체면 존중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⑤ 체면 유지의 원리에 대한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 (나)에서 글쓴이는 소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사는 게 재미없게 느껴진다고 하였으며, 이따금 시골 마을 유람을 간다고 하였다. 하지만 사는 게 재미없을 때마다 시골 마을 유람을 가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④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경험을 서술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② 시골 마을 유람 경험을 서술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고향 마을에서의 경험을 회상한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4 ⓒ는 글쓴이의 옛날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은 방문객으로, 그가 글쓴이를 환대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가 인사를 하자 ⓐ는 제 엄마 뒤로 숨음으로써 글쓴이를 무안하게 한다. ② ⓐ는 낯선 사람과 인사를 주고받지 않고, ⓑ는 낯선 사람과 인사하며 대화를 시도한다. ③ 글쓴이는 ⓐ와 같은 태도에 대해 사는 게 재미없게 느껴진다고 하였고, 시골 버스에서 낯선 사람과도 소통할 때 사는 맛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는 낯선 사람과 소통하는 인물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④ 글쓴이는 전라도 고창에서 낯선 방문객인 자신을 환대하는 ⓑ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고향 마을 사람들이 ⓒ를 환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05 ㉯는 고추 농사 상황에 대해 묻는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화의 주제에 적합한 발화이다. 즉, 관련성의 격률을 지켰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는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으로, 요령의 격률과는 관련이 없다. ② ㉯는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체면 유지의 원리를 어겼다고 볼 수 없다. ④ ㉰는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대답을 강요한다고 볼 수 없다. ⑤ ㉱는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문제의 책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다.

06 ㉡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표현으로, 칭찬의 격률을 어긴 발화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은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표현을 삼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체면 유지의 원리를 지키고 있다. ② ㉠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표현으로 요령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 ④ ㉢은 곧바로 상대방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동의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⑤ ㉣은 상대방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고 있으므로 상대의 체면을 위협하는 발화로 볼 수 있다.

▶ (라) 결혼_이강백

핵심 정리

갈래	희곡, 단막극, 실험극
성격	희극적, 비판적, 풍자적
주제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
해제	소품을 관객에게 빌리고 돌려주는 방식을 활용해 소유가 빌린 것에 지나지 않으며, 진정한 사랑이 물질적인 것이 아님을 제시함.

07 대화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으나, 협력의 원리를 지키거나 지키지 않음으로써 대화 참여자의 감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오답 해설 ①, ② 체면 유지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바라는 자아의 모습을 인정받고 그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키기를 바라는데, ~ 이 원리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표현을 삼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④ 공손성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는 '대화를 할 때는 언어 예절을 잘 지켜야 상대방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동의의 격률을 지키는 것이 좋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08 후보 1은 유권자의 말에 경청할 것에 대한 다짐을 표현하고 있을 뿐, 유권자에게 자신의 말을 경청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② 후보 1의 연설은 공 돌리기, 자신의 부족함 내세우기와 같은 겸

손하게 말하기 관습을 보여 준다. ④, ⑤ 후보 2의 연설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 내세우기, 자신감 표현하기와 같은 자신 있게 말하기 관습을 보여 준다.

09 ⓒ는 빼앗긴 넥타이를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과 모순되는 발화이므로,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의 전달로 볼 수 없다. 즉, 질의 격률을 어긴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는 상대방에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의 맥락을 알아보려는 질문으로, 상대의 행동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다. ② ⓑ는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대화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관련성의 격률을 지킨 발화이다. ④ ⓓ는 앞선 남자의 발화가 반복된 것으로, 이미 반복되는 정보가 제공되었으므로 대화에 필요한 양의 정보는 충분히 전달되었다. ⑤ ⓔ는 여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발화로 볼 수 없다.

10 (가)에 듣기에 대한 격률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는 하지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경청과 가려듣기 같은 태도는 오늘날에도 필요한 담화 관습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상대방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등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체면을 위협할 수 있는 말이라는 점에서 적절하다. ② 자신을 낮추어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는 것이 겸양의 격률이므로 적절하다. ③ 불필요한 말을 삼간다는 것은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잔실되게 말한다는 것은 헛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것을 뜻하므로 적절하다. ⑤ 자신을 낮추고 공을 남에게 돌리는 후보 1은 겸손하게 말하는 담화 관습을 갖춘 인물이고, 자신의 강점을 내세워 자신감을 피력하는 후보 2는 자신 있게 말하는 담화 관습을 갖춘 인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후보 1은 후보 2와 달리, 〈보기〉의 ㉡과 관련하여 겸손하게 말하는 담화 관습을 갖춘 인물이다.

11 ㉰는 화제를 전환하는 남자의 시도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여전히 넥타이를 빼앗긴 것에 대해 알고 싶다는 여자의 반응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지는 못하는 여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동의의 격률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에서 화성은 동희의 곤란한 질문에 일부러 못 들은 척을 하며, 이후에 관련성의 격률을 지키지 않은 발화를 하고 있다. ② ㉯에서 동희는 화성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행동과 말을 하고 있다. 즉, 질의 격률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④ ㉱에서 남자는 하인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큰소리로 말하고 있다. ⑤ ㉲에서 하인은 남자의 말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있으므로 태도의 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

12 (다)의 '여러분'은 듣는 이가 여러 사람일 때 그 사람들을 높여 부르는 2인칭 대명사이고, '노야'는 남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보기〉의 '노야'는 지현을 높인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나)는 화성과 동희의 대화가 맞다. 하지만 〈보기〉는 유모와 지현의 대화로, 유 소사는 지현으로부터 대화의 내용을 전달받았다. ③ 〈보기〉의 소녀는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다)의 후보 2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내세워 역할 수행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보기〉의 유모는 부인의 말을 지현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라)의 하인은 시간이 경과되면 물건을 회수하는 역할 외에 극의 전개에 개입하지 않는다. ⑤ 〈보기〉에서 부인은 '누실'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라)에서 여자는 여전히 남자를 신뢰하면서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13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명언의 활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이웃을 만난 상황과 시골 버스 안에서 낯선 이웃을 만난 상황을 대조하여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글쓴이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③ '이웃끼리 반가워 말 붙이는 게 뭐가 이상하단 말인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끼리 눈을 마주쳐도 서로 외면하는 것보다는 백배 낫지 않은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④ 어린 시절 고향 마을에서의 경험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⑤ 글쓴이의 엄마와 이웃 동네 아이의 대화, 시골 버스 안에서의 사람들의 대화를 인용하고 있다.

14 [C]는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동시대를 살며 마주치는 사람들은 이웃에 해당하므로, 외면하기보다는 인사를 하고 소통하는 것이 낫다는 글쓴이의 인식이 서술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 친구와 인사를 나누는 글쓴이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A]는 글쓴이가 엄마가 된 이후의 경험에 해당한다. ② [B]의 글쓴이의 엄마는 지나가는 이웃 동네 아이들에게 말을 걸고, 그 부모의 안부를 묻는 인물이다. ④ [C]는 외면하기보다는 인사를 하고 소통하는 것이 낫다는 글쓴이의 인식이 서술되어 있다. ⑤ [D]의 '눈을 마주쳐 놓고도 먼산바라기 하는 게 거북해서 내가 먼저 인사를 했더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 ⓐ는 글쓴이가 작년 여름 시골 마을 유람으로 들르게 된 전라도 고창의 어느 마을이고, ⓑ는 글쓴이가 나고 자란 고향 마을이다. ⓑ는 글쓴이가 보따리장수를 접대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겪으며 자란 곳으로, 어린 글쓴이가 보따리장수를 대접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② 글쓴이는 ⓐ에서 손님 대접을 받으며 방문객을 환대하는 것이 당연했던 ⓑ에서의 기억을 떠올린다. ④ ⓐ는 작년 여름 글쓴이의 체험의, ⓑ는 옛날 글쓴이의 체험의 공간적 배경이다. ⑤ 글쓴이는 시골 버스에서 사는 맛을 경험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시골 버스가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는 그러한 소통과 나눔이 일어난 공간이므로 글쓴이가 시골 버스에서와 같이 사는 재미를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무리 보따리장수라고 해도 저녁 때가 됐는데 그냥 가게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여겼다.'라고 한 것에서 이방인에 대한 환대, 소통과 나눔을 사람 사는 도리로 여긴 ⓑ의 문화를 글쓴이가 체득했음을 알 수 있다.

16 [A]에서 처음 보는 아이들에게 말을 거는 글쓴이의 담화 관습은 젊었을 때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이므로, 개인의 담화 관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A]에서 어른 세대인 글쓴이는 처음 보는 아이들에게 말을 걸지만, 글쓴이의 아이들은 그런 담화 관습을 창피하게 여기고 싫어한다. ③ 글쓴이처럼 이웃 동네 아이들에게 말을 걸던 엄마의 모습이 제시된 [B]와, [C]의 '내가 처음 보는 아이들에게 말을 거는 것은 엄마를 닮아서인지도 모르겠다.'에서 알 수 있다. ④ [C]는 한국어와 다른 언어문화를 가진 서양인들이 처음 보는 사람끼리도 가벼운 인사나 눈웃음을 나누는 모습을, [D]는 글쓴이와 같은 한국어 문화를 가진 사람이 몇 번 얼굴을 마주쳤음에도 고개 뻣뻣이 들고 눈은 딴 데로 돌리고 어색한 침묵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⑤ [D]는 현재의 글쓴이가 엘리베이터 안과 시골 버스 안에서 체험하는 담화 관습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17 ㉱은 보따리장수와의 나눔의 문화가 특히 잘 드러나는 시간적 배경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은 글쓴이의 엄마가 본인이 밭일을 하다가 먹으려고 챙긴 간식이지만 우연히 만난 이웃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 준 것이다. ② ㉡은 처음 보는 사람과 나누는 비언어적 인사의 표현이다. ③ ㉢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이웃을 모른 척하는 것으로, 가벼운 인사나 눈웃음을 나누는 모습과 대조되는 행동이다. ④ ㉣은 모르는 사람들끼리 나누며 살아가는 이야기의 예에 해당한다.

18 이 글의 '나 혼자만 지니고 있거나 남이 가진 것을 나누어 가지지 못하는 삶은 불행하다.'를 통해 소통하지 않는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기〉의 '마주 앉은 사람보다 먼저 더 서럽다'는 서러운 일을 겪은 당사자보다 더 서러움을 느낄 만큼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 모습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는 소통하지 않는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엘리베이터'는 침묵의 공간, 〈보기〉의 '평상'은 사람들 간의 소통이 활발한 공간이다. ② 이 글은 '시골 버스', 〈보기〉는 '국숫집'에서의 경험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④ 이 글의 "비가 와서 너무 걱정이지요?"와 〈보기〉의 '쯧쯧쯧쯧 쯧쯧쯧쯧'은 모두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Plus 〈보기〉 평상이 있는 국숫집_문태준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묘사적, 서정적, 교훈적
주제	평범한 사람들이 주고받는 위로와 교감
해제	열린 공간과 소박한 소재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인정을 표현하고, 의성어에 중의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함.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08~109쪽

01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요령의 격률과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최대화하는 관용의 격률은 ㉠에 해당한다. 상대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하는 칭찬의 격률과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비방은 최대화하는 겸양의 격률은 ㉡에 해당한다. 상대와 자신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일치는 최대화하는 동의의 격률은 ㉢에 해당한다. 02 화성의 "내가 축구화를 어디에 두었더라?"라는 발화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관련성의 격률을 어긴 것이다. 03 ㉮: 모르는 사람과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눔. ㉯: 사는 게 재미없다고 느낌. 04 • 인식: 산다는 것은 타인과 소통하고 나누는 것이므로 소통과 나눔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 • 표현: 대화를 직접 인용하여 소통의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01 요령의 격률과 관용의 격률은 이익과 부담을 기준으로, 칭찬의 격률과 겸양의 격률은 칭찬과 비방을 기준으로, 동의의 격률은 일치와 차이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02 축구부 입단 시험 결과에 대해 묻는 동희의 질문에 대해 축구화를 찾는 화성의 혼잣말은 대화의 주제에 맞는 정보 제공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화성이 관련성의 격률을 어겼으나, 이어지는 동희의 반응으로 보아 우회적으로 화성이 축구부 입단 시험에 떨어졌다는 정보가 둘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03 글쓴이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를 나누지 않고 침묵을 유지할 때 '사는 게 정말 재미없게 느껴진다.'라고 하였다. 반면 시골 버스에서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사는 게 바로 이런 맛이구나'라고 생각했다.

04 이웃과 소통하지 않는 상황과 소통하는 상황을 대비하고, 대비되는 경험에 대한 글쓴이의 반응을 명시해 보이는 것 또한 인식을 진솔하게 담아낸 표현에 해당한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10~111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6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표현은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는 것으로, 체면 유지의 원리를 어기는 말하기 방식이다.

10 우리 말 속담 '말이 씨가 된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에 힘이 있고, 말한 것에는 비밀이 없으니 신중하게 말해야 함을 뜻하는 것으로, 신중하게 말하는 담화 관습이 있음을 드러낸다.

11 자신의 강점을 명시하고 자신감을 내세우는 것은 자신감과 역량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장점은 있으나,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는 겸양의 격률에는 어긋나는 말하기이다.

13 글쓴이는 이웃과 가벼운 인사조차 나누지 않는 엘리베이터 안과는 다른 소통과 나눔의 경험을 시골 마을 유람에서 체험하고 있으며 독자에게 소통과 나눔이 행복한 삶의 방식임을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자에게 시골 마을 유람을 권하는 것은 아니다.

15 글쓴이가 소통과 나눔의 태도를 추구하고 있기는 하나, 〈말을 걸어 봐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방문객으로서 손님 대접을 받은 경험으로, 글쓴이가 방문객을 손님 대접한 것은 아니다.

16 글쓴이는 처음 보는 아이들에게 말을 거는 행동에 대해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3 소통으로 엮는 삶

01. 문학으로 소통하기_길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16~119쪽

01 ③	02 ②	03 ①	04 ⑤	05 ③	06 ③	07 ①	08 ④
09 ⑤	10 ④	11 ⑤	12 ④	13 ④	14 ①	15 ②	16 ③
17 ②	18 ⑤	19 ③	20 ⑤				

01 '나아갑니다', '갑니다', '푸릅니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 높임의 평서형 종결 어미 '-ㅂ니다'와 '잃어버렸습니다', '통했습니다'에서 '-습니다'가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돌', '풀'과 같은 향토적인 자연물이 사용되었으나 화자가 처한 부정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있을 뿐 친근한 정서는 확인할 수 없다. ② 담담하고 고백적인 어조를 보여 준다. ④ 무언가를 잃어버린 화자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나 과거와 대비되지는 않는다. ⑤ '그림자'의 어두운 이미지는 화자가 처한 암담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푸릅니다'처럼 색채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애상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

02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잃은 것'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서고 그 길을 계속 걷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대상의 변화 과정이나 이를 관찰하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화자가 작품 속에 '나'로 드러나 있다. ③ 1연에서 '무얼' 잃어버린 상황과 그로 인해 '길에 나아'간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④ 화자가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나선 길에 돌이 연달아 이어져 있고, 쇠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은 부정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⑤ 7연을 통해 '내가 사는 것'은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임을 알 수 있다.

03 화자는 잃은 것을 찾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눈물짓다가 하늘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낀다.

오답 해설 ② 화자는 '잃은 것', 즉 본질적 자아를 찾아 길을 걷고 있다. '하늘'은 화자가 자아 성찰을 통해 현재 상황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으로, 삶이 지닌 가치를 부정하는 공간으로 볼 수 없다. ③ '돌담'과 '쇠문'은 화자가 '잃은 것'을 찾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하늘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낀다. ④ 화자는 새로운 시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본질적 자아를 찾으려고 한다. ⑤ 화자는 '담 저쪽'에 있는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해 계속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은 나타나지 않는다.

04 화자는 '담 저쪽'에 본질적 자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찾으려 하지만, '쇠문', '돌담'과 같은 장애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잃은 것'을 찾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화자의 인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1연에 화자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길에 나아간다는 것이 나타난다. ②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에 화자가 길을 걷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③ '쇠문'은 화자와 본질적 자아를 단절시키는 대상이다. ④ 4연에서 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데, 이는 본질적 자아를 찾는 화자의 여정이 지속됨을 의미한다.

05 [A]에서 '쇠문'이 '굳게 닫'혀 있는 상황은 '담 저쪽'에 있는 본질적 자아와 화자를 단절시킨다. 따라서 화자가 잃은 것, 즉 본질적 자아를 찾는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본질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를 단절시키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지 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② 화자가 잃어버린 본질적 자아를 찾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 ④ 화자의 현재 상황이 절망적임을 보여 줄 뿐 미래 상황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⑤ 화자가 '잃은 것'에 닿지 못하는 원인을 나타낼 뿐,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06 ㉢의 '길'은 화자가 잃은 것을 찾는 여정, 본질적 자아를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길'이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다는 것은 화자의 여정이 끝없이 이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황의 대조를 통해서 희망을 드러낸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주머니'를 더듬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화자의 구체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다. ② '돌'이 연달아 있다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과정이 길 것임을 드러낸다. ④ '돌담'은 화자가 잃은 것, 즉 화자의 본질적 자아와 화자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여기에서 '눈물'은 본질적 자아를 찾지 못하는 화자의 안타까움을 보여 준다. ⑤ '풀'은 생명력을 의미하므로,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은 화자의 여정이 힘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07 화자는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만 '쇠문'으로 인해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화자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잃은 것'을 찾는 여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쇠문'은 단절과 소통의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는데 현재 그것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은 화자와 본질적 자아가 단절된 상태임을 보여 준다. ③ '쇠문'으로 인한 '그림자'는 어두움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며 본질적 자아와 단절된 부정적인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④ 5연에서 화자는 본질적 자아를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눈물짓고 있다. ⑤ 열리고 닫히는 속성이 있는 문의 특징을 고려할 때, 현재 닫혀 있는 쇠문이 열려야 화자가 본질적 자아와 만날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08 '이 길'은 화자가 '담 저쪽'의 본질적 자아를 찾는 길로, 화자는 '잃은 것'을 찾는 것이 자기 삶의 이유라고 말한다. 즉, [B]에는 화자가 길을 걷는 이유와 그것이 지니는 의미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길'을 통해 '잃은 것'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길을 걷는 이유를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기 때문으로, 사는 이유를 '잃은 것을 찾'기 때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 것은 ~ 까닭'이라는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서 본질적 자아 추구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③ '담 저쪽'에 남아 있는 '나'는 본질적 자아이며, 이 길을 걷고 있는 '나'는 현실적 자아이다. ⑤ 화자는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잃은 것)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인다.

09 '(무엇을) 잃어버렸습니다'에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목적어)을 생략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었-'이라는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② 무언가를 잃어버린 화자의 현재 상태를 보여 준다. ③ 상대 높임의 평서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담담하게 진술하고 있다. ④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로 감각적인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10 화자가 눈물짓는 이유는 부정적인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자신의 본질적 자아를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부정적 현실과 타협했다는 내용은 〈보기〉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긴 그림자'를 드리운 '쇠문'은 화자가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과정을 어렵게 하는 대상으로, 당시 우리 민족이 처한 부정적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잃은 것'으로 표현되는 본질적 자아, 참된 자아는 돌담의 저쪽에 있는 상황이다. ③ '길'은 진정한 자아를 찾는 화자의 여정을 의미하는데, 그 길이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자아를 찾기 위한 화자의 여정이 지속될 것임을 보여 준다. ⑤ 화자는 '하늘'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이는 일제 강점하에서 지식인으로서 소극적으로 살아갔던 작가의 내면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1 '길'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를 바탕으로 본질적 자아를 찾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으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ㅂ니다'는 상대 높임의 평서형 종결 어미로, 이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길'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본질적 자아를 찾는 화자의 여정과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③ '잃은 것'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서 화자가 눈물짓고 있는 것을 통해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담담하고 고백적인 어조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2 [D]에서 화자는 하늘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이는 화자의 자아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화자가 [D]에서 현실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화자가 길에 나아가는 이유는 무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② 화자가 걷는 길은 돌담을 끼고 있는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③ '길'이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화자의 여정이 계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⑤ 화자가 힘든 여정이지만 길을 계속 걷겠다는 데에서 화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13 '하늘'은 본질적 자아를 찾지 못하고 안타까움을 느끼는 화자에게 부끄러움을 일깨워 주는 존재이자 자아 성찰의 매개체이다.

오답 해설 ① '주머니'는 화자가 잃은 것을 찾기 위해 뒤지는 곳이다. ② '돌'은 화자의 무거운 심리를 드러내는 대상이다. ③ 아침에서 저녁으로, 다시 아침으로 이어지는 길은 본질적 자아를 찾는 화자의 여정이 계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아침' 또한 이러한 의미로 볼 수 있다. ⑤ '풀'은 생명력을 의미한다.

14 '돌담'은 길을 가로막고 있으며 '담 저쪽'의 본질적 자아와 화자를 단절시킨다. 즉, 화자는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렸으며, 이것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쇠문'은 본질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를 단절시킨다. ③ '돌담', '쇠문'으로 단절된 본질적 자아를 찾는 과정에서 화자가 느낀 절망감이 '눈물'로 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화자는 본질적 자아를 잃은 현실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이는 자아 성찰을 게을리했던 자신에 대한 반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⑤ 화자는 잃어버린 것, '담 저쪽'의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서고 있다.

15 화자의 시선이 지상, 즉 '길, 돌담, 쇠문'에서 '하늘'로 이동하면서 답답하고 암울했던 화자의 심리가 다짐과 염원으로 바뀌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작품 속에 '나'로 제시되어 있다. ③ '돌'이나 '풀'은 화자가 처한 암담한 상황, 화자의 답답한 심리를 드러내고, '하늘'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한다. ④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길을 걷는 화자의 상황이 반전되지는 않는다. ⑤ 화자의 상황이 담담한 어조로 제시되어 있으나 각 연이 점층적으로 배치되어 있지는 않다.

16 현실적 자아인 ㉡은 본질적 자아인 ㉠이 '담 저쪽'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주머니'는 화자가 잃은 것을 찾기 위해 더듬어 본 대상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현실적 자아가 살아가는 이유, 길을 계속 걷는 이유는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해서이다. ② 본질적 자아를 찾는 여정을 '길'로 표현하고 있다. ④ 현실적 자아는 길을 계속 걸으며 본질적 자아를 찾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 ⑤ '쇠문'은 현실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를 단절시키는 대상이다.

17 상대 높임의 평서형 종결 어미 '-ㅂ니다'를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이나 화자의 내면을 담담하게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에 대한 풍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반복은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인데, '-ㅂ니다'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평서형 종결 어미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다. ④ 상대 높임의 종결 어미는 격식을 갖춘 경어체에 해당한다. ⑤ 현재형 진술로 화자가 길을 걷는 것이 계속된다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18 '잃은 것'을 찾기 위해 길을 걷는 화자는 '돌담'을 더듬다가 '눈물'을 흘린다. 이것은 참된 자아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돌담'이 이어진 현실은 본질적 자아를 찾는 화자의 여정에 있어 장애물을 의미한다. ② '쇠문'은 현실적 자아와 참된 자아를 단절시킨다. ③ '하늘'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④ 화자는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담 저쪽에' 있는 자기 자신임을 인식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19 〈보기〉는 이 글이 창작된 시대에 대한 설명이다. 이 글은 '그림자'의 어두운 이미지를 통해 작품이 창작되었던 당시의 암울한 상황을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는 화자가 무언가, 즉 참된 자아를 잃어버린 상황을 보여 준다. ② ⓑ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한 행동을 의미한다. ④ ⓓ의 '하늘'은 화자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자아 성찰의 계기가 되는 대상이다. ⑤ ⓔ는 화자가 살아가는 이유에 해당한다.

20 화자는 '잃은 것'을 찾으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는 〈보기〉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실에 대한 실천적인 대응이라기보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가 길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언가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화자는 돌담을 끼고 난 길을 걷다가 하늘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낀다. ③ 화자가 걷는 길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불모의 공간이라는 것은 화자가 본질적 자아를 찾는 과정과 거기에 수반되는 자아 성찰의 과정이 쉽지 않음을 드러낸다. ④ 화자는 잃어버린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해 계속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이것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적인 행동 의지로 나타나진 않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방식으로 현실에 다가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20~123쪽

01 ②	02 ③	03 ③	04 ⑤	05 ②	06 ⑤	07 ④	08 ①
09 ③	10 ⑤	11 ②	12 ①	13 ⑤	14 ⑤	15 ④	16 ④
17 ③							

▸ (나) 길_정희성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고백적, 자전적, 현실 비판적
주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양심을 지키며 살겠다는 다짐
해제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과 화자의 가치관을 대조하며 주제를 형상화함.

01 (가)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선 화자의 내면이 화자의 담담하고 고백적인 어조를 통해 드러난다. (나)는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다짐이 고백적인 어조를 통해 드러난다.

오답 해설 ① (가)는 '돌', '풀'을 통해 화자가 걷는 길의 모습과 화자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늘'을 매체로 하여 화자가 자아 성찰을 하고 있다. 한편 (나)의 '하늘'은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화자가 자신의 양심과 가치관에 따라 당당하게 살아가려는 태도를 형상화한 것이며, '바람'은 화자에게 가해지는 유혹이나 시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물을 매개로 하여 시상을 전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나)의 '내 사람아'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친근감과는 거리가 멀다. 한편 (가)는 화자의 내면을 고백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청자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④ (가)에서는 과거형 선어말 어미와 현재형 종결 어미를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나)에서는 과거형 선어말 어미와 현재형 종결 어미, 명령형 종결 어미를 통해 화자의 가치관과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⑤ (가)와 (나) 모두 작품 속에 화자가 '나'로 제시되어 있다.

02 일반적인 문장의 어순을 도치하여 의도를 강조하는 도치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화자의 시선은 땅 위에 있는 것, 즉 '길', '돌담', '쇠문'에서 하늘로 이동하고 있다. ② '-ㅂ니다'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ㅂ니다'는 상대 높임의 평서형 종결 어미로, 이를 통해 화자의 성찰과 다짐을 고백하고 있다. ⑤ '길'의 상징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3 ㉡은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화자가 자신의 양심과 가치관에 따라 당당하게 살아가려는 태도를 형상화한 것으로,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 역시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로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린 화자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지만, ㉡은 화자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지 않다. ② ㉠은 화자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지만, ㉡은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특정 정서를 유발하고 있지 않다. ④ ㉡은 화자가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당당하게 사는 삶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일 뿐, 화자가 이를 통해 현실을 극복하려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은 참된 자아를 잃어버린 화자에게 자아 성찰, 반성의 계기가 되고, ㉡은 현실에 상처받은 '내 사람'이 자기의 소신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04 ⓔ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불모의 현실로 화자가 처한 암담한 상황, 또는 작품이 창작되었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선다. ② ⓑ에서 '돌'이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의 '쇠문'은 단절의 의미를 나타낸다. ④ ⓓ의 '돌담'은 화자가 본질적 자아를 찾는 데에 장애물이 된다.

05 〈보기〉에 따르면 본질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괴리된 이유는 왜곡된 규범 때문이 아니라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쇠문'은 본질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를 단절시키는 대상으로, 화자가 느끼는 두 자아 사이의 거리감과 그로 인한 절망감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화자는 '담 저쪽'에 있는 본질적 자아에 닿지 못하는 상황에서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데, 본질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사이의 거리를 느끼는 것은 왜곡된 현실에서의 자신의 태도와 위치에 대한 각성에서 비롯된다. ④ 화자가 '길을 걷는' 이유는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함이다. ⑤ 화자는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잃은 것', 즉 본질적 자아를 찾는 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06 '법관'이 명예가 있는 삶, 인정받는 삶을 의미한다면, '시'나 '선생'은 아버지의 바람과 다른 삶을 사는 화자의 상황을 보여 준다. 즉,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화자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공간에 대한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감각적인 이미지는 사용되지 않았다. ③ 대조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지만, 역설적 표현은 확인할 수 없다. ④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07 '법관'이 되라던 아버지와 '돈을 잘 벌기를 바라셨'던 어머니는 화자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셨다고 볼 수 있다. 즉, ㉮는 화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법관'은 명예로운 삶을 의미한다. ② '법관'으로 명예를 지니고 사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세속적으로 성공한 삶에 해당한다. ③ 어머니가 화자가 '돈을 잘 벌기를 바라'신 이유는 평생 가난에 찌들었던 당신과 달리 화자가 풍족한 삶을 누리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법관'이 되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모두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으로, 세속적인 관점에서 성공한 삶이라 할 수 있다.

08 〈보기〉의 '공주'는 '바다'의 정체를 몰랐던 '나비'의 순진함을 의미하므로, 현실에 맞서기 어려운 상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나)의 '궁티'는 가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화자가 선택한 가치관에 따라 사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화자는 가난하지만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양심을 지키며 살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서기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나)의 화자는 '우리들의 시대는 없는 사람이 없는 대로 / 맘 편하게 살도록 가만두지 않는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보기〉의 '나비'는 '바다'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바다'로 내려갔다가 '지쳐서 돌아'오게 된다. ③ (나)에서 자신의 소신에 따라 당당하게 사는 삶을 지향하는 화자에게 '바람'은 유혹이나 시련을 의미한다. 〈보기〉의 '수심'은 '나비'가 몰랐던 '바다'의 성질로, 냉혹한 현실을 뜻한다. ④ (나)에서 화자는 '우리들의 시대'에 노여움을 느끼고, 〈보기〉에서 '나비'는 '바다'의 냉혹함에 상처받는다. ⑤ (나)의 화자는 유혹이나 시련에 '얼굴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과 양심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한다. 〈보기〉에서 '바다'의 냉혹함을 몰랐던 '나비'는 '바다'에 내려갔다가 좌절하고 지쳐서 돌아온다.

Plus 〈보기〉 바다와 나비_김기림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주지적, 상징적, 감각적
주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
해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감을 선명한 색채 이미지를 통해 보여 줌.

▶ (나) 산길에서_이성부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성찰적, 교훈적, 의지적
주제	산길을 걸으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음.
해제	산길을 걷는 일상적 체험을 통해 평범한 민중들의 삶의 흔적이 모여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역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주체임을 자각함.

09 (가)의 '길'은 화자가 잃은 것을 찾기 위해 걷는 물리적인 공간이자 화자가 참된 자아를 찾는 삶의 여정을 의미한다. (나)의 '길'은 화자가 걷는 산길이자 평범한 민중들의 흔적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역사를 의미한다. (가)와 (나)는 모두 이러한 상징적 시어를 통해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나) 모두 평서형 종결 어미가 반복되고 있다. ② (가)와 (나) 모두 반어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가)는 땅 위에서 하늘로 시선이 이동하며 시상이 전개되지만,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에도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에서 설의적 표현은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나)의 '신명 나지 않았더냐'에서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나)는 '자금 조릿대밭 눕히며 소리치는 바람', '이름 모를 풀꽃들 문득 나를 쳐다보는 수줍음'에서 의인법이, '짐승처럼 그이들 옛 내음이라도 맡고 싶어'에서 직유법이 나타나고 있지만, 화자의 교훈적 의도는 확인할 수 없다.

10 화자는 '잃은 것', 즉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서고 그 과정이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어서 '눈물'을 흘린다. 이것은 어두

운 시대에 대처하는 자아의 태도 및 고뇌와 관련된 것으로, 외향적 행동성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하늘'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로 화자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 ② '담 저쪽'의 '나'는 화자가 '잃은 것'이다. 화자는 그것을 찾는 여정을 계속할 것임을 노래하고 있다. ③ '쇠문'이 굳게 닫혀 '긴 그림자를 드리'운 상황은 작품이 창작되었을 당시의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④ 화자가 잃어버린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해 길을 걷는 것은 순수한 내면의 의지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11 1연에서 화자가 '길에 나아'간 이유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ㄱ). 그리고 7연에서 화자는 자신이 사는 이유를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임을 밝히고 있다(ㄴ). 또한 '쇠문'은 열림과 닫힘, 즉 소통과 단절의 의미를 담고 있다(ㄹ).

오답 해설 ㄷ. 화자는 고백적인 어조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으나, 구체적인 청자가 설정되지는 않았다. ㅁ. 화자는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린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과거 회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12 (나)의 '이 길'은 산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공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 '나는 안다'를 반복하여 현실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③ '짐승처럼' 선인들의 '옛 내음'을 맡고 싶다는 식의 감각적 표현을 통해 길을 만든 사람들의 발자취를 느껴 보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④ '신명 나지 않았더냐'는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한 설의적인 표현으로, 산길을 걷는 데서 느끼는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다. ⑤ '물꽃들'이 '나를 쳐다'본다고 한 것은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한 표현에 해당한다.

13 ㉠에서 화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다가 '하늘'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는 현실에서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반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은 화자가 평범한 존재들의 흔적이 모여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깨달음을 얻는 공간으로, 화자의 반성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은 화자가 '잃은 것', 즉 '담 저쪽'의 본질적 자아를 찾으려는 목적을 지니고 걷는 공간이다. 반면 ㉡은 화자가 현재 걷고 있는 장소이다. ② (가)의 화자는 진정한 자아,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상실감을 느끼며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반면 (나)의 화자는 상실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 ③ ㉠에서 화자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지만, ㉡은 화자가 평범한 민중들의 흔적이 모여 역사를 만들었고, 우리 역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주체임을 자각하는 공간이다. ④ ㉠은 화자가 절망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공간인 반면, ㉡은 화자가 '집', '서울'을 떠나는 일에 신명을 느끼게 하는 곳으로, 화자가 걸으면서 기쁨을 느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14 '길'의 의미는 잃은 것을 찾기 위해 화자가 걷는 공간에서 화자의 삶의 여정으로 확장된다. 이를 통해 잃어버린 본질적 자아를 찾는 것이 화자에게 있어 삶의 목적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길'을 걸으며 잃어버린 본질적 자아를 확인하고 그것을 찾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린다. 이는 시대적 상황과 관련지을 때 당대의 절망적인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쇠문'은 진정한 자아와 화자를 단절시키는 대상이다. ③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는 불모의 현실은 절망적인 시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화자가 걷는 길, 즉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이 험난함을 의미한다. ④ 화자가 길을 걷는 이유는 '담 저쪽'의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함이며, 그것이 화자가 살아가는 이유임을 알 수 있다.

15 ⓐ는 불필요하거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이 실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깨달음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는 화려하지 않고 소박한 존재로, 평범한 민중들을 의미한다. ② ⓑ에서 화자는 산길을 걸으며 그 길을 만든 이들의 흔적을 느끼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다. ③ ⓒ는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비칠거리는 발걸음'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의 '그이들'은 산길을 만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화자는 산길을 걸으며 이전에 길을 만든 사람들처럼 자신도 포기하지 않고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16 화자는 산길을 걸으며 평범한 존재들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남기고 사라지며 그 모든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오답 해설 ① 모든 삶은 흔적을 남기고,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역사를 만들었던 사람들처럼 자신도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주체가 되어 힘든 상황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걸어갈 것임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화자는 산길에서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도', '힘을 다하여 비칠거리는 발걸음들도' 무언가를 남기고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는다. ⑤ 화자는 힘든 현실에서 굴복하지 않고 역사를 만들어 가는 주체가 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데,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17 화자가 '서울을 버리는 일'에 '신명' 났던 것은 산길을 걷는 일에서 기쁨을 느꼈기 때문인데, 이때의 산길은 〈보기〉에 따르면 물리적 공간에 해당한다. 하지만 화자가 그 산길에서 역사를 만들어 간 사람들의 흔적을 느끼며 자신도 역사를 이어 가는 주체가 될 것임을 다짐하는 시점에서 산길은 역사적 공간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가 역사를 이어 가기 위해 서울을 버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화자가 걷는 길은, 산길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선인들이 흔적을 남기며 만들어 놓은 역사로 그 의미가 확대된다. ② '옛 내음'은 산길을 만든 사람들의 자취를 의미한다. ④ 화자는 산길을 걸으며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흔적을 남기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⑤ 화자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이들을 따라 오르'겠다고 다짐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역사를 만든 이들의 자취를 따라가고 동시에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주체임을 자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24~125쪽

01 ㉮: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림. ㉯: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한 삶을 살아감. **02** ㉠: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걷는 물리적 공간이자, 본질적 자아를 회복하기 위한 삶의 여정을 의미한다. ㉡: 잃어버린 것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자, 본질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를 단절시키는 방해물을 의미한다. **03** 이 글과 〈보기〉는 모두 일제 강점하에 창작된 작품들이다. 이 글의 화자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찾아 길에 나선다. 이는 부정적 현실 속, 본질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괴리를 인식한 것이며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한 노력을 보여 주는 것이다. 〈보기〉의 화자는 현실이 차갑고 냉혹하다고 인식하면서 '초인'이 올 미래를 준비하는 자기 희생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04** 시행의 낭독 속도에 변화를 주고, 의미를 강조한다. **05** 돌담 저쪽에 있는 본질적(이상적) 자아를 찾기 위한 화자의 여정

01 화자는 본질적 자아를 잃었음을 인식하고 길에 나서고, 그것을 찾는 과정이 절망적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길을 걷겠다고 노래한다.

02 '길'은 화자가 걷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의미와 삶의 여정, 목적을 위한 과정의 의미를 지닌다. '쇠문'은 열리고 닫히는 문의 속성을 이용하여 이중적 의미를 보여 준다.

03 이 글과 〈보기〉 모두 일제 강점하에 창작된 작품들로 당대 현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에 대한 화자의 대응 방식은 상이하다.

Plus 〈보기〉 광야_이육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의지적, 저항적, 상징적
주제	조국 광복과 민족의 이상 실현에 대한 의지와 염원
해제	일제 강점기의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조국의 광복을 염원하는 미래 지향적인 신념을 드러냄.

04 쉼표는 문장 중간에 쉬어 가는 곳이나 멈추는 곳을 표시할 때 사용한다.

05 '돌담'은 화자가 잃은 것을 찾는 여정에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화자가 찾는 것이 이상적 자아라고 본다면 '돌담'은 이상적 자아를 찾는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26~127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7 화자는 '돌담'을 사이에 두고 본질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괴리되었다고 인식한다.

08 '길'은 화자가 잃은 것을 찾는 공간이자 본질적 자아를 회복하기 위한 삶의 여정을 의미한다.

10 '눈물'은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과정에서 화자가 느끼는 어려움과 절망감을 뜻한다.

12 화자는 '쇠문'으로 인해 본질적 자아와 단절된 상태지만 그것을 찾는 여정을 계속할 것임을 다짐한다. 하지만 긍정적 미래를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

17 힘들고 암울한 현실에서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태도를 보일 뿐, 적극적인 행동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20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은 화자가 걷는 길의 부정적인 상황을 보여 준다.

4 세상을 밝히는 논증의 기술

01. 비판적 읽기와 주체적 수용_동물도 권리가 있을까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32~137쪽

01 ④	02 ③	03 ⑤	04 ③	05 ③	06 ③	07 ①	08 ⑤
09 ④	10 ④	11 ④	12 ③	13 ④	14 ①	15 ③	16 ①
17 ②	18 ⑤	19 ⑤					

01 설득을 목적으로 주장하는 글로, 글쓴이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독자의 생각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 대한 설명이다. ② 교술 갈래에 속하는 수필에 대한 설명이다. ③, ⑤ 서사 갈래 및 극 갈래에 대한 설명이다.

02 과학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동물이 고통을 느낄 때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인간이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하다는 것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무리 생활을 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코끼리를 사람들의 관람을 위해 동물원의 울타리 안에서 외롭게 살아가게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고 싶어 한다. ~ 저마다 타고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려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과학자들은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동물과 인간이 감각을 느끼는 능력이 비슷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 ㉠은 인간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의 욕구를 돌아보지 않은 채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관행을 가리킨다. 방목형 축산은 동물 복지를 고려한 방식으로, 효율만을 우선시하는 공장식 축산과 대비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④ 인간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의 욕구를 돌보지 않는 산업의 예에 해당한다.

04 이 글의 논증을 구성하는 핵심 주장은 '동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이다.

오답 해설 ①, ② '척추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신경 체계가 인간과 같다.'와 '동물이 내는 소리 중 인간이 고통을 느낄 때 나타내는 표현과 유사한 것이 있다.'는 주장의 '이유'에 해당하는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해당한다. ④ '동물에 대해 인간과 같은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예상 가능한 반대 의견에 해당한다. ⑤ '인간의 발달 단계상 갓난아이의 사고력과 언어 능력은 동물과 다를 바 없다.'는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의 근거에 해당한다.

05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직접 느낄 수는 없지만 행동이나 소리를 통해 타인이나 동물의 고통을 짐작하고 인지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⑤ 1문단에 대한 이해이다. ④ 3문단에 대한 이해이다.

06 '사물이나 사건이 성립되는 까닭'은 '요인(要因)'의 사전적 의미이다. ⓒ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성립이나 효력 발생 따위에 꼭 필요한 성분. 또는 근본 조건'이다.

07 이 글의 글쓴이는 동물권의 관점에서, 〈보기〉의 A는 축산물의 안전성 관점에서 공장식 가축 사육 방식을 반대한다. 즉, 이 글의 글쓴이와 〈보기〉의 A는 모두 공장식 가축 사육 방식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보기〉의 A는 이 글의 글쓴이와 달리 동물권의 관점이 아닌 축산물의 안전성 관점에서, 즉 동물의 고통보다는 그것을 소비하는 인간이 입을 유해성을 우려하여 공장식 가축 사육을 반대하고 있다. ③ 〈보기〉의 B는 이 글의 글쓴이와 달리 동물이 받을 스트레스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 ④ 〈보기〉의 B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이 글의 글쓴이는 공장식 가축 사육의 효율성을 인간이 추구하는 이기심으로 보고 이를 부정적으로 여긴다. ⑤ 〈보기〉의 A는 공장식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B는 공장식 축산물의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여긴다.

08 과학적 연구 결과(척추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신경 체계가 인간과 근복적으로 같음.)를 근거로 제시하여 동물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독자의 삶에 미칠 영향을 제시하는 자료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공장식 축산, 동물원 사례를 나열하여 동물의 욕구를 도외시하는 관행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② 철학자 피터 싱어,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 인도의 민족 운동 지도자 간디의 견해를 인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뒷받침하고 있다. ③ '철조망으로 된 좁은 우리나 동물원에서 동물을 기르는 관행'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부당한 차별임을 밝히고 있다. ④ '과연 동물은 물건에 불과할까? 동물도 인간처럼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물음을 통해 동물의 권리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09 인간의 이기심과 즐거움을 위해 동물의 욕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는 존재인 동물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이 글쓴이의 생각이다. ④는 동물을 기르는 행동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으로, 동물의 욕구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을 비판하는 글쓴이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글 전체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② 1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⑤ 3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10 ㉠과 ④의 '오르다'는 모두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움직여 가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값이나 수치, 온도, 성적 따위가 이전보다 많아지거나 높아지다. ② 길을 떠나다. ③ 지위나 신분 따위를 얻게 되다. ⑤ 탈것에 타다.

11 Ⓐ: ㉮와 ㉰는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존재임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다. Ⓑ: ㉯는 동물을 차별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뒷받침하는 권위 있는 학자의 견해이다. Ⓒ: ㉱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일이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임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다.

오답 해설 ㉮ 인간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의 욕구를 돌아보지 않는 사례이다. ㉰ 피부색을 기준으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관행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역사적 사실이다.

12 ⓐ는 자기가 속한 인종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인종을 차별해도 된다는 인종 차별주의와 다를 바 없는 입장이다. 즉, ⓐ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을 차별해도 됨을 주장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는 인간의 고통과 동물의 고통이 다르다고 본다. ② ⓐ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④ ⓐ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을 차별해도 된다는 입장이지, 동물의 종에 따라 차별의 유무가 결정된다는 것이 아니다. ⑤ 피부색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인종 차별주의와 달리 ⓐ는 종을 기준으로 인간과 동물을 차별한다.

13 〈보기〉의 [가]는 공장식 축산이 인간의 건강마저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글의 글쓴이가 공장식 축산을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는, 공장식 축산이 인간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의 욕구를 존중하지 않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이기심을 위해 동물의 욕구를 존중하지 않는 방식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글쓴이가 인간의 건강을 이유로 공장식 축산을 우려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이 글과 〈보기〉 모두 공장식 축산이 동물을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물건으로 여긴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② 이 글에서는 닭을 좁은 틀에 가두어 키우는 공장식 축산의 사례를, 〈보기〉에서는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듯이 가축을 사육하는 공장식 축산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③ 이 글에서는 '인간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 공장식 축산을 한다고 하였고, 〈보기〉에서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대량의 축산물을 최대한 빨리 생산해 내'기 위해 공장식 축산을 한다며 그 의도를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⑤ 이 글에서는 동물도 고통을 느낌을 주장하였다. 〈보기〉의 [가]도 공장식 사육을 당하는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질병에 시달리'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것이 가축의 생명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했으므로, 역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14 (나)는 유기 동물의 수 및 이와 관련한 예산 지출 통계와 같은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만, (가)에는 통계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② (가)는 스티븐 핑커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와 같이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③, ④ (가)는 동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임을 내세우고 있으며, (나)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성숙한 사회를 향한 한 걸음'임을 내세우고 있다. ⑤ (가)에 언급된 공장식 축산, 동물원, 동물 실험은 동물권 보장 주장과 반대되는 현재의 실태에 해당한다. 또한 (나)의 다섯 번째 이미지에 표시된 찬성 여론 55퍼센트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15 인종 차별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으나 이제는 그것이 명백한 차별이며 옳지 않다고 인식된다. 하지만 인종 차별과 관련한 인식 전환의 계기 및 요인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피부색은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다. ② 동물권의 기본은 동물의 본능에 맞게 행동하도록 존중하는 것이다. ④ 간디에 따르면, 동물을 대하는 태도,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국가의 도덕성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⑤ 동물권을 존중하지 않는 관행으로 좁은 우리에서 동물을 기르는 공장식 축산, 야생 동물의 타고난 환경과 전혀 다른 곳에서 동물을 기르는 동물원, 화장품이나 세제 따위를 만들기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동물 실험을 언급하고 있다.

16 ㉠은 인종 차별주의에 빗댄 종 차별주의라는 개념을 내세워, 종의 차이를 근거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의 옳지 않음에 대해 주장했으므로, (가)의 주장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동물을 비롯한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국가의 도덕성 수준을 드러낸다고 본 것은 ㉡이다. ③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약자 전반의 권리 증진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린 것은 ㉢이다. ④ ㉣이 인간과 동물의 권리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내세우는 논리는 이성적 사고와 언어 사용의 차이에 있다. 즉, ㉣이 일부의 동물이 낮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본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⑤ ㉤이 주장하는 동물권은 학교에 다닐 권리나 투표할 권리와 같이 인간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동물에게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본능을 존중하자는 것이다.

17 두 번째 이미지에서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이 2015년 1조 9천억 규모에서 2021년 3조 4천억 규모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반려동물 관련 세금으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관련 세금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다섯 번째 이미지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 여론이 있음을 알 수는 있으나, 그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④ 네 번째 이미지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한 국가가 소개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 국가에 나타난 구체적 변화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⑤ 세 번째 이미지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으로 유기 동물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으나, 보유세 도입 후 감소되는 유기 동물의 수는 알 수 없다.

18 ⓔ는 '어떤 태도로 상대하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대신하다'는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는 '어떤 사실 따위를 인정하고 용납하거나 이해하고 수용하는'의 뜻이므로,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는'을 뜻하는 '인정하는'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는 '동식물을 보살펴 자라게 하는'의 뜻이므로, '동식물을 돌보아 기르는'을 뜻하는 '키우는'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③ ⓒ는 '수나 분량이 본디보다 적어지거나 무게가 덜 나가게 되었고'의 뜻이므로, '양이나 수치가 줄었고'를 뜻하는 '감소했고'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④ ⓓ는 '어떤 사상이나 이론, 현실, 사실, 진리 따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외시하는'의 뜻이므로, '상관하지 아니하거나 무시하는'을 뜻하는 '도외시하는'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9 자료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인 ㉰로 볼 때, (나)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따른 문제, 예상되는 역기능에 대한 언급이 없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찬성 입장에 치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기준인 ㉮를 적용하여 평가한 내용이다. ③, ④ 첫 번째, 두 번째 이미지를 통해 문제와 관련한 사회·문화적 맥락이 환기되고 있으므로, 자료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인 ㉯를 적용하여 평가한 내용이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38~141쪽

01 ② 02 ② 03 ⑤ 04 ⑤ 05 ① 06 ⑤ 07 ⑤ 08 ①
09 ③ 10 ④ 11 ② 12 ②

01 (가)에서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나)에서는 성숙한 사회를 향한 변화에 해당하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성숙한 사회로 진보하는 사회적 변화에 동참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 드러난 생각으로, (나)와는 관련이 없다. ③ (가)는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며 생각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여론과 사회적 통념의 수용은 (나)와도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④, ⑤ (나)에 드러난 생각으로, (가)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

02 (가)는 동물의 생물학적 구조가 인간과 같은 고통을 감각할 수 있으므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폭력적 관행을 반성하고 동물의 욕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폭력적 관행을 줄인다고 해서 고통에 대한 감각 능력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⑤ (가)의 2문단에서 알 수 있다. ③ (가)의 3문단에서 알 수 있다. ④ (가)의 1문단에서 알 수 있다.

03 비율의 표시는 원그래프와 막대그래프로, 추이의 표시는 꺾은선그래프와 막대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오답 해설 ① 글씨의 색, 크기, 굵기 등에 차이를 줌으로써 주요 정보가 부각되고 있다. ② 각 이미지를 차례대로 제시함으로써 각각의 쟁점에 순차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 ③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이미지의 구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명시적인 이미지로 내용을 표현하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04 두 번째 이미지를 통해 반려동물 전성시대의 이면에 유기 동물 문제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매해 200억 이상의 예산이 지출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국가가 어디인지는 답할 수 있으나, 해당 국가 국민이 인식하는 제도 시행 효과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②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와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결과는 제시되어 있으나, 그 원인은 알 수 없다. ③ 세 번째 이미지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효과로 재정 부담 축소를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예산 절감 규모를 확인할 수는 없다. ④ 다섯 번째 이미지에서 찬성 여론 55% 이외에 45% 규모의 반대 또는 기타 여론을 알 수 있으나, 반대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

05 ㉠은 '내면적인 심리 현상을 얼굴, 몸, 행동 따위로 드러내다.'의 뜻으로, ①의 '나타내다'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②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글, 그림, 음악 따위로 드러내다. ③ 보이지 아니하던 어떤 대상이 모습을 드러내다. ④, ⑤ 어떤 일의 결과나 징후를 겉으로 드러내다.

06 이 글의 글쓴이는 동물의 욕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와 관행을, 〈보기〉의 화자는 음식을 상품으로만 소비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데, 둘 모두 육식 및 채식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④ 이 글의 글쓴이는 고통을 느낀다는 측면에서 인간과 동물이 다르지 않음을 근거로 동물을 존중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며 동물권을 주장하고 있다. 〈보기〉의 화자는 '이 고요한 사냥감들(식물)에도' 동물과 같이 '욕망하던 뒤안'이 있음을 언급하며 '만년 전의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들'과 달리 음식 앞에서 경외심과 감사와 미안함을 잃어 가는 것을 반성하고 있다.

Plus 〈보기〉 깨끗한 식사_김선우

갈래	자유시, 서정시, 산문시
성격	생태적, 생명 친화적, 반성적
주제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
해제	인간이 아닌 생명은 상품으로 취급하면서 더 이상 자신이 먹는 음식에서 생명의 의미를 발견하지 않는 세태를 안타까워하며, 생명체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의 가치를 인식하여 남김없이 접시를 비우는 것이 깨끗한 식사라는 생각을 드러냄.

07 (바)에서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관행으로 공장식 축산, 동물원, 동물 실험이 존재함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러한 관행의 역사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동물의 본능에 맞게 행동하도록 존중하는 것이 동물권의 기본이다. ② 인종 차별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흑인 노예 제도, 흑백 분리 정책을 들고 있다. ③ 인종 차별주의는 피부색, 인종의 차이를 기준으로, 종 차별주의는 종의 차이를 기준으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다. ④ 공장식 축산과 제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은 모두 동물의 본능을 무시하는 관행으로,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08 ㉠은 척추동물의 신경 체계가 인간과 다르지 않음을 규명하였으나 그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구 결과를 근거로 동물권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단정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은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다른 인종을 차별해도 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여긴 인물이므로, 종의 차이를 근거로 한 차별 대우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③ ㉢은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저서를 통해 동물권에 대한 논의가 사회의 차별과 폭력 감소 요인이 됨을 보여 주면서, 동물에 대한 폭력과 야만에 대한 개선이 사회의 다른 분야의 개선을 유발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④ ㉣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국가의 도덕성 수준을 드러낸다고 강조한 인물이다. ⑤ ㉤은 동물에게 학교에 다닐 권리나 투표할 권리 부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본능을 존중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09 ㉮와 ㉲은 모두 참인 전제를 근거로 결론을 증명하는 연역 논증의 예에 해당한다. 연역 논증의 전제는 결론을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뒷받침한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구체적 사실로부터 일반적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 방식인 귀납 논증의 예에 해당한다. 귀납 논증에서 구체적 사실에 해당하는 전제는

개연적으로 결론을 지지하지만, 이를 통해 결론이 필연적으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10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언어 사용과 사고 능력의 유무를 근거로 동물과 인간 간 차등 대우를 합리화하였으나, 인간 종 내에서 언어 사용과 사고 능력의 수준에 따라 인간을 차등 대우해야 함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③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동물이 인간과 차이가 나는 존재임을 이유로, 동물이 언어 사용과 사고 능력 수준이 인간과는 다름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인종 차별주의자와 같은 논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갓난아이는 비록 말을 못하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 종에 속하므로 동물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11 ⓐ는 '대상을 평가하다.'의 뜻으로, ②의 '보다'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어떤 일을 당하거나 겪거나 얻어 가지다. ③ 눈으로 대상을 즐기거나 감상하다. ④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 ⑤ 책이나 신문 따위를 읽다.

12 Ⓐ와 Ⓒ가 동물에 대한 관심, 보호, 연구와 같은 동물원의 순기능을 보여 주는 동물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글쓴이가 비판하는 동물원의 문제인 동물의 욕구를 돌아보지 않는 것을 해소한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는 국민이 동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었고, Ⓑ는 권력과 부를 과시하기 위해 야생 동물을 수집한 곳이었다. ③ 동물원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은 '인간이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의 욕구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았겠지만, 야생 동물 보존 기능이 있는 Ⓒ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선도 지녔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④ Ⓒ는 야생 동물 보존 기능을 지닌 것으로, 동물 관련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⑤ Ⓓ는 동물의 공급량 및 동물원 규모 확대를 초래함으로써 동물원이 동물의 욕구 존중보다 인간의 이기심에 부합하는 시설로 자리 잡는 데 영향을 미쳤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42~143쪽

01 귀납, 구체적, 일반적 **02** ㉮: 척추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신경 체계가 인간과 같다. / 동물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에 인간이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한 것이 있다. ㉯: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인종 차별주의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 ㉰: 동물의 권리에 대한 논의 확산이 사회의 다른 차별에 대한 감소를 이끌었다. / 간디에 따르면, 국가의 도덕성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 **03** Ⓐ: 자기가 속한 인종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인종을 차별해도 된다. Ⓑ: 어떤 종에 속하느냐는 대상을 다르게 대우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인간이 아닌 동물이라고 해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 **04** 인간 중에서도 갓난아이는 이성적 사고와 언어 사용에 있어 동물과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인간으로서 권리를 존중받는다.

01 ⓐ에는 귀납 논증이 사용되었다.

02 ㉮: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다. ㉯: 2문단에 제시된 피터 싱어의 의견을 정리해 본다. ㉰: 3문단에 제시된 간디의 의견을 이유에 대한 근거로 정리할 수 있다.

03 ⓐ: ㉠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바탕으로 ㉠의 주장을 정리해 볼 수 있다. ⓑ: 인종 차별주의(㉠)와 같은 맥락에서 ㉡에 대해 반론을 펼칠 수 있다.

04 〈보기〉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주장으로, 마지막 문단을 바탕으로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44~14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6 참인 사실이나 현상을 바탕으로 참일 가능성이 높은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귀납 논증이다.

10 글쓴이는 동물권의 의미가 학교에 다닐 권리나 투표할 권리의 보장이 아니라, 동물의 본능에 맞게 행동하도록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1 카드 뉴스는 작은 휴대 전화 화면의 단점을 보완하여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 자료이다.

16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국가가 있음을 언급하였다고 해서 매체 자료의 공정성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카드 뉴스에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의 효과는 제시되었으나 도입 후 예상되는 문제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찬성 여론의 비율은 제시되었으나 나머지 비율이 뜻하는 의미 및 입장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정보가 불균형하며 매체 자료가 특정 입장에 치우쳐 있음을 뜻한다.

02. 토론으로 해결 방안 탐색하기_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야 한다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48~155쪽

01 ⑤	02 ①	03 ③	04 ④	05 ②	06 ③	07 ②	08 ③
09 ④	10 ④	11 ④	12 ②	13 ③	14 ②	15 ②	16 ⑤
17 ⑤	18 ⑤	19 ②	20 ④	21 ①	22 ③	23 ⑤	24 ③
25 ①	26 ②	27 ④	28 ④	29 ④			

01 토론이 열리게 된 배경은 봄철과 겨울철 가뭄과 산불 발생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이며, 해결 방안으로 인공 강우의 실용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검증하는 반대 신문식 토론에 해당한다. ② (가)의 "그래서 오늘은 '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야 한다.'고 하는 논제로 정책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라는 사회자의 발언에서 알 수 있다. ③ (가)의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가 입론하겠습니다."라는 사회자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토론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으로 시작하고 있다. ④ 토론자의 역할에 해당한다.

02 (가)에서 사회자는 토론의 배경과 논제를 안내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사회자가 토론의 심사자와 청중을 소개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특히 이 글에 사회자와 토론자 이외의 인물들은 등장하지 않는다. ③ 사회자가 토론의 내용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④ 논제를 분석하여 양측 주장의 대립 쟁점을 파악하는 것은 토론자의 역할이지 사회자의 역할이 아니다. ⑤ 사회자가 요약과 질문을 적절히 하여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03 상대측이 준비한 주장이나 근거의 논리적인 허점과 오류를 찾아 질문하는 것은 반대 신문이다. (나)는 찬성 측의 입론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나)의 2문단과 3문단에서 논제가 등장한 배경을 밝히고 있다. ② (나)의 1문단에서 인공 강우 실용화에 대한 주요 용어 및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④ (나)의 3문단에서 인공 강우 실용화와 관련된 필수 쟁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주장을 펼치고 있다. ⑤ (나)의 2문단에서 쟁점에 대해 주장의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근거를 밝히고 있다.

04 '2018년부터 2021년까지 70여 차례 수행한 인공 강우 실험에서 51번 성공'했다는 것은 두 번째 쟁점인 '해결 방안의 실행 및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한 찬성 1의 주장 '인공 강우의 실용화로 가뭄과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를 뒷받침하는 근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첫 번째 쟁점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② 찬성 1은 봄철과 겨울철의 가뭄, 산불 문제가 심각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쟁점인 '문제의 심각성'에 해당한다. ③ 찬성 1이 봄철과 겨울철의 가뭄, 산불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한 이유는, 가뭄의 일수가 늘어나고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⑤ 찬성 1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 내세운 것은 '가뭄의 일수가 50일 이상이었던 해의 횟수와 10년간 봄철과 겨울철 산불 발생 빈도 증가량'이다.

05 "우리나라 봄철과 겨울철의 가뭄과 산불은 심각한 수준입니다."를 통해 사계절 전체가 아니라 봄과 겨울의 가뭄과 산불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우리나라에 한 대뿐인 인공 강우 전용 항공기로 이륙 낸 것입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인공 강우로 가뭄과 산불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한 해에 가뭄 발생 일수가 50일 이상이었던 해는 2000년 이전에는 5번이었지만, 2000년 이후에는 10번으로 2배나 증가하였습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인공 강우'는 구름 속에 화학 물질을 살포해 물방울을 성장시켜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06 "한 해에 가뭄 발생 일수가 50일 이상이었던 해는 2000년 이전에는 5번이었지만, 2000년 이후에는 10번으로 2배나 증가하였습니다."에서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를 활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전문가의 의견이나 신문 기사의 자료, 전문 서적의 내용, 실험과 관련된 시청각 자료는 활용하고 있지 않다.

07 "2022년 월별 건조 일수와 산불 발생 건수 그래프를 보면 흐름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에서 찬성 1은 반대 2의 지적에 대해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지만,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건조한 날이 늘면서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나요?"라는 반대 2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사람이 실수로 낸 산불의 비중이 33퍼센트로 산불 발생 원인 1위입니다. 인공 강우보다 실수로 낸 산불을 막는 게 더 현실적인 산불 예방책 아닐까요?"라는 반대 2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4월과 12월은 건조 일수와 산불 발생 건수의 흐름이 맞지 않는데 찬성 측이 건조 일수와 산불 발생 건수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는 반대 2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근본적으로 건조한 기후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단 한 건의 화재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라는 찬성 1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08 〈보기〉는 2022년 월별 건조 일수와 산불 발생 건수에 대한 그래프이다. 〈보기〉에 따르면, 뒤에서 반대 2가 지적했듯이 4월과 1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서 대체로 건조 일수가 늘어나는 달에는 산불 발생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 근거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보기〉가 ㉡의 근거로 사용되려면 2022년을 기준으로 10년간의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09 이 글의 논제는 '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야 한다.'이므로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선지에서 정책 논제는 '유전자 조작 식품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이다.

오답 해설 ①, ③, ⑤ 가치 논제에 해당한다. ② 사실 논제에 해당한다.

10 반대 1은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풍부하며 단지 가뭄이 발생했을 때 수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기 때문에 수자원이 부족해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④는 인공 강우 실용화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이유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인공 강우의 실용화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가뭄과 산불이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는 인공 강우를 실용화하기 어렵습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인공 강우를 시행할 경우 주변 국가와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반대 2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지구 환경학 교수의 언론사 인터뷰와, 2020년 12월 자 신문 기사를 제시하고 있다.

11 "봄철과 겨울철 가뭄과 산불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찬성 측과 입장이 같습니다."를 통해 반대 측도 봄철과 겨울철 산불과 가뭄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산불 문제는 실수로 낸 화재나 쓰레기 소각 등으로 발생하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인공 강우에 정서적 반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특정 국가의 인공 강우 시행이 주변국의 강수량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1인당 물 사용량이 많고, 가뭄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수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아 수자원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12 〈보기〉는 중국의 인공 강우로 인하여 주변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는 티베트고원의 사례를 들고 있다. 따라서 반대 1의 입론에서 〈보기〉를 활용하여 인공 강우로 인해 주변국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오답 해설 〈보기〉는 중국의 인공 강우로 인하여 주변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우리나라의 인공 강우 기술력이 부족한 것(①), 인공 강우로 인한 피해가 우리나라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것(③), 인공 강우가 자구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④), 환경 오염 문제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⑤)과는 관련이 없다.

13 반대 1은 인공 강우 실용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인공 강우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의 "산불 문제는 실수로 낸 화재나 쓰레기 소각 등으로 발생하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반대 1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가)의 "한 지구 환경학 교수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특정 국가의 인공 강우 시행이 주변국의 강수량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라는 반대 1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나)의 "인공 강우의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로 정서적 반감을 언급하였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습니까?"라는 찬성 1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나)의 "반대 측이 제시한 근거는 외국의 설문 조사 결과로 우리나라의 여론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라는 찬성 1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14 ㉠에서 찬성 1은 상대측이 제시한 '설문 조사'라는 근거가 우리나라의 실정과 다를 수 있다는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상대측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상대측이 제시한 자료의 출처나 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④ 상대측의 발언 내용을 재확인하고 있지 않다. ⑤ 상대측 의견이 자신의 의견과 일부 일치한다는 발언은 하고 있지 않다.

15 〈보기〉는 산불의 원인이 주로 인간의 실수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가 가장 적절하다.

16 (나)에서 반대 측은 "2022년 국회 국정 감사에서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인공 강우 실험에 200억 원 가까이 투입되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인공 강우 실용화로 기대되는 이익이 투입되는 비용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찬성 측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찬성 측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나)는 모두 입론 이후 반대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 ② (가)와 (나)에서는 필수 쟁점인 인공 강우의 실용화로 기대되는 효과와 이익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의 주장이 전개되고 있다. ③ 찬성 측과 반대 측에서는 인공 강우로 인한 기대 효과 또는 이익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④ (가)에서 찬성 2는 "반대 측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는 인공 강우의 실용화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강우량 수치만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공 강우 기술의 개발 역사나 연구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에서 결과만 중시한다며 반대 측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17 (가)의 "중국, 태국, 인도 등은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해 인공 강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1밀리미터의 약한 강수에도 대기 중의 미세 먼지가 줄어든다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에서, 외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인공 강우와 미세 먼지의 상관관계가 높음을 주장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④ 찬성 2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18 ㉠은 찬성 2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논증을 강화하는 데 사용한 것이지,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활용하여 상대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④ 찬성 2가 ㉠을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에 해당한다.

19 ㉡은 찬성 2의 입론에 대한 반대 1의 반대 신문이다. 반대 신문은 상대측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상대측의 의견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오답 해설 ① "찬성 측은 인공 강우로 미세 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에서 상대측이 증명되지 않은 것을 믿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③ "맞습니까?"를 통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질문의 형태로 강조하고 있다. ④ "아직 그 효과가 명확하게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를 통해 실제적이고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은 바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⑤ 인공 강우로 미세 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찬성 측에게 인공 강우와 미세 먼지의 상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 ㉮: (나)의 반대 2의 "정작 비가 필요한 봄과 겨울에는 구름 없는 날이 많아서 인공 강우가 쓰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세금 낭비라고 한 것입니다."를 통해 반대 측 의견임을 알 수 있다. ㉯: (가)의 찬성 2의 "인공 강우의 실용화로 기대되는 효과와 이익은 시행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를 통해 찬성 측 의견임을 알 수 있다. ㉰: (가)의 찬성 2의 "1밀리미터의 비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산불이 번지지 않게 하고 십수만 톤의 수자원이 생깁니다."를 통해 찬성 측 의견임을 알 수 있다. ㉱: (나)의 반대 2의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은 1인당 하루 100리터 이하의 물로 살아가지만 우리나라는 300리터 이상을 이용할 정도로 낙관적인 상황입니다."를 통해 반대 측 의견임을 알 수 있다. ㉲: (가)의 찬성 2의 "우리나라와 미국의 인공 강우 개발 역사는 차이가 크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술 격차는 7년 이내라고 합니다."를 통해 찬성 측 의견임을 알 수 있다.

21 〈보기〉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가뭄의 문제를 제기한 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공 강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으므로, ⓐ의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22 이 글의 논제는 '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야 한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루는 정책 논제이다. ③은 어떤 사안에 대하여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 등의 가치 판단을 다루는 가치 논제이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이 글의 논제와 같은 정책 논제이다.

23 상대측의 동의를 받아 내는 것은 토론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토론 태도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②~④ 토론 내용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24 상대측이 아닌 자신과 같은 입장의 토론자들과 함께 전략을 세워야 한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토론 참여자의 역할로 적절하다.

25 반대 1의 반론 중 "아직 인공 강우에 관한 국제적인 규약이 없습니다."로 볼 때 인공 강우와 관련된 국제 규약 자료는 제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반대 1의 반론 중 "국가 간 분쟁의 소지도 있으므로"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찬성 1의 반론 중 "전 세계는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반대 2의 반론 중 "봄철과 겨울철에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없는 날이 많아"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⑤ 찬성 2의 반론 중 "우리나라 물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26 반대 1은 "아직 인공 강우에 관한 국제적인 규약이 없습니다. ~ 인공 강우의 효과가 확실치 않고 국가 간 분쟁의 소지도 있으므로"를 통해 찬성 측이 제시한 주장이 초래할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 반대 1의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27 반대 2는 찬성 측이 주장하는 인공 강우의 실용화에 대해 구름이 없는 날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인공 강우가 우리나라의 실제 사정과 맞지 않아 비효율적임을 주장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 반대 2의 말하기 방식과 거리가 멀다.

28 〈보기〉는 모든 구름이 인공 강우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지형 구름의 습도, 바람 등 조건이 맞아야 원하는 지역에 비를 뿌릴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반대 2의 "봄철과 겨울철에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없는 날이 많아 인공 강우를 실시하기에 부적합합니다. ~ 인공 강우의 실용화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으며 비효율적입니다."라는 반대 2의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에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 〈보기〉를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9 찬성 2가 "물 절약 캠페인은 중요하지만"이라 말한 것을 볼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결책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 가뭄, 산불, 미세 먼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음을 언급하며 반론을 시작하고 있다. ② ㉡: "인공 강우 실용화는 가뭄과 산불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고, 특히 미세 먼지를 개선하는 데 희망이 될 것입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 "반대 측에서는 시민의 물 절약을 강조하는데, 물 절약 캠페인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물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 "안정적인 강수량을 확보하려면 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야 합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56~161쪽

01 ④	02 ②	03 ③	04 ③	05 ②	06 ①	07 ①	08 ⑤	
09 ②	10 ④	11 ④	12 ②	13 ①	14 ③	15 ①	16 ⑤	
17 ⑤								

01 '입증 책임이란 주장이 수용되도록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토론에서는 찬성 측이 현재 상태에 대한 변화를 주장하므로, 찬성 측에 입증 책임이 있다.'로 볼 때, 입증의 책임은 찬성 측에 있다. ② 정책 토론의 논제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어떤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사실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논제는 사실 논제이다. ③ 논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들은 필수 쟁점이다. ⑤ 사회 문제는 적절한 시기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져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

02 (다)에서 반대 측은 찬성 측 입론에 대해 반대 신문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찬성 측이 제시한 자료에 대한 해석을 지적하며 "인공 강우보다 실수로 낸 산불을 막는 게 더 현실적인 산불 예방책 아닐까요?"라는 발언을 통해 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찬성 측이 방향성을 잃고 있을 때 발언의 순서를 재조정하는 것은 사회자의 역할이다. ③ 찬성 측이 제시한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기존 제도를 변화시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찬성 측이 제시한 자료에 대한 해석을 지적하고 있다. ⑤ 찬성 측이 제시한 근거의 문제점을 들고 있지만,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03 입증 책임이 있는 찬성 측이 첫 번째 입론에서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주장하며 논제와 관련해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은, 봄철과 겨울철의 가뭄과 산불을 인공 강우의 실용화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④ 찬성 측은 봄철과 겨울철의 가뭄과 산불을 해결하기 위해 인공 강우의 실용화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산불 발생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거나, 가뭄과 산불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필수 쟁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인공 강우를 실용화할 정도로 가뭄과 산불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다는 것은 반대 측 입론의 내용에 해당한다. ④ 논제를 주장하게 된 배경에 해당한다. ⑤ 토론에 앞서 논제에 쓰인 인공 강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한 것이다.

04 ⓒ에서는 사회자가 토론 진행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 참여자의 발언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 토론의 논제인 '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야 한다.'를 선정한 배경에 해당한다. ② ⓑ: 토론의 논제인 '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야 한다.'를 제시하고 있다. ④ ⓓ: 그래프 자료를 통해 건조한 날과 산불 발생이 관련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⑤ ⓔ: '지난 10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 통계'를 활용하여 산불 발생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05 〈보기〉는 봄철에 산불이 제일 많이 발생함을 밝히며 건조한 기후와 산불의 연관성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찬성 측에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인공 강우로 건조한 대기를 바꾼다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는 봄철에 산불이 제일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근거로, 건조한 기후와 산불의 연관성을 말하고 있다. 이는 봄철의 가뭄과 산불을 예방하기에 인공 강우가 필요하다는 찬성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보기〉에서 겨울철의 건조한 기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겨울철 가뭄과 산불 예방을 위한 근거 자료로는 삼을 수 없다. ③, ④ 〈보기〉는 봄철에 산불이 제일 많이 발생함을 밝히며 건조한 기후와 산불의 연관성을 말하고 있으므로, 반대 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⑤ 〈보기〉는 찬성 측의 근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06 ⓐ는 상대가 밝힌 근거 자료(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대기질 개선 효과가 있음.)에 대한 적절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설명(구체적인 대기질 개선 효과가 무엇인가?)을 요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는 논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간접 인용하고 있다. ③ ⓒ에서 반대 2는 통계 자료를 근거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을 뿐, 상대가 밝힌 내용을 일부 인정하고 있지 않다. ④ ⓓ는 상대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답변을 유보하고 있지 않다. ⑤ ⓔ는 상대의 주장이 과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상대의 주장과 관련해 부정적 가치관이 생겨난 이유를 밝히며 주장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07 찬성 측 입론에서 찬성 2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술 격차는 7년 이내라고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인공 강우 개발을 늦게 시작했음에도 기술의 격차가 많이 줄었음을 말하는 것이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술 격차가 크다는 것을 지적하여

자신의 입론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② 찬성 측 반대 신문에서 찬성 2가 "인공 강우에 적극적인 아랍에미리트는 현재까지 1,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고, 미국과 중국은 인공 강우 선진국으로 예산은 우리나라와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많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반대 측 반대 신문에서 반대 1이 "찬성 측은 인공 강우로 미세 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인데, 아직 그 효과가 명확하게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라고 발언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반대 측 입론에서 반대 2가 "세계 보건 기구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은 1인당 하루 100리터 이하의 물로 살아가지만 우리나라는 300리터 이상을 이용할 정도로 낙관적인 상황입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반대 측 입론에서 반대 2가 "2022년 국회 국정 감사에서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인공 강우 실험에 200억 원 가까이 투입되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08 ㉠은 물음의 형식을 통해 비에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내린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상황을 예상하여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실제 사례가 아닌 예상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② 자신이 사용한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상대방의 의견을 묻고 있지 않다. ③ 상대방의 견해를 일부 인정하고 있지 않다. ④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거나 답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09 ㉡에 대한 답변이 "언론 기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50여 개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인 것과, 이후 찬성 측에서 "반대 측이 언급한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 미국과 중국은 인공 강우 선진국으로 예산은 우리나라와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많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통해, ㉡에서는 구체적으로 인공 강우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수를 물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 구체적으로 인공 강우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수를 묻는 것이므로, 인공 강우에 대해 부정적인 나라의 수, 물 공급망이나 물 절약만을 실천하는 나라의 수, 다른 나라의 인공 강우 평균 투자 비용, 인공 강우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나라의 수를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 ㉮는 반대 측에서 이미 이야기한 정보("정작 비가 필요한 봄과 겨울에는 구름 없는 날이 많아서 인공 강우가 쓰일 가능성이 낮습니다.")이므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찾아본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찬성 2의 "어떤 기술이든 실용화에는 비용이 듭니다."라는 발언과 반대 2의 "과학 기술 실용화를 위한 연구와 개발비 투자는 물론 필요합니다."로 볼 때, ㉯는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동의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② 찬성 측은 인공 강우의 실용화로 산불과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는 찬성 측 입장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③ ㉱는 인공 강우의 전제로 학생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에 해당한다. ⑤ 반대 측은 인공 강우 실용화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는 반대 측의 입장과 같다.

11 〈보기 1〉에 따르면, Ⓐ에는 반대 측 최종 양보점, 찬성 측 최종 양보점이 포함된다. 따라서 양측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ㄴ에는 인공 강우 실험을 해야 한다는 찬성 측의 입장과, 인공 강우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대 측의 입장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또한 ㄹ에는 인공 강우 실용화를 위한 연구와 개발비 투자를 해야 한다는 찬성 측의 입장과, 인공 강우 실용화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반대 측의 입장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오답 해설 ㄱ. 찬성 측의 입장에만 해당한다. ㄷ. 반대 측의 입장에만 해당한다.

12 (가)에서 인공 강우가 미세 먼지를 줄어들게 하여 대기질을 개선한다고 말한 것은 반대 신문에 대한 답변으로, 입론에서 제시한 내용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2010년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연간 36억 원을 투입한 인공 강우 실험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6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는 인공 강우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한 것이다. ③ (나)의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는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는 인공 강우의 부정적 측면을 제시한 것이다. ④ (나)의 "구름을 만들 때 이용되는 화학 물질에 대한 논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화학 물질은 약하더라도 독성을 지녔습니다."는 인공 강우의 부정적 측면을 제시한 것이다. ⑤ (가)의 "찬성 측은 인공 강우로 미세 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인데, 아직 그 효과가 명확하게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를 통해 인공 강우가 미세 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3 〈보기〉를 활용하여, 인공 강우는 인체에 해롭지 않으므로 반대 측에서 우려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③ 〈보기〉는 인공 강우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내용이므로, 인공 강우가 비싼 비용을 치르더라도 실용화해야 하는 우리의 필수 과제라는 주장이나, 항공기로 구름 씨앗을 살포하기 때문에 많은 지원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인공 강우가 유해성이 없다는 것과 봄과 겨울철에도 인공 강우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⑤ 인공 강우가 제설제로도 흔히 쓰이는 물질이라는 것과 산불에 효과적이라는 것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14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실행 가능한 것이 필수 쟁점이 될 수 있으며,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는 필수 쟁점이 되지 못한다.

오답 해설 ① 필수 쟁점은 논제와 관련하여 꼭 짚어야 하는 세부 주장으로, '문제의 심각성', '해결 방안의 실행 및 문제 해결 가능성', '해결 방안의 기대 효과 또는 이익'이 이에 해당한다. ② 논제로 제기된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필수 쟁점 중 '문제의 심각성'에 해당한다. ④ 토론을 할 때에는 필수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중요한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⑤ 정책 논제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루는 논제로, 정책의 도입과 실행·유지가 바람직한지를 판단한다.

15 〈보기〉는 미국과 싱가포르의 수자원 확보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는 찬성 측에서 인공 강우를 통해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보기〉에서는 가뭄 해결 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 ③ 〈보기〉는 인공 강우의 효과와 상관이 없다. ④ 인공 강우가 물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은 찬성 측에 유리한 근거이다. ⑤ 인공 강우를 통해 우리나라가 수자원 조절 기술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찬성 측의 주장이다.

16 찬성 1은 "인공 강우의 실용화는 가뭄을 해결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수자원 조절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게 하여 국가적 이익이 될 것입니다."라며 인공 강우의 실용화에 따른 기대 효과를 밝히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반대 1은 논제와 관련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거나, 인공 강우의 부정적 측면을 근거로 삼아 상대측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지 않다. ③ 반대 1은 "물 공급망 구축과 물 낭비를 줄이려는 노력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뿐, 인공 강우가 현실화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물 공급망과 물 낭비라는 부정적 측면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찬성 1은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17 고령자에 대한 새로운 교육과 관련된 시간, 비용, 인력이 절약될 수 있다는 것은 상대측의 예상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하지 않다. 예상 주장에 대한 반론은 정년이 연장되어도 고령자가 성실하게 일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최근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에 해당한다. ② 고령화 사회가 되면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에 해당한다. ③ 정년을 연장할 경우 사회의 부족한 인력이 확보되는 기대 효과가 있다. ④ 반대 측은 고령자의 정년이 연장되면 고용 보장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62~163쪽

01 ㉠: 신뢰성, ㉡: 타당성 02 ⓐ: 문제의 심각성 ⓑ: 인공 강우 실용화를 고려할 정도로 봄철과 겨울철의 가뭄과 산불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 연평균 강수량이 많은 편이고, 산불은 사람의 실수로 일어난다. ⓓ: 세계 평균보다 많은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 산불 발생의 원인 통계 03 ㉮: 인공 강우의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로 정서적 반감을 언급하였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 반대 측이 제시한 근거는 외국의 설문 조사 결과로 우리나라의 여론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04 • 사실 논제: ②, ⑤ • 가치 논제: ③, ④ • 정책 논제: ①, ⑥, ⑦ 05 먼저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다. 다음으로 문제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마지막으로 해결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한다.

01 전문가의 인터뷰와 신문사의 보도 내용은 근거의 신뢰성을 높이며, 신뢰성 높은 근거는 주장의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02 쟁점은 주장, 이유, 근거를 중심으로 논증이 구성된다. [A]에서 반대 측은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 인공 강우를 실용화할 정도의 가뭄과 산불이 심각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03 ㉮는 이 글의 "인공 강우에 정서적 반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를 활용하여 질문해야 하며, ㉯는 "미국의 한 설문 조사 업체에서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인공 강우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와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를 고려해서 질문해야 한다.

04 사실 논제는 어떤 사실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다루는 논제로, ②, ⑤가 이에 해당한다. 가치 논제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 등의 가치 판단을 다루는 논제로, ③ ④가 이에 해당한다. 정책 논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루는 논제로, ①, ⑥, ⑦이 이에 해당한다.

05 찬성 측 입론의 과정은 '주요 용어의 개념 정의 → 문제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 부각 → 해결 방안의 실현 가능성 입증'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64~16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1 '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야 한다.'는 정책 논제이다.

08 반대 측 역시 봄철과 겨울철 가뭄과 산불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13 인공 강우 실용화를 위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반대 측이다.

17 인공 강우에 대한 국제적인 규약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20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토론을 경청해야 하는 사람은 청중이다.

5 생각을 담는 말과 글

01. 언어 실천 양상과 문법 요소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70~175쪽

01 ⑤	02 ④	03 ④	04 ⑤	05 ④	06 ③	07 ④	08 ③
09 ④	10 ①	11 ④	12 ⑤	13 ②	14 ③	15 ③	16 ③
17 ②	18 ①	19 ③	20 ④	21 ⑤			

01 '하십시오체'와 '해라체' 모두 격식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둘 다 주로 공식적인 경우에 사용된다.

오답 해설 ① '높임 표현은 높임의 대상에 따라 주체 높임 표현, 상대 높임 표현, 객체 높임 표현으로 나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주체 높임 표현은 주격 조사 '께서'를 통해, 객체 높임 표현은 부사격 조사 '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③ 주체 높임 표현은 '주무시다, 계시다, 잡수시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통해, 객체 높임 표현은 '드리다, 모시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④ '주체 높임 표현은 문장에서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 '상대 높임 표현은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을 통해 알 수 있다.

02 (나)에서 음료를 주문한 주체는 '고객'이다. 따라서 '주문하신'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 '-(으)시-'는 음료를 주문한 주체인 '고객'을 높이는 표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가)의 '께서'는 문장의 주체에 해당하는 '선생님'에 사용된 것으로, 올바른 높임 표현에 해당한다. ② (가)의 '오시래'에 쓰인 '-(으)시-'는 '선생님'이 아니라 '오다'의 주체인 '너'를 높이는 것으로, 높임 표현이 잘못 사용된 것이다. '오라셔'라고 고쳐야 올바른 표현이 된다. ③ 간접 높임의 대상은 주체의 '신체의 일부, 소유물, 생각' 등인데, (나)의 '음료'는 고객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간접 높임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나오셨습니다'를 '나왔습니다'로 고쳐야 올바른 표현이 된다. ⑤ (나)의 '나오셨습니다'의 주체는 '고객'이 아니라 고객이 주문한 '음료'이므로, 여기에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인 '-(으)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03 ⓐ '뵈러'에 객체 높임의 특수 어휘 '뵈다'(㉤)가 사용되었다. ⓑ '아버지께서'에 주체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가, '운전하셨지만'과 '좋아하셨다'에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으)시-'(㉠)가 사용되었다. ⓒ '오겠습니다'에 하십시오체의 종결 어미 '-습니다'(㉢)가 사용되었다.

04 (다)에서 학생과 교사는 아무 문제 없이 대화를 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사 간에 갈등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는 동일한 사물의 이름이 '정구지'와 '부추'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②, ③ (나)에서 전문어를 주고받는 의사들을 통해 직업에 따라 형성된 언어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집단 내에서 전문어는 의사소통의 효율을 높이는 수단이 됨을 알 수 있다. ④ (다)에서 '맛점하다'와 '점심 맛있게 먹다'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세대에 따른 언어 표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05 '버스(bus)(㉠)'는 '많은 사람이 함께 타는 대형 자동차'의 뜻으로 외래어이고, '발그레하다(㉡)'는 '엷게 발그스름하다.'의 뜻으로 고유어이다. '찬란(燦爛)하다(㉢)'는 '빛깔이나 모양 따위가 매우 화려하고 아름답다.'의 뜻이고, '형언(形言)하다(㉣)'는 '형용하여 말하다.'의 뜻으로 둘 다 한자어이다. '벨(bell)(㉤)'은 '전기를 이용하여 소리가 나도록 한 장치'의 뜻으로 외래어이고, '우두커니(㉥)'는 '넋이 나간 듯이 가만히 한자리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양'의 뜻으로 고유어이다.

06 〈보기〉에서는 단순했던 계급이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뉘었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에는 '단순하거나 등질인 것에서 복잡하거나 이질인 것으로 변함.'을 뜻하는 '분화'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사물의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가림. ②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짐. ④ 얽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눔. ⑤ 갈라져 흩어짐. 또는 그렇게 되게 함.

07 〈보기〉는 외국에서 유입된 동일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어휘에 있어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름을 보여 준다. 외국에서 유입된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외국에서 유입된 대상의 이름을 자체적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남북한 언어의 한자어 표기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와는 관련이 없다. ② 남북한의 외래어 명칭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남한과 자체적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북한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영어식과 러시아식 발음을 기준으로 외래어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③ 남북한 언어의 사이시옷 표기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와는 관련이 없다. ⑤ 남북한의 두음 법칙 적용과 관련한 표기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와는 관련이 없다.

08 동사의 경우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였-', '-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는-',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겠-'과 결합하여 시제가 표시된다. 그러나 형용사의 경우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는 각각 선어말 어미 '-던', '-겠-'과 결합되지만, 현재 시제는 선어말 어미 없이 기본형으로 표시한다.

오답 해설 ①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이다. ~ 주로 '-아(어) 있다' 또는 '-아(어) 버리다' 등으로 실현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과거 시제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앞서는 시제이다.', '현재 시제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과 일치하는 시제이다.', '미래 시제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나중인 시제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과거의 일이나 경험을 회상하는 의미를 덧붙이고 싶을 때는 선어말 어미 '-더-'를 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관형사형 어미 '-(으)ㄴ'은 동사와 결합하면 과거 시제를, 형용사와 결합하면 현재 시제를 표시한다. 예를 들어, '-(으)ㄴ'이 동사 '먹다'와 결합하면 '먹은'이 되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형용사 '높다'와 결합하면 '높은'이 되어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09 '듣는'과 '만드는'은 각각 어간 '듣-'과 '만들-'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한 것으로, 둘 다 선어말 어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③ '어제'는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서 있음을 가리키는 과거 시제 시간 부사어이고, '지금'은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함을 가리키는 현재 시제 시간 부사어이다. ② '보았다'의 '-았-'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이다. ⑤ '될 것이다'의 '-(으)ㄹ 것'과 부사어 '장차'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임을 가리키는 미래 시제의 실현 방법이다.

10 ㉠은 현재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오늘',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한 '시작하는', 시제 선어말 어미 없이 현재 시제를 표시하는 서술격 조사 '이다'가 사용된 '방송입니다'를 활용하여 현재 시제를 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은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어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과 결합한 '내렸다'를 활용하여 과거 시제를 표시하고 있다. ③ ㉢은 미래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내일',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겠-'과 결합한 '불겠다'를 활용하여 미래 시제를 표시하고 있다. ④ ㉣은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아까',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 '-(으)ㄴ'과 결합한 '치러진',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과 결합한 '망쳤다'를 활용하여 과거 시제를 표시하고 있다. ⑤ ㉤

은 현재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지금',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과 결합한 '한다'를 활용하여 현재 시제를 표시하고 있다.

11 동작상은 연결 어미와 보조 용언을 통해 표시되는데, '민호가 일어서 있다.'에는 '-어 있다'를 활용한 현재 시제 완료상이, '윤서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에는 '-고 있다'를 활용한 현재 시제 진행상이 나타나 있다.

오답 해설 ① '민호가 일어섰다.'에는 '-었-'을 활용한 과거 시제가, '윤서가 노래를 불러 간다.'에는 '-어 가다'를 활용한 현재 시제 진행상이 나타나 있다. ② '민호가 일어선다.'에는 '-ㄴ-'을 활용한 현재 시제가, '윤서가 노래를 불러 버렸다.'에는 '-었-'과 '-어 버리다'를 활용한 과거 시제 완료상이 나타나 있다. ③ '민호가 일어서 있다.'에는 현재 시제 완료상이, '윤서가 노래를 불렀다.'에는 '-었-'을 활용한 과거 시제가 나타나 있다. ⑤ '민호가 일어서고 있다.'에는 '-고 있다'를 활용한 현재 시제 진행상이, '윤서가 노래를 부른다.'에는 '-ㄴ-'을 활용한 현재 시제가 나타나 있다.

12 ㉮(심하-+-였-+-는데)와 ㉰(선선하-+-였-+-던)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였-'을 포함하고 있으며, ㉰는 과거 관형사형 어미 '-던'도 포함하고 있다. ㉯(내리-+-ㄴ)는 동사와 결합할 때 과거 시제임을 표시하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 ㉯, ㉰는 과거 시제에 해당한다. 한편 ㉱(맑-+-은)는 형용사와 결합할 때 현재 시제임을 표시하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포함하고 있다. ㉲(눈부시-+-ㅂ니다)는 형용사 서술어인데, 형용사는 시제 선어말 어미 없이 기본형으로 현재 시제를 표시한다. 그러므로 ㉱, ㉲는 현재 시제에 해당한다. 또한 ㉳(오르-+-겠-+-고)는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겠-'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미래 시제에 해당한다.

Plus 〈참고〉 관형사형 어미 '-(으)ㄴ'

관형사형 어미 '-(으)ㄴ'	• 동사와 결합할 때: 과거 시제를 표시함. • 형용사 및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할 때: 현재 시제를 표시함.

13 '보였었는데(보이-+-었었-+-는데)'는 대과거를 표시하는 선어말 어미 '-었었-'을 포함하고 있다. '-었었-'은 현재와 단절된 과거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오답 해설 ① '서두르는(서두르-+-는)'에 사용된 현재 시제 표현 '-는'은 현장감 있는 진술을 나타낸다. ④, ⑤ '돈다(돌-+-ㄴ-+-다)'에 사용된 현재 시제 표현 '-ㄴ-'은 일반적 사실 전달을 나타낸다.

14 ㉢의 '-겠-'은 의지를 나타낸다. 즉, ㉢은 동생이 가까운 미래에 낚시를 하러 갈 것이라는 의미로, 미래 시제와 동생의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⑤ ㉠과 ㉤의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낸다. ② ㉡의 '-겠-'은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낸다. ④ ㉣의 '-겠-'은 추측을 나타낸다.

15 ㉢은 행위의 주체인 주어('네가')가 생략된 능동문이고, ㉣은 행위의 대상인 주어('창문이')가 생략된 피동문이다. ㉢의 '창문'은 목적어이다.

오답 해설 ① ㉠은 행위의 주체인 '고양이'가 주어인 능동문이고, ㉡은 행위의 대상인 '쥐'가 주어인 피동문이다. ② ㉠의 주어 '고양이가'는 ㉡의 부사어 '고양이에게', ㉠의 목적어 '쥐를'은 ㉡의 주어 '쥐가'에 대응된다. ④, ⑤ ㉣은 능동사 어간 '닫-'에 파생 접사 '-히-'가 결합한 피동사 '닫히다'에 의한 피동문이므로, 파생적 피동문에 해당한다. 또한 ㉤의 '풀어졌다'가 '풀-+-어지-+-었-+-다'로 분석되는 것에서 보듯이 ㉤은 능동사 어간 '풀-'에 '-어지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피동문이므로, 통사적 피동문에 해당한다.

16 ⓑ의 '생긴'은 동사 어간 '생기-'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것으로, 기본형인 '생기다'는 피동사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의 '발견됩니다'는 명사 '발견'에 피동 접미사 '-되다'가 결합되어 피동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② ⓐ는 주어인 '혹돔'이 다른 대상인 '어민들'에게 발견됨을 나타내는 피동문이므로, 이에 대응되는 능동문은 '어민들이 혹돔을 종종 발견합니다.'이다. ④ ⓑ의 '보입니다'는 '보-+-이-+-ㅂ니다'로 분석할 수 있는데, 어간 '보-'에 결합하는 '-이-'는 피동 접미사이므로, '보이다'는 능동사 '보다'에 대응되는 피동사이다. ⑤ ⓑ에 대응되는 능동문의 서술어는 '봅니다'인데, ⓑ에는 보는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17 ㉮는 '깨-+-어지-+-어서'로, ㉰는 '흩-+-어지-+-었-+-고'로 분석할 수 있으며, 모두 동사의 어간 뒤에 '-어지다'가 결합된 피동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흔들-+-리-+-다)는 동사의 어간 '흔들-'에 파생 접미사 '-리-'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므로, 파생적 피동문을 형성한다. 한편 ㉯(쏟-+-아지-+-었-+-습니다)는 동사의 어간 '쏟-'에 '-아지다'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므로, 통사적 피동문을 형성한다. ③ ㉮는 명사 '감지'에 접미사 '-되다'가, ㉱는 명사 '전시'에 접미사 '-되다'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④ 상품을 전시한 주체는 상점 직원 등이므로 행위의 의지를 가진 대상을 주체로 설정할 수 있다. ⑤ ㉲(담-+-기-+-었-+-습니다)는 동사의 어간 '담-'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18 '당겨지다(당기-+-어지다)'는 '당기다'에 '-어지다'가 결합한 것인데, '당기다'의 '-기-'는 어간의 일부로 피동 접미사가 아니다. 따라서 '당겨지다'는 이중 피동 표현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② '생각되어지다(생각+-되-+-어지다)'는 명사 '생각'에 피동 접미사 '-되다'와 '-어지다'가 함께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③ '보여지다(보-+-이-+-어지다)'는 '보다'에 피동 접미사 '-이-'와 '-어지다'가 함께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④ '쓰여지다(쓰-+-이-+-어지다)'는 '쓰다'에 피동 접미사 '-이-'와 '-어지다'가 함께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⑤ '모여지다(모으-+-이-+-어지다)'는 '모으다'에 피동 접미사 '-이-'와 '-어지다'가 함께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19 직접 인용 표현에는 조사 '라고'가, 간접 인용 표현에는 조사 '고'가 쓰인다.

오답 해설 ①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다 쓰는 표현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인용 표현은 끌어다 쓰는 대상의 원래 형식을 유지하는 직접 인용 표현과 원래 형식을 유지하지 않으면서 내용만 끌어다 쓰는 간접 인용 표현으로 구분된다. ④ 직접 인용 표현에는 간접 인용 표현에는 쓰이지 않는 큰따옴표가 쓰인다. ⑤ 인용절과 결합하는 조사 '고' 또는 '라고'는 해당 인용절이 전체 안은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는 점을 표시한다.

20 ㉠에 사용된 1인칭 대명사 '저'는 ㉡에서 명사 '자신'으로 바뀌었고, ㉠의 종결 표현 '아쉽습니다'는 ㉡에서 '아쉽다'로 바뀌었다.

오답 해설 ①, ③ ㉠은 '강○○ 씨'의 말에서 내용과 형식을 끌어다 쓴 직접 인용 표현이고, ㉡은 '강○○ 씨'의 말에서 내용만 끌어다 쓴 간접 인용 표현이다. ② 간접 인용 표현(㉡)은 직접 인용 표현(㉠)에 비해 인용절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문장에 어우러져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준다. ⑤ ㉡이 아닌 ㉠의 '것입니다', '아쉽습니다'에 사용된 '-습니다'가 공식적 상황에서 듣는 상대를 높이는 표현에 해당한다.

21 '그는 나에게 "너는 참 예뻐."라고 말했다.'를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그는 나에게(ⓒ) 내가(ⓓ) 참 예쁘다고(ⓔ) 말했다.'이다.

오답 해설 ①, ② '그는 어르신께 "제가 저녁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를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그는 어르신께 자기가/자신이(ⓐ) 저녁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이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76~181쪽

01 ④	02 ④	03 ②	04 ④	05 ②	06 ①	07 ③	08 ③
09 ②	10 ①	11 ①	12 ④	13 ⑤	14 ①	15 ②	16 ⑤
17 ④	18 ④	19 ④	20 ②	21 ①	22 ①		

01 ㉢의 '뵈다'는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하지만 ㉠의 '읽으시다'는 선어말 어미 '-(으)시-'를 활용한 주체 높임 표현으로 특수 어휘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주격 조사 '께서', 선어말 어미 '-(으)시-'를 활용하여 문장의 주어 '어머니'를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이 사용되었다. ㉡ 종결 어미 '-습니다'를 활용하여 청자인 '아버지'를 높이는 상대 높임 표현이 사용되었다. ㉣ 특수 어휘 '뵈다'를 활용하여 문장의 목적어 '할머니'를 높이는 객체 높임 표현이 사용되었다.

02 높임의 정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배열하면 '하십시오체-하오체-하게체-해라체'로 배열되어야 한다. ㉮의 '앞게(앞-+-게)'는 하게체, ㉯의 '앞아라(앞-+-아라)'는 해라체, ㉰의 '앞으오(앞-+-으오)'는 하오체, ㉱의 '앞으십시오(앞-+-으시-+-ㅂ시오'는 하십시오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의 순서로 배열할 수 있다.

03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의 신체 일부인 '할아버지의 귀'를 높이는 간접 높임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④, ⑤ 조사 '께서'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각각 주체인 '어머니'와 '할머니', '선생님'을 직접 높이고 있다. ③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 '주무시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아버지를 직접 높이고 있다.

04 ⓐ의 '어머니를 뵙고'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은 '어머니'이고, '함께 와야겠어요'에서 상대 높임의 대상은 청자인 '점원'이므로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다르다.

오답 해설 ① ⓐ의 '어머니께 선물로 드릴'에서는 서술의 객체인 '어머니'가, '(어머니께서) 편하게 신으실'에서는 서술의 주체인 '어머니'가 높임의 대상에 해당한다. ② ⓑ의 '부모님을 모시고'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은 '부모님'이고, '오시는 손님들께서 이 제품을 많이 사 가셔요'에서 주체 높임의 대상은 '손님들'이며, 청자는 대화의 상대인 '손님'이다. ③ ⓒ의 '부모님께 드릴'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은 '부모님'이고, '가격도 저렴합니다'에서 상대 높임의 대상은 청자인 '손님'이다. ⑤ ⓔ의 '직접 신어 보셔야 구매의 만족도가 더 높으시죠'에서 주체 높임의 대상은 생략된 '어머니'이고, 상대 높임의 대상은 청자인 '손님'이다.

05 ㉡의 '높은'과 ㉤의 '넓은'은 형용사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한 것으로, 현재 시제에 해당한다. ㉣의 '오는'은 동사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한 것으로, 역시 현재 시제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의 '먹은'과 ㉢의 '적은'은 동사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한 것으로, 과거 시제에 해당한다.

06 ㄴ은 사건시(강연이 진행되는 시간)보다 발화시(강연을 시작한다고 예고하는 시간)가 앞서는 미래 시제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② ㄷ은 사건시(그가 내일 옷을 입는 시간)보다 발화시(이것은 그가 내일 입을 옷이라고 말하는 시간)가 앞서는 미래 시제 표현이다. ③ ㄱ의 '내린다(내리-+-ㄴ-+-다)'에는 선어말 어미 '-ㄴ-'을 활용한 시간 표현만 나타나며, ㄷ의 '입을(입-+-(으)ㄹ)'에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을 활용한 미래 시제 표현이 나타난다. ④ ㄱ의 '내린다(내리-+-ㄴ-+-다)'는 선어말 어미 '-ㄴ-'으로 현재 시제를, ㄹ의 '먹더라(먹-+-더-+-라)'는 선어말 어미 '-더-'로 과거 시제를 표시하였으나, ㄷ에서는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관형사형 어미('입을'의 '-(으)ㄹ')와 서술격 조사의 기본형('옷이다')으로 시제를 표시하였다. ⑤ ㄴ의 부사어 '곧'은 미래 시제를 표시하는 시간 부사어이지만, ㄹ의 부사어 '맛있게'는 시제를 표시하지 않는다.

07 ⓑ의 '먹는다(먹-+-는-+-다)'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을 활용한 시간 표현(현재 시제)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의 '본(보-+-ㄴ)'은 관형사형 어미 '-ㄴ'을 활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그러나 ⓐ에는 관형사형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다. ② ⓐ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으로,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 ④ ⓒ는 사건시보다 발화시가 앞서는 미래 시제이고, ⓓ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과거 시제이다. ⑤ ⓒ에 사용된 부사어 '많이'는 시간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08 '읽고 있었다'는 '-고 있다'를 활용하여 진행상을, '-었-'을 활용하여 과거 시제를 표시하는 과거 시제 진행상을 나타낸다.

오답 해설 ① 현재 시제 진행상을 나타낸다. ②, ④ 과거 시제 완료상을 나타낸다. ⑤ 현재 시제 완료상을 나타낸다.

09 ㉠에 대응되는 능동문은 '그가 사건의 전말을 밝혔다.'로, 능동사 '밝혔다'가 서술어이다. 따라서 '밝혀졌다(밝히-+-어지-+-었-+-다)'는 피동 접사와 결합한 피동 표현이 아니며, 동사 어간에 '-어지다'를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밀렸다(밀-+-리-+-었-+-다)'는 동사 '밀다'의 어근과 피동 접사 '-리-'가 결합한 것이다. ③, ④ '사육되고(사육+-되-+-고)'와 '건설되었다(건설+-되-+-었-+다)'는 각각 명사 '사육', '건설'과 접사 '-되다'가 결합한 것이다. ⑤ '이루어졌다(이루-+-어지-+-었-+-다)'는 '이루다'의 어간에 '-어지다'가 결합한 것이다.

10 '가려졌던(가리-+-어지-+-었-+-던)'은 피동 접사 없이 '-어지다'만 결합된 피동 표현으로, 이중 피동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② '믿겨지지(믿-+-기-+-어지-+-지)'는 피동 접사 '-기-'와 '-어지다'가 중복 사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③ '불려진다(부르-+-이-+-어지-+-ㄴ-+ -다)'는 피동 접사 '-이-'와 '-어지다'가 중복 사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④ '모여진(모으-+-아-+-어지-+-ㄴ)'은 피동 접사 '-아-'와 '-어지다'가 중복 사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⑤ '쓰여질(쓰-+-아-+-어지-+-ㄹ)'은 피동 접사 '-아-'와 '-어지다'가 중복 사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11 ㉮의 피동문에서 '잡혔다(잡-+-히-+-었-+-다)'는 '잡다'의 어간에 피동 접사 '-히-'가 결합한 단형 피동 표현이고, ㉯의 피동문에서 '닫혔다(닫-+-히-+-었-+-다)'는 '닫다'의 어간에 피동 접사 '-히-'가 결합한 단형 피동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② ㉮의 능동문에서는 동작의 주체인 '고양이'가, 피동문에서는 동작의 대상인 '쥐'가 부각되고 있다. ③ ㉢의 '과열되었다(과열+-되-+-었-+다)'는 명사 '과열'에 접사 '-되다'가 결합한 것으로, 장형 피동 표현이 아니라 단형 피동 표현이다. ④ ㉣의 피동문은 의도 및 의지를 지닌 행위의 주체를 분명하게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⑤ ㉤의 피동문에서 행위의 주체는 '직원'으로, 행위의 주체가 중요하지 않거나 누구나 아는 사람이어서 말할 필요가 없을 때 사용하는 피동 표현으로 볼 수 있다.

12 ㉢은 서술의 객체가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으로 바뀌므로, 조사를 '에게' 대신 '께'로 바꾸고 특수 어휘 '여쭈어보다'를 활용하여 '모르는 것은 선생님께 여쭈어봐라.'로 고쳐 써야 한다. 또한 ㉤은 문장의 주어가 높임의 대상인 '할머니'로 바뀌므로, 주어의 조사 '은'을 '께서'로 바꾸고 특수 어휘 '진지'와 '잡수시다'를 활용하여 '할머니께서 이 시간에 진지를 잡수신다.'로 고쳐 써야 한다. 따라서 ㉤의 부사어 '시간에'의 조사를 높임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은 청자가 높임의 대상인 '할아버지'로 바뀌므로, 종결 어미를 '-어요' 또는 '-습니다'로 바꾸어 '할아버지, 버스 왔어요/왔습니다.'로 고쳐 써야 한다. ② ㉡은 문장의 주어가 높임의 대상인 '어머니'로 바뀌므로, 주격 조사 '이'를 '께서'로 바꾸고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어머니께서 방에 들어오셨다.'로 고쳐 써야 한다. ③ ㉡은 선어말 어미 '-시-'를 활용하여 서술어 '들어왔다'를 '들어오셨다'로 고쳐 써야 한다. 그리고 ㉢은 특수 어휘 '여쭈어보다'를 활용하여 '물어봐라'를 '여쭈어봐라'로 고쳐 써야 한다. ⑤ ㉣은 특수 어휘 '진지'를 활용하여 '밥을'을 '진지를'로 고쳐 써야 한다.

13 대응되는 능동문은 '*개학을 하자마자 방학 때와 달리 시간이 나를 좇았다.'이나, 이는 의도 및 의지를 지닌 주체를 밝힐 수 없어 (ⓑ)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한 피동 표현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대응되는 능동문 '세찬 바람이 나뭇가지를 꺾었다.'에서는 동작 주체인 '세찬 바람'이 강조되는 것과 달리, '세찬 바람에 나뭇가지가 꺾어졌다.'에서는 동작 대상인 '나뭇가지'가 강조된다. ② 동작의 주체는 병원 관계자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맥락이다. 따라서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 ③ 날씨 변화는 자연 현상으로, 의도 및 의지를 지닌 주체를 밝힐 수 없다. ④ 사건의 원인을 분석한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 피동 표현을 통해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14 부사어 '오늘'은 인용절 밖의 문장 성분으로, 직접 인용절을 간접 인용절로 바꿀 때 영향을 받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에서도 ㉠에서와 같이 '오늘'로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②~⑤ 직접 인용절을 간접 인용절로 바꿀 때 인칭 대명사, 지시 표현, 인용 부사격 조사가 바뀌는 수행 결과로 적절하다.

15 ㉡은 부사격 조사 '께'를 통해 문장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아버지'를 높이고,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시-'를 통해 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으므로, 모두 문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대상을 높인 것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에서 해요체 어미 '-아요'는 듣는 상대인 '아버지'를, 선어말 어미 '-(으)시-'는 생략된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는 문법 요소이다. ③ ㉢은 문법적 수단(부사격 조사 '께')과 어휘적 수단('드리다', '말씀')을 통해 문장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④ ㉣에서 해요체 어미 '-어요'는 청자인 '아버지'를 높이는 수단이고, 특수 어휘 '주무시다'는 생략된 주어 '할머니'를 높이는 수단이다. ⑤ ㉤은 문법적 수단(주격 조사 '께서', 선어말 어미 '-(으)시-')을 통해 문장의 주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으며, 어휘적 수단('모시다')을 통해 문장의 목적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16 첫 번째 문장의 주체인 '할머니'는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시-'를 통해 높이고 있으며, 두 번째 문장의 주체는 생략된 '너'로 높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 문장에 사용된 특수 어휘 '모시다'와 '말씀드리다'는 모두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데 사용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첫 번째 문장에서는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시-'를 활용하여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② 두 번째 문장에서는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말씀드리다'를 활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③ 해체를 사용하여 대화의 상대를 낮추고 있다. ④ 두 번째 문장에서 특수 어휘 '모시다'는 문장의 목적어인 '할머니'를, '말씀드리다'는 문장의 부사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17 ⓑ는 특수 어휘 '진지'와 '잡수시다'를 통해 생략된 주체인 '할아버지'를, ⓒ는 특수 어휘 '여쭤보다'를 통해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는 해체 종결 어미를, ⓑ는 해요체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해체와 해요체는 모두 비격식체에 해당한다. ② ⓒ에는 부사격 조사 '께'를 활용한 높임 표현이 나타나지만, ⓐ에서는 격 조사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③ ⓒ는 조사 '께'와 특수 어휘 '여쭤보다'를 활용하여 문장의 부사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지만, ⓐ에는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에는 청자를 높이는 종결 어미 '-어요'가, ⓒ에는 청자를 낮추는 종결 어미 '-렴'이 사용되었다.

18 ㉮에는 문장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 '드리다'가 들어가야 한다.

오답 해설 ① ㉮: 어머니의 대화 상대이자 문장의 주체는 '승찬'이다. ②, ⑤ ㉯, ㉰: 문장의 부사어에 해당하는 '할머니'가 객체 높임의 대상이다. ③ ㉭: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조사 '께'를 사용하고 있다.

19 ㉠은 현재 시제를 뜻한다. '동생이 유명한 필독서인 책을 본다.'에서 '유명한(유명하-+-(으)ㄴ)'은 형용사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된 현재 시제 표현이고, '필독서인(필독서+이-+-(으)ㄴ)'은 서술격 조사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된 현재 시제 표현이다. '본다(보-+-ㄴ-+-다)'는 동사 어간에 선어말 어미 '-ㄴ-'(㉡)이 결합된 현재 시제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먹은'은 관형사형 어미 '-(으)ㄴ'(㉢)으로, '맛있었다'는 선어말 어미 '-었-'(㉡)으로 현재 시제가 아닌 과거 시제를 표시하고 있다. ② '볼'은 관형사형 어미 '-(으)ㄹ'(㉢)로 미래 시제를, '영화이다'는 기본형으로 현재 시제를 표시하고 있지만, 선어말 어미는 사용되지 않았다. ③ '도착했다'는 선어말 어미 '-였-'(㉡)으로 과거 시제를 표시하고 있지만, 관형사형 어미는 사용되지 않았다. ⑤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지만, 관형사형 어미와 선어말 어미 모두 사용되지 않았다.

20 ㉱의 '넘어졌다(넘-+-어지-+-었-+-다)'는 '넘다'와 '지다'가 결합한 말로, 피동 표현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의 '꺾였다(꺾-+-이-+-었-+-다)'는 '꺾-'에 피동 접사 '-이-'가 결합되어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③ ㉰의 '나눠졌다(나누-+-어지-+-었-+-다)'는 '나누-'에 '-어지다'가 결합되어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장형 피동으로, 통사적 피동에 해당한다. ④ ㉯의 '믿겨지지(믿-+-기-+-어지-+-지)'는 '믿-'에 피동 접사 '-기-'와 '-어지다'가 함께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⑤ ㉲의 '쓰이지(쓰-+-이-+-지)'는 '쓰-'에 피동 접사 '-이-'가 결합되어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는 단형 피동에 해당한다.

21 청자가 '할머니'이면서 특수 어휘 '드시다'의 주체 또한 생략된 '할머니'이다. 즉, 주체 높임의 요소로 특수 어휘 '드시다'가, 상대 높임의 요소로 종결 어미 '-어요'가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② 청자는 '할머니'이나, 서술의 주체는 '비'여서 상대 높임의 요소(종결 어미 '-어요')만 나타난다. ③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객체 높임의 요소(조사 '께', 특수 어휘 '드리다')와 생략된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의 요소(종결 어미 '-습니다')가 나타난다. 문장의 주체는 생략된 '나'로, 청자와 동일하지 않다. ④ 문장의 주체는 '할머니'로, 조사 '께서'와 '-(으)시-'를 통해 주체 높임이 실현되었으나, 청자는 파악할 수 없으며 낮춤의 종결 어미(해라체)가 사용되었다. ⑤ 주체와 청자가 일치하기는 하나, 종결 어미(해라체)를 통해 청자와 생략된 주체가 낮춤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22 ⓐ에서 직접 인용 표현의 '내일'이 간접 인용 표현에서 '오늘'로 바뀐 것은, 인용절을 포함한 안은문장 전체의 발화 주체인 '나'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② ⓐ에서 직접 인용 표현에 사용된 높임 표현 '"갑니다."라고'는 간접 인용 표현에서 '간다고'로 바뀌었다. ③ ⓑ에서 직접 인용 표현의 '"맡겨라."라고'는 간접 인용 표현에서 '맡기라고'로 바뀌었으며, 조사는 '고'가 사용되었다. ④ ⓑ에서 직접 인용 표현의 1인칭 대명사 '나'는 간접 인용 표현에서 3인칭 대명사 '자기'로 바뀌었다. ⑤ ⓒ에서 부산으로 간 '친구'를 기준으로 한 직접 인용 표현의 지시 표현 '이곳'이 간접 인용 표현에서는 전체 안은문장의 발화 주체인 '나'를 기준으로 하여 '그곳'으로 바뀌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82~183쪽

01 • 주체 높임: 높임의 대상은 '아버지'로, 문법적 수단인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높임이 실현되었다. • 객체 높임: 높임의 대상은 '할머니'로, 어휘적 수단인 특수 어휘 '모시다'를 통해 높임이 실현되었다. • 상대 높임: 높임의 대상은 '어머니'로, 문법적 수단인 종결 어미 '-습니다'를 통해 높임이 실현되었다. 02 ㉠: 하게체, ㉡: 해라체, ㉢: 하오체, ㉣: 하십시오체 → ㉣ - ㉢ - ㉡ - ㉠ 03 ⓐ: 시간 부사어 '어제', 선어말 어미 '-았-'이 사용된 과거 시제 표현이다. ⓑ: 시간 부사어 '지금', 선어말 어미 '-ㄴ-'이 사용된 현재 시제 표현이다. ⓒ: 시간 부사어 '장차', 선어말 어미 '-겠-'이 사용된 미래 시제 표현이다. 04 ㉮: 고양이가 높은 곳에 앉고 있다. ㉯: 동생이 과자를 먹어 버렸다. 05 ㄱ: 동생이 모기에게 물렸다. ㄴ: 감성돔이 어민들에게 발견되었다. ㄷ: 굵은 나뭇가지가 강풍에 꺾어졌다. 06 • 간접 인용 표현: 그는 어르신께 자기가 저녁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 변화: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서 인칭 대명사가 '저(제가)'에서 '자기(자기가)'로, 종결 표현이 '하겠습니다'에서 '하겠다'로, 조사가 '라고'에서 '고'로 바뀌고, 큰따옴표가 사라진다.

01 〈보기〉의 주체는 '아버지', 객체는 '할머니', 상대는 '어머니'이므로, 각 대상을 어떻게 높이고 있는지 파악한다.

02 ㉠의 '앞게'는 '앞-+-게'로, ㉡의 '앞아라'는 '앞-+-아라'로, ㉢의 '앞으시오'는 '앞-+-(으)시-+-오'로, ㉣의 '앞-+-(으)시-+-ㅂ시오'로 분석할 수 있는데, 각 종결 어미의 형태를 비교하여 상대 높임의 체계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과 ㉣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 '-(으)시-'는 문장의 생략된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의 요소로, 이때 주체는 청자인 상대와 동일하다.

03 ⓐ의 '보았다'는 '보-+-았-+-다'로, ⓑ의 '흘러나온다'는 '흘러나오-+-ㄴ-+-다'로, ⓒ의 '보겠다'는 '보-+-겠-+-다'로 분석할 수 있는데, 각각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 '-았-', '-ㄴ-', '-겠-'이 어떤 시제를 나타내는지 파악한다.

04 ㉮의 서술어인 '앉다'에 진행상의 '-고 있다' 또는 '-아(어) 가다'를 결합시키고, ㉯의 서술어인 '먹다'에 완료상의 '-아(어) 있다' 또는 '-아(어) 버리다'를 결합시킨다.

05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로,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로 바뀐다. 서술어는 Ⓐ~Ⓒ에 따라, ㄱ의 서술어는 능동사 '물다'에 '-리-'가 결합된 '물리다(물-+-리-+-다)'로, ㄴ의 서술어는 명사 '발견'에 '-되다'가 결합된 '발견되다(발견+-되다)'로, ㄷ의 서술어는 능동사 '꺾다'에 '-어지다'가 결합된 '꺾어지다(꺾-+-어지다)'로 써야 한다.

06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는 인칭 대명사, 종결 표현, 조사 등이 바뀐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84~18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5 언어 공동체의 다변화가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변화된 사회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재할 때 사회적 갈등과 차별이 초래되는 것이다.

06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은 고유어이다. 한자어는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이다.

10 객체 높임 표현은 부사격 조사 '께'와 높임의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된다.

14 관형사형 어미 '-(으)ㄴ'은 동사와 결합할 때는 과거 시제를, 형용사와 결합할 때는 현재 시제를 표시한다.

02.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 쓰기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88~191쪽

01 ⑤ 02 ② 03 ④ 04 ④ 05 ② 06 ⑤ 07 ① 08 ④
09 ⑤ 10 ① 11 ② 12 ③ 13 ④ 14 ⑤ 15 ③ 16 ②
17 ③

01 (나)에서, 20세기 전화기의 보급으로 시·공간적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했고, 21세기 누리 소통망의 등장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화기의 보급으로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누리 소통망이 인기를 끌게 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다)는 소셜 다이닝과 이재민 돕기 사례를 통해 누리 소통망을 이용하여 인간관계를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② (다)의 소셜 다이닝 문화는 누리 소통망에서의 인간관계가 현실의 실질적인 관계로 이어진 사례이다. ③ (라)를 통해 온라인상에서의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몰입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에 따르면, 보이드와 엘리슨은 누리 소통망이 타인과의 연결을 도모한다고 보았다.

02 (가)에서 누리 소통망에서의 인간관계가 형식적일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비판에서 누리 소통망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 누리 소통망의 등장으로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누리 소통망은 온라인상에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라)에서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 누리 소통망이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는 이야기를 접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⑤ 누리 소통망은 온라인상에서의 교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였다.

03 본론에 해당하는 (나)와 (다)에서는 각각 인간 관계의 폭을 넓혀 주는 누리 소통망, 인간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누리 소통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정서적 고립감이 심화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가)를 통해 누리 소통망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라)에서 누리 소통망과 현실의 인간관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04 이 글은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글쓴이의 주장을 전개하는 글이다. 즉, 사회적 쟁점에 관한 글쓴이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표현한 글이므로 전문성은 글을 쓰기 위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③ 쓰기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안에서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등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지는 목표 지향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다. ⑤ 글에 활용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어떤 매체를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05 누리 소통망에 지나치게 몰입할 경우 소외감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으나, 사람들이 누리 소통망에 과몰입하는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③ (다)에서 소셜 다이닝, 이재민 돕기와 관련된 사례는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를 강화해 준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④ 독자는 누리 소통망을 활용하는 사람들, 누리 소통망을 사용할 때 올바른 자세가 필요한 사람들로 볼 수 있다. ⑤ (라)에 누리 소통망과 현실의 인간관계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06 (나)는 누리 소통망의 등장으로 인한 변화를 전화기나 인터넷이 없던 옛날부터 20세기, 21세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② '전화기나 인터넷이 없던 옛날 – 전화기가 보급된 후 – 누리 소통망의 등장' 순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지만,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대상의 특징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다)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④ (나)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07 ㉠ 누리 소통망이 타인과의 연결을 도모한다는 보이드와 엘리슨의 견해는 누리 소통망의 가치를 보여 준다. ㉡ '과연 누리 소통망은 우리의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것일까?'에서 질문을 통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보이드와 엘리슨의 견해가 누리 소통망의 가치를 보여 준다면, 누리 소통망에서 맺은 인간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그와 상반된 것이다.

오답 해설 ㉣, ㉤ 청소년이 누리 소통망을 활용하는 방식이나 누리 소통망의 변화 과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08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을 드러내는 글로, 주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은 평가 기준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독자의 요구와 흥미를 고려한 내용 전개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② 글쓰기는 예상 독자를 고려하는 문제 해결 과정이므로 독자를 고려한 표현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③, ⑤ 주장하는 글을 쓸 때 글쓴이는 자신의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글을 쓰되 타당한 근거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

09 (다)에서는 소셜 다이닝과 이재민 돕기 사례를 들어 누리 소통망을 통해 인간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라)에서 누리 소통망의 부작용으로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으나, 누리 소통망에서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끼는 이유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② (다)에서 소셜 다이닝 문화가 최근 유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유행이 일시적인 것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③ (라)에서 누리 소통망과 현실의 인간관계가 균형을 이룬다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④ (라)에서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 기사와 같은 언론 매체에서 누리 소통망의 부작용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언론에서 누리 소통망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도 않다.

10 〈보기〉는 누리 소통망을 통한 인간관계에 회의를 느끼고 누리 소통망을 끊은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누리 소통망에서 맺은 인간관계가 형식적이라는 것을 언급한 (가)를 뒷받침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보기〉는 누리 소통망에서 위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므로,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③ 〈보기〉는 누리 소통망에서 맺은 인간관계에서 속마음을 터놓을 수 없어 누리 소통망을 끊었다는 내용이므로, 올바른 인간관계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라)는 누리 소통망과 현실의 인간관계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므로 〈보기〉와 어울리지 않는다. ⑤ 〈보기〉는 누리 소통망에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지만 정작 현실의 힘든 일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는 내용이므로, 현실과 달리 인간관계가 넓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11 (가)는 누리 소통망을 통한 인간관계의 부정적 측면을, (나)는 누리 소통망을 통해 인간관계가 강화된 사례를 보여 준다. 누리 소통망 이용자의 증가와 관련된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는 (가), (나)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나)는 누리 소통망을 통한 인간관계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여 준다. ③ (나)의 소셜 다이닝 문화는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음을 보여 준다. ④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내

용은 (나)와 관련이 있다. ⑤ 누리 소통망이 사람들을 연결해 준다는 내용은 (나)와 관련이 있다.

12 (가)는 누리 소통망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누리 소통망에서 맺은 인간관계에 한계를 느끼고 누리 소통망을 끊은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누리 소통망 운영자가 힘든 일을 겪고 누리 소통망의 인간관계에 회의감을 느껴 누리 소통망을 끊은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다)에 제시된 내용이다. ④ 누리 소통망이 발달한 시대적 상황은 제시되어 있으나, 누리 소통망이 현대인의 인간관계에 중요한 이유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⑤ 누리 소통망에서 맺은 인간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3 (다)는 주장하는 글로, 글쓴이는 누리 소통망을 통한 인간관계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누리 소통망의 등장으로 인한 변화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개하고,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소설의 특징으로, 사회적 쟁점을 다룬 (다)와는 관련이 없다. ② 수필에 관한 설명으로, 주장하는 글과는 관련이 없다. ③ 주제에 관한 글쓴이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누리 소통망의 등장으로 인한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으나, 그것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하여 제시한 것은 아니다.

14 (가)의 앞부분에서는 누리 소통망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은 누리 소통망을 통한 피상적인 인간관계에 상처 받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누리 소통망에서의 인간관계가 위안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지 인기 유지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다. ② 휴대 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친구는 많지만 힘들 때 위로받을 친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내용이므로, 외로울 때 누리 소통망에 의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힘든 상황에서 위로받을 친구가 몇 없다는 것에 회의감을 느꼈다는 것이지, 누리 소통망에서 알게 된 인간관계에 상처 받은 것은 아니다. ④ 인기 누리 소통망 운영자가 힘든 일을 겪으며 누리 소통망의 인간관계에 회의감을 느낀 것이지, 누리 소통망 속의 가식적인 모습에 실망한 것은 아니다.

15 글쓴이는 누리 소통망을 통한 인간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언론에 제시된 누리 소통망의 부정적 측면을 활용하고는 있지만, 이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누리 소통망의 등장으로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졌으며, 소셜 다이닝의 사례 등을 통해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② 소셜 다이닝과 이재민 돕기 사례는 누리 소통망을 통해 인간관계를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④ (다)의 1문단에서 누리 소통망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쟁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누리 소통망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보이드와 엘리슨의 견해는 누리 소통망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보여 준다.

16 '소셜 다이닝'은 누리 소통망에서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현실에서의 만남과 교류를 이어 가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선행을 확산시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누리 소통망에서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 식사를 하며 인간관계를 맺는 문화이다. ③ 온라인에서의 소통을 현실에서의 교류로 이어지게 한 것이다. ④ 온라인에서의 만남이 현실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누리 소통망을 통해 인간관계를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⑤ 누리 소통망에서 만난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교류를 이어 가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17 (다)의 마지막 문단에서 누리 소통망과 현실의 인간관계가 균형을 이룰 때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현실에서 친구를 사귀지 않아도 된다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1문단에서 누리 소통망의 대중적인 인기를 제시하고 있다. ② 누리 소통망에서의 인간관계가 일시적이거나 형식적이지만은 않다는 내용과 관련된다. ④ 마지막 문단에서 온라인상에서의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몰입할 경우 소외감을 느끼거나 현실에서의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⑤ 마지막 문단에서 누리 소통망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92~195쪽

01 ③	02 ③	03 ②	04 ①	05 ③	06 ③	07 ②	08 ②
09 ④	10 ④	11 ②	12 ⑤	13 ④	14 ②	15 ④	

01 [A]는 누리 소통망에서 맺은 인간관계가 현실의 실질적인 관계로 이어져서 인간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사례이다. 하지만 누리 소통망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강화나 선행, 긍정적인 사회 변화와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누리 소통망을 통해 이재민을 돕는 일에 동참한 것과 같이 누리 소통망을 통해 사람들의 참여와 변화를 이끌어 내는 사례에 해당한다. ② 누리 소통망을 통해 유기견 돕기 봉사를 홍보하는 것은 누리 소통망을 매개로 하여 선행을 퍼뜨리고 현실에서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④ 누리 소통망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동참과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측면에서 [A]와 유사하다. ⑤ 누리 소통망을 통해 이재민 돕기에 동참하게끔 유도한 사례와 유사하다.

02 (가)는 누리 소통망을 통한 인간관계에서 소외감과 한계를 느낀 사례를 보여 주는 신문 기사, (나)는 누리 소통망의 가치가 제시된 전문 서적의 내용, (다)는 누리 소통망을 통해 인간관계가 강화된 사례를 보여 주는 신문 기사, (라)는 누리 소통망을 통한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학생의 글이다. 따라서 (가)~(라)는 모두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라)에서 누리 소통망을 균형감 있게 활용하면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다)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②, ④ (가)~(라)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⑤ (다)를 통해, 소셜 다이닝이 누리 소통망에서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 인간관계를 맺는 문화임을 알 수 있지만,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사회적 배경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가), (나), (라)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03 (가)는 누리 소통망이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먼저 제시한 후, 인기 누리 소통망 운영자가 누리 소통망을 끊게 된 배경을 그와 관련지어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실을 보도하는 신문 기사로, 글쓴이의 감상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직장인 △△씨는 "피상적인 인간관계에 익숙해져 정서적으로 깊이 교감하는 방법조차 잊은 것 같다. 앞으로 인생에 진짜 친구 한 명이라도 만들고 싶다."라고 밝혔다.'에서 직장인 △△씨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③ 누리 소통망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④ 누리 소통망이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밝힌 후, 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⑤ 누리 소통망이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피상적인 인간관계에 지치게 했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04 ㉠과 같은 표현은 글쓴이가 아는 내용을 일부러 질문의 형식으로

나타내어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한다.

오답 해설 ② 과정법에 대한 설명인데, ㉠은 과정법과는 관련이 없다. ③ 화제를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1문단에서 제시한 내용(화제) 중 이후에 집중적으로 설명할 내용을 보여 주고 있다. ④ ㉠은 글쓴이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를 일부러 질문의 형식을 취하여 전달함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⑤ 역설법에 대한 설명인데, ㉠은 역설법과는 관련이 없다.

05 (가)는 누리 소통망에서의 인간관계가 피상적이라는 내용이므로 누리 소통망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ㄴ), (나)는 누리 소통망의 가치에 대한 학자의 의견으로 누리 소통망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ㄹ).

오답 해설 ㄱ.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는 내용은 (가)에 제시되지 않았다. ㄷ. 누리 소통망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와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는 (나)와 (다)에 제시되지 않았다. ㅁ. (다)는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내용으로, 누리 소통망의 정보 제공 기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6 (라)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를 밝히는 글이므로, 주관적인 입장이 드러난다.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얻은 객관적인 내용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사회적 쟁점은 개인이나 집단의 견해가 충돌할 때 발생한다. ②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 ④ 누리 소통망의 등장으로 인한 변화를 시간적 순서의 원리에 따라, 누리 소통망을 통해 인간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논리적 순서의 원리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⑤ 인터넷의 발달로 누리 소통망이 인기를 끌게 되었음을 언급하면서,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07 〈보기〉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누리 소통망을 이용하는 이유는 사람과의 소통 때문이다. 현실의 인간관계에서 박탈감을 느껴 온라인상의 인간관계에 몰두한다는 내용은 〈보기〉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누리 소통망 이용 목적 중 1위가 '친구 및 지인과 교류하기 위해'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청소년들이 사람과의 소통, 여가 시간 활용, 지식과 정보의 습득 등을 위해 누리 소통망을 이용한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누리 소통망을 이용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을 가진 이용자가 많다는 것을 통해, 청소년들이 누리 소통망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⑤ 누리 소통망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를 참고하여, 매너 있는 사용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자세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08 글의 앞부분에서 누리 소통망에서 맺은 인간관계가 형식적이며 현실의 인간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을 제시하였으나, 이것은 누리 소통망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보여 준 것이지 글쓴이의 경험에서 나온 견해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소셜 다이닝 문화와 이재민 돕기 사례는 글쓴이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③ 2문단의 내용 전개 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④ 누리 소통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을 밝히면서, 이와는 다른 보이드와 엘리슨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과연 누리 소통망은 우리의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것일까?'와 같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⑤ 소셜 다이닝 문화와 이재민 돕기 사례는 누리 소통망을 통해 인간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이다.

09 누리 소통망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있음을 제시한 후, 소셜 다이닝 문화와 대형 산불로 인한 이재민 돕기 사례를 들어 누리 소통망을 통한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누리 소통망을 균형감 있게 활용할 때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글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주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온라인에서의 인간관계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누리 소통망과 현실의 인간관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으나, 이를 글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주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누리 소통망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인간관계의 폭을 넓혔음을 알 수 있으나, 이를 글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주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누리 소통망의 가치에 대한 보이드와 엘리슨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으나, 누리 소통망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제시되지 않았다.

10 누리 소통망에서의 인간관계가 형식적일 뿐이고 현실의 인간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우려가 있음을 제시하였지만, 누리 소통망으로 인해 학업이나 일에 지장을 받는 경우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누리 소통망을 통해 인간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글쓴이의 입장과 동일하다. ② 누리 소통망으로 인한 부작용, 누리 소통망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③ 언론 매체에서 누리 소통망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⑤ 글쓴이는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입장에서 글을 썼다.

11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누리 소통망을 통한 인간관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누리 소통망을 활용하는 올바른 태도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추가할 수 있으나, 누리 소통망에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방법은 이 글에서 언급되지 않았고 논지와도 맞지 않으므로 추가할 수 있는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산불로 인한 이재민을 도운 사례처럼, 누리 소통망을 통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를 추가할 수 있다. ③ 누리 소통망과 현실의 인간관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제시한다면, 글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누리 소통망을 통해 인간관계에 도움을 받은 사례를 제시하여 글쓴이의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다. ⑤ 누리 소통망을 활용한 인간관계가 현실의 실질적인 관계로 이어진 사례에 관한 인터뷰를 추가한다면, 누리 소통망이 풍요로운 인간관계에 도움을 준다는 글쓴이의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다.

12 [A]는 누리 소통망을 균형감 있게 사용할 때 누리 소통망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경고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누리 소통망과 현실의 인간관계가 균형을 이루도록 누리 소통망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② 누리 소통망이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는 언론의 보도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③ 누리 소통망에 지나치게 몰입할 경우 소외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④ 누리 소통망으로 인한 소외감 등의 문제는 온라인상에서의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몰입한 결과라는 데에서 알 수 있다.

13 소셜 다이닝, 이재민 돕기의 사례를 제시하여 누리 소통망을 통해 인간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논리적 순서의 원리에 따라 제시하고 있으며(ⓑ), '전화기나 인터넷이 없던 옛날 – 전화기의 보급 –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한 누리 소통망의 등장'과 같이 시간적 순서의 원리에 따라 누리 소통망의 등장으로 인한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 누리 소통망이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여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 주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원리를 분석하여 제시하지는 않았다. ⓒ 누리 소통망과 전화, 인터넷의 차이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인용하지 않았다.

14 본론에 해당하는 2문단은 누리 소통망의 등장으로 인한 변화, 즉 누리 소통망을 통해 폭넓은 인간관계가 형성된 상황을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재민 돕기와 관련된 사례로, 3문단의 내용을 뒷받침해 준다. ③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④ 글쓴이는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글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⑤ 누리 소통망과 인간관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지역의 뉴스를 전하는 누리 소통망과는 관련이 없다.

15 〈보기〉는 누리 소통망을 통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누리 소통망과 현실에서 균형을 찾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누리 소통망에서 자신과 타인의 삶을 비교하여 좌절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러한 비교를 멈출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보기〉의 학생은 누리 소통망에서 본 사람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이지, 누리 소통망에서의 인간관계가 현실에서 이어지지 않아 좌절하는 것은 아니다. ⑤ 이 글에 따르면 누리 소통망의 확산과 사용은 현대 사회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에서의 형식적인 관계를 모두 끊으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96쪽

01 사회적 쟁점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 개인이나 집단의 견해가 충돌할 때 발생한다. ㉠에 대해서는 형식적이고 현실의 인간관계를 악화시킨다는 부정적 견해와, 타인과의 연결을 도모한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있으므로, 사회적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 **02** '전화기나 인터넷이 없던 옛날 – 전화기의 보급 – 누리 소통망의 등장'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누리 소통망으로 인한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03**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쟁점에 관한 입장을 정하고 글의 주제와 목적을 설정한 후, 예상 독자의 배경지식이나 관심사, 요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자료와 내용을 수집한 후 글의 주제에 맞는 내용을 선정하여 조직해야 한다. 내용 전개의 일반적 원리를 활용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01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제이며 그에 관해 상반된 입장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쟁점이라 할 수 있다.

02 내용 전개의 일반적 원리에는 시간적 순서의 원리, 공간적 순서의 원리, 논리적 순서의 원리가 있다.

03 쓰기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안에서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등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지는 목표 지향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97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03 소셜 다이닝은 온라인상에서의 인간관계가 현실의 실질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08 사회적 쟁점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충돌할 때 발생한다.

최종 점검 모의고사

제1회

본문 200~209쪽

01 ③ 02 ③ 03 ⑤ 04 ⑤ 05 ⑤ 06 ⑤ 07 ④ 08 ⑤
09 ① 10 ② 11 ④ 12 ④ 13 ⑤ 14 ⑤ 15 ① 16 ③
17 ④ 18 ④ 19 ④ 20 ② 21 ② 22 ④ 23 ⑤ 24 ⑤
25 ⑤

▸ (나) 상한 영혼을 위하여_고정희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상징적, 의지적, 미래 지향적
주제	삶의 고난에 대한 극복 의지
해제	고난과 시련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 내려는 삶의 태도를 통해 내적 성숙을 형상화함.

01 (가)의 '불빛', '누군가 맞잡을 손', '작은 지붕들'과 (나)의 '개울', '등불', '마주 잡을 손'은 모두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이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나)는 절망 속에도 희망이 있음을 표현했지만,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② (가)와 (나)에서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신뢰를 찾아볼 수 없다. ④ 부정적인 상황을 겪으면서 삶이 성숙해짐을 이야기한 것은 (나)에만 해당한다. ⑤ 암울한 현실일지라도 고통에 맞서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은 (나)에만 해당한다.

02 (가)에 공간 이동은 드러나지 않으며, 이에 따른 화자의 처지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1연과 3연은 도치법을 사용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희망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② 화자는 어두운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위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④ 긍정적 이미지('불빛', '누군가 맞잡을 손', '작은 지붕들')와 부정적 이미지('어둠', '밤')가 대조되고 있다. ⑤ 어두운 산속에서 길을 잃었던 화자의 경험과 그 경험에서 깨닫게 된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노래하고 있다.

03 (가)의 화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고 따뜻한 힘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한다. ⑤에는 '우리'를 눈발로 가정하여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와 위안을 주는 함박눈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오답 해설 ① 조국 광복에 대한 의지와 염원을 노래하고 있다. ②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③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④ 본연의 생명을 찾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04 4연에서 '불빛'이 '나그네'가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라는 것을 통해, 진정한 위로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휴식이 아닌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3연에서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더 큰 위안이 되어 준다고 했으므로, '거대한 산줄기'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누군가에게 진정한 희망과 위로가 되어 주는 긍정적인 존재라고 보기 어렵다. ② 1연에서 화자가 밤에 산속에서 길을 잃었던 경험은 사람이 누구나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시련과 고난, 슬픔 등을 의미한다. ③ 화자는 '불빛', '누군가 맞잡을 손', '작은 지붕들'에게서 위로와 힘을 얻었지만, 2연과 3연에서 그것을 다른 누군가와 나누려 하고 있지는 않다. ④ 2연에서 화자는 시련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어 줄 수 있는 존재를 '누군가 맞잡을 손'에 비유하고 있다.

05 (나)는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에서 보듯이 고통에 직면했을 때 고통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충분히 흔들리며 고

통에게로' 갈 것을 말하고 있다. 즉, 고통에 당당히 맞서 이를 극복해 내야 한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인간의 삶을 갈대와 부평초 등에 빗대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고통에게로 가자' 등에서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③ 갈대가 넉넉히 흔들리고 부평초가 물 고인 곳에서 꽃을 피우는 모습을 통해 시련을 극복하는 긍정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④ 상처받은 내면이지만 고통에 마주하자는 방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06 ㉠과 '누군가 맞잡을 손', '작은 지붕들'은 긍정적인 시어로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희망과 힘을 주는 존재이다.

오답 해설 ① '누군가 맞잡을 손'은 긍정적인 시어로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를 주는 존재이다. 하지만 '어둠'은 부정적 시어이다. ② '어둠', '밤'은 삶에서 마주치는 시련을 주는 존재로, 부정적인 시어이다. 하지만 ㉠은 긍정적인 시어이다. ③ '어둠'은 부정적인 시어로서, 화자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이다. 하지만 '작은 지붕들'은 긍정적인 시어이다. ④ '누군가 맞잡을 손'은 긍정적인 시어로서, 화자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이다. 하지만 '밤'은 삶에서 마주치는 시련과 관련이 있는 부정적 시어이다.

07 '거대한 산줄기'는 '작은 지붕들'과 비교되는 대상이지만, 삶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커다란 시련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삶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시련을 의미하는 것은 '어둠'과 '밤'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길을 잃어 보지 않은 사람'은 삶의 과정에서 시련을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② '불빛의 따뜻함'은 시련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의지가 되는 존재를 형상화하고 있다. ③ '작은 지붕들'이 '어깨를 감싼다는 것은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을 의미한다. ⑤ (가)에서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움직일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08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이지만, 지민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며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관찰하여 서술하는 것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②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는 1인칭 시점에 등장한다. 또한 이 글에서 인물에 대한 평가가 관념적으로 서술되고 있지도 않다. ③ 지민의 체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전개하며 서술하고 있지만, 서술자는 작품 밖에 존재한다. ④ 작품 전체적으로 볼 때 지민과 엄마가 갈등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제시된 부분에 인물 간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09 지민의 엄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된 것이지, 실종된 지 3년이 지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② '몸을 대강 씻고 방 안으로 들어서자, 유리창에 병원에서 보낸 알림 하나가 떠 있었다. ~ 임신 8주는 위험한 시기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그래도 마인드를 살아 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이들은 많았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사람들은 추모를 위해 도서관을 찾아온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오랜 논란 끝에 학계에서는 마인드들이 단지 생전의 망자들을 그럴싸하게 재현해 낼 뿐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를 통해 알 수 있다.

10 '데이터가 지워진 거냐고 물으니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도서관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검색이 안 된다는 말뿐이었다.'를 통해, ㉠은 마인드 도서관에 업로드된 엄마의 데이터를 찾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11 지민이 엄마의 데이터를 잃어버린 사건으로 인해 당황하는 모습은 사건의 발단으로, 도서관에 업로드되었던 엄마의 데이터를 찾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과 기계의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문제를 다룬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의 '상상력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과학 기술의 발전에 대한 영감을 주기도 한다.'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② 〈보기〉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세계나 기술을 창조한다.'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③ 〈보기〉의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⑤ 〈보기〉의 '상상력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제공'을 통해 독자들이 미래의 다양한 모습을 상상하게 됨을 추론할 수 있다.

12 '도서관엔 끝없이 늘어섰던 책장'을 통해 ⓐ가 책장에 책들이 즐비한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3년 전에 죽은 엄마는 이 도서관에 기록되었다.'를 통해 ⓑ가 죽은 사람들의 마인드를 기록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마인드에게 건네는 데이터 조각들을 파는 공간은 ⓑ이다. ② 캐비닛에 유골함을 보관하는 공간은 봉안당으로, ⓐ와 ⓑ 모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관광 명소처럼 보이는 공간은 ⓑ인데, ⓑ는 추모 공원처럼 보이는 공간은 아니라고 했다. ⑤ ⓐ는 책이나 논문을 찾아볼 수 있는 공간이 맞다. 하지만 ⓑ에서 지민은 엄마의 데이터를 찾기 위해 사서에게 묻고 있으므로, ⓑ를 사서가 필요 없는 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

13 '지민은 한 번도 도서관을 찾지 않았다. 죽은 엄마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해 본 적이 없었다.'로 볼 때 주인공이 평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지녔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관내 분실〉은 과학 소설 장르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다고 했으므로, '도서관에서는 마인드에게 건넬 수 있는 데이터를 판다.'는 과학 소설 장르의 특성을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보기〉에서 '이 소설은 과학 기술이 발전한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사후 마인드 업로딩이 보편화된 것은 수십 년 전의 일이다.'를 통해 과학 기술이 발전한 미래를 배경으로 설정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보기〉에서 '인간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고 했으므로, '마인드를 살아 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이들은 많았다.'를 통해 사람마다 인간의 정체성의 기준이 동일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보기〉에서 이 글이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담았다고 했으므로, '마인드 도서관은 삶과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는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었음을 표현한 것이다.

14 이 글은 희곡이다. 다른 갈래의 글에는 없는 특수한 촬영 용어('C.U.', 'NAR.' 등)를 사용하는 것은 시나리오이다.

오답 해설 ① 희곡은 인물 간의 대립과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② 희곡은 인물의 대사, 행동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③ 희곡은 연극의 대본으로, 무대에서 상연하는 것이 목적이다. ④ 희곡은 관객들 앞에서 현재형으로 진행하므로, 시간과 공간,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을 받는다.

15 '여자, 남자의 어깨에 기댄다.'에서 알 수 있듯이 여자는 처음에는 부를 과시하는 남자에게 호감을 갖지만, 남자가 소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실망하게 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남자의 정체를 의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천천히 슬프고 낙담해서 사진들을 핸드백 속에 담는다.'를 통해 여자는 남자에게 속은 것에 슬퍼하며 낙담했음을 알 수 있다. ③ "내 것이라곤 없습니다."라는 남자의 말을 통해, 남자는 빌린 물건을 활용하여 여자에게 사랑을 얻으려 했음을 알 수 있다. ④ '하인, 남자에게 덤벼든다. 호주머니를 뒤져서 소지품들을 몽땅 털어 간다.'에서 알 수 있듯이, 하인은 남자의 사정을 살피지 않고 남자가 빌려 간 물건을 가져가고 있다. ⑤ '두려워지는 남자, 그 꼴을 여자에겐 보이고 싶지 않다.'를 통해, 남자는 하인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여자에게 감추고 싶어 함을 알 수 있다.

16 하인이 엄청나게 큰 구두로 남자를 위협하는 행위는 과장된 연출로 볼 수 있다. 〈보기〉에서는 '배우들의 과장된 연기나 소품을

통해 현실성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기도 하며,'라고 했으므로, 이러한 연출은 관객에게 오히려 현실성을 느낄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남자가 '덤'이라는 동일한 어휘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관객에게 작품의 주제를 암시하기 위한 것이다. ② 남자가 관객석을 거니는 행위는 관객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위한 것이다. ④ 남자가 관객에게 넥타이를 빌렸다가 되돌려주는 행위는 관객을 극 중 상황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⑤ 남자가 관객에게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지요?"라고 질문을 하는 것은 관객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17 ㉠이나 ㉡은 모두 빌린 것으로, 일정한 시간이 되면 돌려주어야 한다. 따라서 ㉠과 ㉡은 물건의 소유에 대한 남자의 인식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 ㉠, ㉡과 관련 없는 내용이다.

18 남자가 '넥타이를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다가가 말하는 것은 자신이 빌린 것을 소중히 아끼듯이 여자도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여자에게 전하는 데에 관객을 증인으로 삼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관객이 자신의 마음을 여자에게 대신 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하인, 남자에게 덤버든다. 호주머니를 뒤져서 소지품들을 몽땅 털어 간다.'는 물건을 빌리기로 한 시간이 다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물건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돌려주어야 하는 것을 전달한다. ② "모두들 덤으로 빌렸지요."를 통해 누구도 물건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여자,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간다.'는 남자가 소유한 모든 것이 사실은 빌린 것이라는 말을 듣고 여자가 실망해서 드러낸 행동이다. ⑤ '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급하게 되돌아와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한다.'는 하인의 폭력 앞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남자에 대한 호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라는 지시문과 연결되어 결국 여자가 남자와의 결혼을 결심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19 [앞부분 줄거리]에서 하인은 남자가 빌린 물건을 빼앗고 퇴장한다. 이는 하인이 물건을 빼앗아 사라진 후의 상황까지 보여 줄 필요가 없으므로 하인이 무대 공간을 벗어나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나가라!" 나가라가 뭐예요?"라는 여자의 말을 통해, 하인이 남자에게 준 쪽지의 내용은 무대 위에서 여자의 대사를 통해 관객에게 전달됨을 알 수 있다. ② [앞부분 줄거리]에서 하인은 남자가 빌린 물건을 빼앗고 퇴장한다. 이를 통해 하인의 등장과 퇴장은 남자가 빌린 물건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는 사실과 결부되어 남자의 초조함과 관객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③ 남자는 관객들을 극 중 사건 진행에 끌어들임으로써 관객석과 무대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⑤ 남자와 하인만 있던 무대 공간에 여자가 등장하여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남자와 하인과의 갈등 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 (나) 달밤_이태준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성격	서정적, 애상적
주제	세상으로부터 밀려난 못난이 황수건의 삶에 대한 연민
해제	모자라고 우둔하지만 천진한 황수건이 각박한 세상에 부딪히며 아픔을 겪는 모습에 대한 연민을 담음.

20 (가)는 수필로, 글쓴이가 노인을 관찰한 사실과 함께 노인에 대한 판단을 함께 기술하고 있다. (나)는 소설로, 서술자가 황수건을 관찰한 사실과 함께 그에 대한 판단을 기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나) 모두 인물 간의 대립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물이 깨달은 바를 서술하고 있는 것은 수필인 (가)에만 해당된다. ④ 인물 간의 대화를 직접 인용한 것은 것은 (나)에만 해당된다. ⑤ 관찰 대상에 대한 비판의 시선을 바탕으로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가)에만 해당된다. (나)의 '나'는 황수건을 연민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21 (가)의 글쓴이는 구석 응달 밑에서 자라고 있는 봉선화를 보며 노인이 인위적으로 화초를 키우는 방식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봉선화는 자연적으로 자란 것으로, 노인은 석류나무, 장미, 복숭아나무와 달리 봉선화를 정성스레 돌보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의 앞부분에서 노인은 조석으로 물과 거름을 주고 손자까지 불러 병들어 가는 화초를 살리기 위해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다. ③ (나)의 황수건은 참외 장사는 망쳤지만 '나'에 대한 고마움으로 포도를 훔쳐서 갖다주었다. ④ (나)의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코즈까이 노릇을 합쇼. 밑천만 있으면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빠젓이 장사를 할 턴뎁쇼?"를 통해 황수건은 장사를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⑤ (나)의 황수건은 삼산 학교 급사를 힘으로 누르고 다시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22 ⓑ는 '나'가 황수건에 대한 연민과 배려심으로 한 행동일 뿐, 그가 스스로 힘든 삶을 헤쳐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는 화단이 시들어 가자 노인이 걱정되어 한 행동으로, 화단에 대한 노인의 애정을 드러낸다. ② ⓐ에는 이런저런 노력에도 화단이 살아나지 않는 것에 대한 노인의 답답한 심정이 반영되어 있다. ③ ⓑ는 '나'가 황수건을 아는 체하면 그가 무안해할까 봐 피하는 행동이므로, 황수건에 대한 '나'의 배려심을 드러낸다. ⑤ ⓐ는 화단에 대한 노인의 관심, ⓑ는 황수건에 대한 '나'의 관심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23 (나)에서 황수건이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자신의 애환을 달래기 위해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인데도 흥겹게 노래를 부른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화단에 노인의 '공이 들지 않은 가지가 없다'는 것을 통해, 노인은 인위적으로 가꾸고 있는 화단을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봄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노인은 자신의 화단을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고 하지만 글쓴이는 '우리의 무딘 눈으로는 도저히 그런 날카로운 감상을 즐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불유쾌를 느낄 뿐이었다.'라고 평가한다. 즉, 글쓴이가 노인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보임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황수건이 "우두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지는 법인뎁쇼."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그가 〈보기〉에 제시된 못 배운 사람임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황수건이 참외 장사를 했지만 '장마가 들어 밑천만 까먹었'다는 것을 통해, 그가 〈보기〉에 제시된 불우한 처지에 놓인 주변인임을 알 수 있다.

24 ㉠은 황수건에 대한 '나'의 배려와 연민의 태도가 드러난다. ⑤ 역시 모든 살아 있는 존재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태도가 드러난다.

오답 해설 ① 임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② 암담한 현실 속에서 잔실과 자유를 추구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③ 불교적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이별의 슬픔을 재회에 대한 희망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④ 광복의 기쁨과 새로운 민족 국가 건설에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25 ㉮와 ㉰는 화단을 가꾸는 노인에 대한 글쓴이의 부정적 인식이 담긴 (가)의 문제의식에 해당한다. 또한 ㉯와 ㉱는 황수건이라는 소외된 인물을 통해 세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나)의 문제의식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가)와 (나) 모두와 관련 없는 내용이다.

제2회

본문 210~217쪽

01 ①	02 ①	03 ④	04 ⑤	05 ⑤	06 ③	07 ②	08 ④
09 ②	10 ②	11 ②	12 ①	13 ⑤	14 ③	15 ③	16 ⑤
17 ③	18 ⑤	19 ②	20 ④	21 ④	22 ②	23 ⑤	24 ④
25 ⑤							

01 대화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협력의 원리에 양의 격률과 질의 격률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대화에서 주고받는 발화의 양과 질은 대화의 목적 달성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모호하고 중의적인 표현은 협력의 원리 중 태도의 격률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체면을 위협하는 대화 자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③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예의 있게 말하는 태도는 공손성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다. ④ 대화 상대방에게 예의 있게 말하는 것은 공손성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고, 대화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관련성의 격률을 지키는 것으로, 공손성의 원리를 지킨다고 해서 관련성의 격률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⑤ 요령의 격률은 상대방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선택권을 주는 것이고, 동의의 격률은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존중한 다음 차이가 나는 생각을 밝히는 것이다.

02 갑의 질문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질문으로 요령의 격률을 지키는 것에 해당하지만, 을의 질문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는 것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 갑은 상대에 대한 비방은 최소화하고 칭찬은 최대화하는 칭찬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③ 을은 상대방과 의견 차이는 최소화하고 의견 일치는 최대화하는 동의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④ 병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체면 유지의 원리를 지키고 있다. ⑤ 정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병의 체면을 위협하고 있다.

03 ㉠은 [조:타]로 발음되는데, 이는 음운 변동 중 축약에 해당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입학'은 [이팍]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과 마찬가지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실내[실래]'는 음운 변동 중 교체에 해당하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② '입는[임는]'은 음운 변동 중 교체에 해당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③ '같이[가치]'는 음운 변동 중 교체에 해당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⑤ '역도[역또]'는 음운 변동 중 교체에 해당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04 축구부 입단 시험 결과에 대한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축구화를 찾는 화성에게 동희가 보인 반응으로 보아, 동희는 화성의 축구부 입단 시험 결과가 좋지 않음을 눈치챈 후 화성을 위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동희가 양의 격률을 어긴 것으로 판단할 수는 있으나, 축구 실력을 과장했을 뿐 거짓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아니므로 질의 격률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동희가 제공한 정보가 많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축구를 잘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므로, 모호하고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태도의 격률을 어겼다고 할 수 없다. ③ 동희가 양의 격률을 어겼다고 볼 수는 있지만, 화성은 축구를 잘한다는 동희의 말을 신뢰하여 함께 축구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④ 입단 시험 결과를 묻는 것은 칭찬도, 비방도 아니므로 칭찬의 격률과 무관하다.

05 Ⓑ는 대화의 상대를 비방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을 들었을 때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는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기억하는 경청에 대한 것이고, Ⓑ는 상대가 하는 말의 내용을 살펴 가려들어야 함에 대한 것이다. ②, ④ 체면의 원리와 공손성의 원리는 말하기(표현)에서 지켜야 할 태도에 관한 것이고, Ⓐ와 Ⓑ는 듣기(이해)에서 지켜야 할 태도에 관한 것이다. ③ 허망한 말은 거짓된 말을 가리키므로, 허망한 말을 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는 질의 격률에 어긋난다. 또한 Ⓑ에서 허망한 말을 들으면 절대로 대답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므로, 허망한 말을 수용하는 것은 Ⓑ를 어기는 것에 해당한다.

06 ⓓ는 '느끼-+-ㄴ-+-다'로 분석되는데, 어간 '느끼-'에는 받침이 없으며, ⓓ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도 않는다. '-ㄴ-'은 현재 시제를 표시하는 선어말 어미이다.

오답 해설 ① ⓐ는 'ㄹ' 받침을 가진 한자어로, 이때 뒤에 오는 'ㅅ'은 된소리로 발음하여 [달쌩]이 된다. ② ⓑ의 발음은 [읻께]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ㅆ'이 'ㄷ'으로 바뀐 후 'ㄷ' 받침 뒤에 오는 'ㄱ'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이다. 또한 ⓒ의 발음은 [인정발꼬]로, 이 역시 'ㄷ' 받침 뒤에 오는 'ㄱ'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이다. ④ ⓔ의 발음은 [위허팔쑤]로,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오는 'ㅅ'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이다. ⑤ ⓕ의 발음은 [작쩝쩌그로]로, 'ㄱ' 받침 뒤 'ㅈ'([작쩝])과 'ㅂ' 받침 뒤 'ㅈ'([쩝쩍])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로 된소리되기가 두 번 일어난다.

07 유 소사 댁과의 혼사를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다는 부인의 말은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것으로, 겸손하게 말하는 담화 관습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대화 맥락으로 볼 때 유모는 부인의 말을 전달하는 대리인에 해당한다. 유모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부인의 말을 듣고 전달하기 위함이므로, 신중하게 말하는 담화 관습을 보여 주는 행동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어찌 명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라는 부인의 말은 명을 따를 수밖에 없음을 뜻하는 것으로, 상대의 제안에 대한 완곡한 거절로 볼 수 없다. ④ 대화 맥락으로 볼 때 지현도 유 소사의 대리인으로 그는 방문의 목적을 달성한 것을 기뻐하고 있으며, 가려듣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⑤ 지현과 유 소사는 대면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수단으로 대면하지 않은 채 의사소통하고 있으므로, 유 소사에게서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08 "집은 가난하고 시장마저 멀다네. 맛있는 음식일랑 전혀 없고 담박한 것뿐이네. 그저 부끄러울 따름일세."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은 가난한 형편과, 시장과 거리가 먼 점을 언급하며, 담박한 채소만으로 김 선생만을 대접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안주를 장만한 것은 김 선생이 아니라 김 선생의 벗인 주인이다. ② 벗의 형편에 대한 김 선생의 평가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김 선생은 닭을 잡아 안주로 삼기 원한다는 점을 벗에게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⑤ 주인은 닭을 타고 돌아가겠다는 김 선생의 말에 크게 웃고서 닭을 잡아 대접하였다.

09 김 선생은 마당의 닭을 보고서 닭을 잡아 안주로 삼자는 말을 직접 하는 대신, 자신의 말로 안주를 삼고 닭을 타고 돌아가겠다며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각각 신중하게 말하기, 겸손하게 말하기로 우리말의 전통적 담화 관습에 해당하지만, 김 선생의 말과는 관련이 없다. ④, ⑤ 김 선생이 주인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거나, 주인의 말에서 도리에 어긋난 부분을 가려듣고 비판하지는 않았다.

10 ㉠은 [도라가겓따]로 발음되는데, [겓따]에서 음운 변동 중에서 교체에 해당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갈등[갈뜽]' 역시 음운 변동 중 교체에 해당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산림[살림]'은 음운 변동 중 교체에 해당하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③ '놓다[노타]'는 음운 변동 중 축약에 해당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④ '법망[범망]'은 음운 변동 중 교체에 해당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⑤ '해돋이[해도지]'는 음운 변동 중 교체에 해당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11 이 글은 교술 갈래 중 경수필에 속한다. ②는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는 수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③ 서사 갈래와 극 갈래에 대한 설명이다. ④ 서정 갈래에 대한 설명이다. ⑤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 대한 설명이다. 수필 중에서도 글쓴이의 견해가 드러나는 설득적 성격의 글이 있지만, 그러한 수필은 중수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글과는 성격이 다르다.

12 '이웃끼리 반가워 말 붙이는 게 뭐가 이상하단 말인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끼리 눈을 마주쳐도 서로 외면하는 것보다는 백배 낫지 않은가.'에서 물음의 형식을 통해 이웃 간의 소통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엘리베이터 공간에서의 경험과 시골 마을에서의 경험이 대비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통해 인물의 내면 성장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③ 어머니가 싸 가던 감자나 고구마, 시골 버스의 대화에 등장하는 고추 농사를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엘리베이터 안과 시골 버스 및 시골 마을 등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기는 하나, 이를 통해 일련의 사건 경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⑤ 글쓴이의 어머니의 말이나 시골 버스의 대화에 지역 방언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지역에 따른 담화 관습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글쓴이는 해당 지역 방언 사용자가 아니지만, 시골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과 소통하는 담화 관습을 가지고 있다.

13 글쓴이는 말을 걸었던 아이의 이름, 사는 곳, 나이 등은 모르지만, 같은 시대에 살며 비슷한 음식을 먹고 살고 이웃이며 같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영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 앞에 제시된 상황을 고려하면 길을 가다가 처음 보는 아이들에게 말을 거는 상황이다. ③ 글쓴이는 그 아이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점에서, 어디 사는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영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14 ㉡은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짐작이나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③의 '모르다'와 그 의미가 유사하다.

오답 해설 ① 어떤 것 외에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다. ②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알거나 이해하지 못하다. ④ 어떤 대상이나 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 ⑤ 감탄적으로 강조하여 '매우 그러하다' 또는 '매우 그리하다'의 뜻을 나타낸다.

15 엘리베이터 안에서 글쓴이와 구면인데도 눈을 딴 데로 돌리는 사람은 글쓴이와 세대의 차이가 드러나는 인물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러한 모습을 세대에 따른 담화 관습의 차이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길을 가다가 본인의 자녀 또래 아이들이 지나가면 꼭 말을 붙이는데, 이는 젊었을 때 없던 습관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의 담화 관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② 글쓴이가 길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말을 거는 행동과 그것을 싫어하는 글쓴이의 아이들의 행동 간 차이를 통해 부모와 자식 간 담화 관습에도 차이가 존재함을 이해할 수 있다. ④ 후보 1의 연설은 전통적 담화 관습 중 겸손하게 말하기의 특징을 보여 준다. ⑤ 성과의 공은 남에게 돌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밝히는 후보 1과 달리 자신의 강점을 내세워 자신 있게 말하는 후보 2의 발언을 통해 동일한 담화 상황에서도 발화 성격에는 개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16 이 글의 글쓴이는 산다는 것을 소통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보기〉의 화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말'이라며 좋은 말의 힘과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이 글의 글쓴이가 어린 시절 고향에서의 경험을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자신이 생각하는 소통과 나눔의 태도가 고향 마을에서는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이웃 간 인정의 따뜻함이나 함께 밥을 먹는 나눔의 가치를 말하기 위함이 아니다. 〈보기〉의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는 말 / 옛날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온다는 말'은 말로 꽃피우는 인생의 이치에 대한 것으로, 화자가 옛 추억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나타내지 않는다. 또한 '바닥이 없다면 하늘도 없다는 말 / 물방울 작으나 큰 그릇 채운다는 말' 역시 낮고 미천한 곳에서 고생해 보아야 큰일을 이룰 수 있으며 시작은 미약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낮고 작은 존재의 가치가 아니라 슬픔에서 우러나오는 위로와 격려를 강조하는 것이다. ③ 이 글의 글쓴이는 소통의 가치를 언급하고 있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과 나눌 때 행복하다는 생각은 드러내고 있지 않다. 한편 〈보기〉의 '미소를 한 육백 개나 가지고 싶다는 말'은 늘 미소를 지으며 살고 싶음을 뜻하는 것으로, 혀로 쓰는 소망의 말에 해당한다. ④ 이 글의 글쓴이가 낯선 사람 또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식하며 소통하고 나누는 삶의 자세가 중요함을 밝히고 있으나, 낯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좋은 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세운 것은 아니다. 한편 〈보기〉는 '내 마음에서 가장 강한 것은 슬픔 ~ 참, 좋은 말의 힘이 된다'를 통해, 슬픔이 좋은 말의 원천이 됨을 보여 주고 있다.

Plus 〈보기〉 참 좋은 말_천양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명상적, 성찰적, 잠언적
주제	좋은 말의 힘과 아름다움
해제	말을 듣는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생각을 바꾸게 하는 아름다운 말이 삶에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깨달음을 담아냄.

17 시골 버스에서의 대화를 인용한 부분은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지, 농사짓기의 어려움에 처한 글쓴이가 위로를 받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② '시골 버스'는, 서로 인사를 나누지 않고 구면임에도 눈을 딴 데로 돌리는 엘리베이터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사는 재미를 느끼는 소통의 공간으로 제시되어 있다. ④ '시골 버스'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⑤ '시골 버스'는, 글쓴이가 생활 공간을 떠나 자신을 경계심 없이 대하는 마을 어른들을 만나는 시골 마을 유람의 수단이 된다.

18 ⓔ의 발음은 [끄니멉씨]로, 받침 'ㄶ'에서 'ㅎ'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탈락)가 일어났으며, 'ㅃ'에서 연음된 'ㅅ'이 'ㅆ'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났다.

오답 해설 ① ⓐ의 발음은 [부치게]로, 'ㅌ'이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교체)가 일어났다. ② ⓑ의 발음은 [문는]으로, 'ㄷ'이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교체)가 일어났다. ③ ⓒ의 발음은 [옫끼만]으로, 받침 'ㅅ'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과, 'ㄱ'이 'ㄲ'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났다. ④ ⓓ의 발음은 [비스탄]으로, 받침 'ㅅ'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이 일어난 후 다시 'ㄷ'과 'ㅎ'이 합쳐져 'ㅌ'이 되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났다.

19 '날날이[날:날이 → 날:나치 → 난:나치]'에서 앞의 '날'의 받침 'ㄹ'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ㄷ'이 되고 다시 비음화에 의해 'ㄴ'이 된다. 그리고 뒤의 '날'의 받침 'ㄹ'은 구개음화에 의해 'ㅊ'이 되는데, 이는 '피붙이[피부치]'에서 받침 'ㅌ'이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와 같다. 그런데 '날날이[난:나치]'에서는 '칼날[칼랄]'과 같은 유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끝인사[끄딘사]'에서는 받침 'ㅌ'이 'ㄷ'으로 바뀌었는데, 'ㅌ'과 'ㄷ' 모두 조음 방법상 파열음에 해당한다. ③ '피붙이[피부치]'는 받침 'ㅌ(치조음, 파열음)'이 'ㅊ(경구개음, 파찰음)'으로 바뀐 것으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변한다. ④ '독도[독또]'는 '도'의 'ㄷ'이 'ㄸ'으로 바뀐 것으로, 'ㄷ'과 'ㄸ'은 모두 조음 위치상 치조음에 해당한다. ⑤ '칼날[칼랄]'에서는 비음 'ㄴ'이 유음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20 자음 체계표로 볼 때 비음화는 파열음이 비음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파열음과 비음은 조음 방법이 바뀌는 것이며, 조음 위치상으로는 모두 연구개음(ㄱ → ㅇ), 치조음(ㄷ → ㄴ), 양순음(ㅂ → ㅁ)으로 변화가 없다.

21 A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도 음운의 수에 변화가 없으므로 교체,

B는 음운의 수가 변했지만 줄지는 않았으므로 첨가, C는 음운의 수가 줄었지만 새로운 음운이 없으므로 탈락, D는 새로운 음운이 있으므로 축약이다. ㉠([구콰])은 받침 'ㄱ'과 'ㅎ'이 합쳐져 'ㅋ'이 되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났으며, D에 해당한다. ㉡([갈뚱])은 한자어의 'ㄹ' 뒤에서 'ㄷ'이 'ㄸ'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났으며, A에 해당한다. ㉢([조:은])은 발음할 때 'ㅎ'이 탈락(탈락)되었으며, C에 해당한다. ㉣([생강만])은 받침 'ㄱ'이 비음 'ㅁ' 앞에서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교체)가 일어났으며, A에 해당한다. ㉤([솜:니불])은 'ㅣ' 모음 앞에서 'ㄴ'이 첨가(첨가)되었으며, B에 해당한다. ㉥([행:보캐])은 받침 'ㄱ'과 'ㅎ'이 합쳐져 'ㅋ'이 되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났으며, D에 해당한다.

22 ㉡을 분석하면 '나-+-아서'로, 음운 변동 과정에서 모음 'ㅏ'가 탈락하였다.

오답 해설 ① ㉠: '쓰-+-어서'로, 음운 변동 과정에서 모음 'ㅡ'가 탈락하였다. ③ ㉢: '따르-+-아'로, 음운 변동 과정에서 모음 'ㅡ'가 탈락하였다. ④ ㉣: '아프-+-아'로, 음운 변동 과정에서 모음 'ㅡ'가 탈락하였다. ⑤ ㉤: '기쁘-+-어서'로, 음운 변동 과정에서 모음 'ㅡ'가 탈락하였다.

23 '단란[달란]'은 받침 'ㄴ'이 유음 'ㄹ' 앞에서 유음 'ㄹ'로 바뀌었는데, 이는 뒤 자음과 조음 방법을 같게 하는 유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국물[궁물]'은 음절 말 파열음 'ㄱ'이 비음 'ㅁ' 앞에서 비음 'ㅇ'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뒤 자음과 조음 방법을 같게 하는 비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② '닫는[단는]'은 음절 말 파열음 'ㄷ'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ㄴ'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뒤 자음과 조음 방법을 같게 하는 비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③ '종로[종노]'는 유음 'ㄹ'이 비음 'ㅇ' 뒤에서 비음 'ㄴ'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앞 자음과 조음 방법을 같게 하는 비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④ '실내[실래]'는 비음 'ㄴ'이 유음 'ㄹ' 뒤에서 유음 'ㄹ'로 바뀌었는데, 이는 앞 자음과 조음 방법을 같게 하는 유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24 '훑이다[훌치다]'에서는 구개음화(교체)에 의해 'ㅌ'이 'ㅊ'으로 바뀔 뿐, 탈락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국밥만[국빰만]'에서는 된소리되기(교체)에 의해 '밥'의 초성 'ㅂ'이 'ㅃ'으로 바뀌고, 비음화(교체)에 의해 '밥'의 받침 'ㅂ'이 'ㅁ'으로 바뀐다. ② '피어나[피여나]'에서는 발음할 때 반모음이 첨가(첨가)되어 [피여나]로 발음되는 것이 허용된다. ③ '꽃이슬[꼰니슬]'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에 의해 'ㅊ'이 'ㄷ'으로 바뀌고, 'ㅣ' 모음 앞에서 'ㄴ'이 첨가(첨가)되었다. 그리고 첨가된 'ㄴ'의 영향으로 비음화(교체)에 의해 받침 'ㄷ'이 다시 'ㄴ'으로 바뀐다. ⑤ '굳히다[구치다]'에서는 거센소리되기(축약)에 의해 'ㄷ'과 'ㅎ'이 합쳐져 'ㅌ'이 되고, 다시 구개음화(교체)에 의해 'ㅌ'이 'ㅊ'으로 바뀐다.

25 '이윽고[이윽꼬]'는 받침 'ㄱ' 뒤에 오는 'ㄱ'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이고, '머금다[머금따]'는 용언 어간의 받침 'ㅁ'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 'ㄷ'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역도[역또]'는 'ㄱ' 뒤에 오는 'ㄷ'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이고, '있고[읻꼬]'는 'ㄷ('ㅆ'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ㄷ'으로 변함.)' 뒤에 오는 'ㄱ'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이다. ② '쪽문[쫑문]'은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된소리되기와는 상관이 없다. 한편 '얹소[언쏘]'는 용언 어간의 받침 'ㄴ('ㄵ'에서 'ㅈ'이 탈락함.)'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 'ㅅ'이 된소리로 바뀐 것(㉡)이다. ③ '발전[발쩐]'은 한자어의 'ㄹ' 받침 뒤에 오는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이다. 한편 '안다[안:따]'는 용어 어간의 받침 'ㄴ'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 'ㄷ'이 된소리로 바뀐 것(㉡)이다. ④ '국수[국쑤]'는 'ㄱ' 뒤에 오는 'ㅅ'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이고, '늙지[늑찌]'는 'ㄱ('ㄺ'이 'ㅈ' 앞에서 'ㄱ'으로 발음됨.)' 뒤에 오는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이다.

제3회

본문 218~221쪽

01 ③	02 ④	03 ⑤	04 ⑤	05 ②	06 ①	07 ⑤	08 ①
09 ③	10 ③	11 ③	12 ④	13 ②	14 ③	15 ④	16 ⑤
17 ④							

▶ (나) 방울 소리_이수익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회상적, 서정적, 대조적
주제	유년 시절에 대한 그리움
해제	골동품 가게에서 구입한 방울을 통해 유년 시절 고향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으며, 분주하고 시끄러운 현재의 공간과 달리 소 방울 소리가 들리는 고즈넉한 고향의 모습이 화자의 기억 속에서 교차됨.

01 (가)는 돌담을 사이에 두고 담 저쪽에는 본질적 자아가, 이쪽에는 현실적 자아가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본질적 자아를 추구하려는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나)는 화자가 현재 위치한 저자 바닥과 화자가 회상하는 유년 시절 고향의 모습을 대조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ㅂ니다/-습니다' 같은 상대 높임의 평서형 종결 어미가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며, (나)는 '들릴까 말까'라는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가)와 (나) 모두 동일한 시행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② (가)는 담을 사이에 두고 현실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잠된 자아)가 괴리된 상황을, (나)는 회상의 매개체를 통해 유년 시절을 떠올리는 상황을 그리고 있으므로, 시선의 이동과는 거리가 멀다. ④ (가)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확인할 수 없다. 한편 (나)에서는 '들릴까 말까'에서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설의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가)와 (나) 모두 미래의 상황을 가정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02 (가)는 '길', '돌담', '하늘', '풀' 등의 시어를 활용하여 본질적 자아를 찾으려는 화자의 노력을 보여 줄 뿐,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돌', '돌담', '쇠문' 등은 화자가 본질적 자아를 찾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길'은 삶의 여정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②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에서 '돌과'를 반복하여 화자가 이상적 자아를 찾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③ '내가 사는 것은, 다만, /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에서 쉼표(반점)를 사용하여 낭독 속도를 느려지게 하고 있다. ⑤ '-ㅂ니다'와 같이 상대 높임 평서형 종결 어미를 통해 고백적인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03 (나)는 현재 화자가 위치한 시끄러운 저자 바닥과 유년 시절 고향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모순되는 표현을 통해 진실을 드러내는 역설법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골동품 가게에서 산 방울을 매개로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② '청계천 7가'라는 구체적인 지명이 제시되어 있다. ③ '그 영롱한 소리의 방울을 딸랑거리던', '내가 몰고 가는 소의 딸랑이는 방울 소리'와 '장사치들의 홍정이 떠들썩한', '삼륜차가 울려 대는 경적'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유년 시절 고향의 모습과 현재 저자 바닥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터덜터덜'이라는 의태어(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유년 시절 소를 몰고 내려오던 화자의 모습을 실감 나게 보여 주고 있다.

04 ㉮~㉱는 화자가 현재 위치한 공간과 관련된 시구들이고, ㉯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유년 시절의 공간을 의미하는 시구이다.

오답 해설 ① ㉮는 화자가 방울을 산 후 걸어가는 청계천 주변 시장에서 들리는 소리이다. ② ㉰는 화자가 유년을 보낸 고즈넉한 고향 마을과 대조되는 현재의 시장 골목을 의미한다. ③ ㉱는 현재 화자에게 들리는 소리이다. ④ ㉲는 현재 화자가 위치한 공간으로, 시장 거리를 의미한다.

05 화자는 골동품 가게에서 산 방울을 매개로 유년 시절의 한 장면을 떠올리는데, 화자가 회상하는 유년의 모습은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풍경이므로 비극적인 음악은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저녁이 되어 배가 고픈 상황을 '배고픈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이라고 표현한 것이므로 화자가 굶주림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방울은 과거 회상의 매개체이므로, 화자가 방울을 보며 생각에 잠기는 모습은 과거를 떠올리는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다. ③ 방울을 산 화자가 유년 시절 소를 몰고 내려오던 모습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3연에서 시끄러운 저자 바닥에 있는 화자가 고향에서 소를 몰던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으므로, 분주한 시장 거리 장면에 고향에서 소를 몰고 가는 화자의 모습을 삽입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방울을 산 화자가 '그날의 소년'이 되었다는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현재 화자의 모습과 과거 화자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유년 시절의 평화로운 풍경을 연출할 수 있다.

06 ⓐ는 담을 사이에 두고 저쪽에 있는 본질적 자아, 이상적 자아를 의미하고, ⓑ는 순수한 생명의 모습, 본질적 자아를 의미한다. 즉, ⓐ와 ⓑ 모두 화자가 찾으려고 하는 순수한 본질적 자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 ⓐ는 현실적 자아와 대조적인 대상이고, ⓑ도 화자가 찾으려는 진정한 자아의 모습이므로, 현실적 자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는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자아가 찾으려는 대상이고, ⓑ는 죽음을 각오하고 시련과 고난에 맞서 대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대상이다. 따라서 ⓐ와 ⓑ 모두 세속적 자아와는 관련이 없다. ④ (가)에서 본질적 자아를 찾지 못한 화자가 하늘을 보면서 자신을 성찰하며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상적 자아인 ⓐ가 화자를 반성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화자는 극한의 시련과 고난을 이기며 본질적 자아를 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을 뿐, ⓑ를 통해 반성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와 ⓑ 모두 화자가 현재 느끼는 고뇌와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일상적 자아는 현실에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자아이므로, ⓐ, ⓑ와는 관련이 없다.

Plus 〈보기〉 생명의 서_유치환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상징적, 의지적
주제	삶의 본질을 추구하려는 의지
해제	인생의 본질에 대해 회의(의심)를 느낀 화자가 죽음과 고뇌뿐인 열사의 사막으로 가서 죽음을 각오하며 본연의 자아(본질적 자아)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07 ㉣과 ㉤은 모두 '잃은 것', 즉 본질적 자아를 찾는 화자의 여정이 쉽지 않은 부정적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것을 찾기 위해 길에 나서고 있다(㉡). 즉, ㉠은 ㉡의 원인이 된다. ② 화자는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해 길을 걷고 있는데, 이 길에 돌담이 있고(㉢) 쇠문이 굳게 닫혀 있다(㉣). 즉, ㉢과 ㉣은 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에 제시된 그림자의 어두운 이미지는 화자가 본질적 자아를 찾는 과정의 어려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④ 화자가 눈물짓는(㉤) 이유는 이상적 자아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라 할 수 있다.

08 (가)에서 화자는 본질적 자아를 찾는 과정에서 하늘을 보면서 부끄럽다고 느끼며 눈물을 흘리므로, '하늘'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에 해당한다. 또한 (나)에서 화자는 청계천 골동품 가게에서 방울을 산 후 유년 시절을 회상하므로, '방울'은 과거 회상의 매개체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 (가)에서는 본질적 자아를 찾지 못하고 고뇌하는 화자가 하늘을 보며 자아 성찰을 하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하는 모습을 드러내므로, '하늘'은 화자의 내적 갈등을 해소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나)는 방울을 통해 유년 시절을 회상하는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므로, '방울'이 화자의 갈등을 유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가)에서 '하늘'은 화자에게 자아 성찰의 매개체가 되므로, 화자의 동경과는 거리가 멀다. 화자는 하늘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본질적 자아를 추구한다. 또한 (나)에서 '방울'은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매개체로, 화자에게 긍정적인 대상이라 할 수 있다. ④ (가)에서 화자는 하늘을 보며 그동안 자아 성찰을 게을리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이상적 자아를 찾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다짐한다. 즉, '하늘'을 보며 현실에 대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한편 (나)에서 화자는 현재의 번잡스러운 삶과 대조적인 유년 시절의 고즈넉한 풍경을 떠올리며 그리움에 잠긴다. 즉, '방울'로 상징되는 과거에 대해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본질적 자아를 찾는 힘든 여정을 계속하고 있는 화자는 하늘을 보며 자신을 반성하므로, '하늘'은 화자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나)에서 화자가 '방울'을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과 대조적인 과거를 떠올리는 과정에서 현실과 타협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9 화자는 과거, 즉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으므로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골동품 가게'에서 '방울'을 사고 나서 유년 시절을 회상한다. ② 화자는 과거를 회상하며 '그날의 소년'이 되어 소를 몰고 산을 내려오던 장면을 떠올리고 있다. ④ 현재 분주한 '저자 바닥'에 있는 화자에게 유년 시절에 들리던 '방울 소리'가 겹쳐지면서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⑤ 장사치들의 흥정 소리나 삼륜차의 경적 소리, 딸랑이는 방울 소리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각 공간의 특성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나) 동해 바다_신경림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반성적, 사색적, 교훈적
주제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너그러운 삶의 태도에 대한 소망
해제	남에게는 엄격하고 스스로에게는 너그러운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동해 바다'처럼 포용력 있고 관용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형상화함.

10 (나)에서 화자는 친구의 '티끌만 한 잘못'을 '땟방석', '동산'에 이르기까지 점층적으로 비유하면서 남에게 엄격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가)에는 점층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잃어버렸습니다', '통했습니다'에서 과거형 시제가 사용되었지만, '나아갑니다', '끼고 갑니다', '푸릅니다', '까닭입니다'에서 현재형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나)도 '많다', '보다' '생각한다' 같은 현재형 진술을 활용하고 있다. ② (가)는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에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나)의 '짙푸른 바다'에서도 색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와 (나) 모두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⑤ (나)에서는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에서 의문문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가)에서는 의문문을 확인할 수 없다.

11 [A]에서 길은 끝없이 이어지고 돌담이 있으며 쇠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으로 형상화되는데, 이는 잃은 것을 찾는 화자의 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즉, [A]에 표현된 길의 속성은 [B]에서 화자가 갈등하는 원인이 아니라, 순탄치 않은 여정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A]에서 돌담을 끼고 있는 길, 담에 쇠문이 있는 것과 그로 인해 길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은 화자가 걷는 길의 모습을 보여 준다. ② [B]에서 화자는 담 저쪽에 있는 잃어버린 자신의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해 길을 걷고 있다. ④ [A]의 '돌담', '쇠문'은 화자가 걷는 길에 있는 것들로서, [B]에서 화자가 본질적 자아를 찾는 여정이 순탄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⑤ [A]에 나타난 시적 상황은 화자가 무언가를 잃어버린 상태로, [B]에서 화자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이러한 시적 상황에서 비롯된 정서적 반응이라 할 수 있다.

12 [C]에서 화자는 색채 이미지와 의문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이 본받고자 하는 삶의 태도에 관해 표현하고 있으나, 역설법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오답 해설 ①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ㄹ 수는 없을까', '~로 ~면서'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바다를 너그럽다고 표현한 데서 사람이 아닌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바다에 파도가 치는 모습에서 바다가 스스로에게 엄격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13 (나)에서 화자는 남들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 너그러운 모습을 반성하면서 바다처럼 관대하고 포용력 있는 존재가 되기를 희망하므로, 자신감 있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친구의 작은 잘못을 크게 받아들이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남들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③ 화자는 동해 바다를 보며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즉, 타인에 대해 포용력 있는 태도를 갖기를 원하고 있다. ④ 화자는 남에게 엄격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며 바다처럼 스스로를 엄격히 다스리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밝히고 있다. ⑤ 화자는 바다를 통해 너그럽고 포용력 있는 존재의 모습을 발견하고, 관용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14 ㉢은 화자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걷는 길이 풀 한 포기 살 수 없는 황량하고 척박한 길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상성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과 같은 인식으로 인해 화자가 길에 나서고 있다. ② ㉡에 있는 쇠문은 열림과 닫힘의 이중적 속성을 지닌다. ④ ㉣에서 친구와 관련된 경험과 감정은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은 세상살이가 살기 어렵다는 것, 즉 각박한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5 ⓑ는 화자가 풀 한 포기 없는 척박한 길을 계속 걷는 이유이므로, 화자가 현실과 타협하거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본질적 자아를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에서 잃은 것이 있으나 그게 무엇인지, 어디에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에 해당한다. 그런데 ⓑ에서 화자가 잃어버린 것이 담 저쪽에 있는 자신이라는 것이 구체화되고 있다. ② ⓒ에서 화자가 무언가를 잃어버린 데서 오는 막막함과 상실감은, 〈보기〉에 제시된 식민지 시대를 살아갔던 지식인의 내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에서 화자는 잃어버린 것(이상적 자아, 본질적 자아)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서고, 그 길을 걷는 과정이 암담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 ⑤ ⓑ에서 '담 저쪽의 나'는 화자가 잃어버린 본질적 자아를 의미한다. 그것을 되찾기 위해 화자는 길을 걷는 탐색을 계속하는 것이다.

16 ㉯는 깊고 넓은 속성을 지닌 대상으로 화자가 닮고 싶어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는 '돌처럼 잘아지고 굳어지나 보다'에서 알 수 있듯 남들에게 엄격한 화자 자신의 옹졸한 모습을 빗댄 것으로, 화자가 본받으려는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는 옹졸하고 편협한 태도를, ㉯는 너그럽고 포용력 있는 태도를 나타내는 대상이다. ② 화자는 남들의 잘못을 크게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는 너그러운 자신의 모습을 ㉮에 빗대고 있다. 또한 화자는 ㉯에서 관용적인 태도를 발견하고 자신도 그러한 모습을 본받고 싶다며 성찰적 태도를 보인다. ③ 화자는 자신의 옹졸한 모습이 ㉮와 같다고 생각하여 그러한 삶의 태도를 지양하고자 한다. 반면 화자는 ㉯와 같이 너그럽고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④ ㉮는 친구의 잘못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받아들이면서 스스로에게는 관대한 화자 자신의 모습을 빗댄 것이고, ㉯는 ㉮와 대조적으로 포용력 있고 너그러운 존재를 의미한다.

17 (가)에서 화자는 '하늘'을 보며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한다. 또한 〈보기〉에서 '밤'은 화자가 일기를 쓰며 성찰하는 시간이다.

오답 해설 ① (가)의 '돌'은 화자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대상이나 상황을 의미하지만, 〈보기〉의 '허물'은 남에게 보여 주고 싶지 않은 자신의 잘못과 이기심을 의미한다. ② (가)에서 '아침'은 계속해서 흐르는 시간 또는 삶의 흐름 중 한 순간을 의미하지만, 〈보기〉에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화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③ (가)에서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는 것은 본질적 자아를 찾지 못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의미하지만, 〈보기〉의 '남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엄격하고 스스로에게 관대한 화자의 태도를 의미한다. ⑤ (가)는 자신이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기〉는 타인을 대하는 화자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다.

Plus 〈보기〉 비망록_문정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반성적, 고백적, 성찰적
주제	이기적인 자신에 대한 반성
해제	남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이기적인 화자가 자신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며 다짐함.

제4회

본문 222~229쪽

01 ①	02 ②	03 ④	04 ④	05 ⑤	06 ②	07 ②	08 ⑤
09 ③	10 ⑤	11 ③	12 ⑤	13 ①	14 ⑤	15 ④	16 ⑤
17 ①	18 ①	19 ③	20 ⑤	21 ⑤	22 ③	23 ①	24 ③
25 ⑤							

01 논증을 활용하여 동물의 권리 존중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를 설득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물권과 관련한 사회적 변화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동물권 침해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글쓴이의 개인적 체험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어떤 사실의 진위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⑤ 독자에게 생소한 특정 전문 분야 이해에 필요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 보기 어렵다.

02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동물이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는 점을 차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며,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려는 사람들(㉡) 또한 동물이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학교에 다닐 권리와 같은 것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즉, ㉠과 ㉡은 모두 동물이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는 공통된 인식을 보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과 달리 동물의 본능을 존중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③ ㉠은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언어 능력과 사고력)을, ㉡은 동물과 인간의 공통점(고통을 느낌.)을 중요하게 여긴다. ④ ㉡은 ㉠과 달리 종 차별주의가 인종 차별주의처럼 부당한 인식과 태도라고 여긴다. ⑤ ㉠과 ㉡ 모두 동물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언어 사용의 영역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03 ㉣에서 기르는 식용 목적의 '개구리'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양서류에 해당하므로, 동물 보호법의 보호 대상인 "동물"에서 제외된다.

오답 해설 ① ㉮의 대상인 '닭'은 동물 보호법의 '나' 목의 조류에 해당한다. ② ㉯에서 사는 '잉어'는 식용이 아니므로 동물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③ ㉰는 포유류에 해당하는 '코끼리'가 동물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동물의 특징, 즉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임을 뒷받침한다. ⑤ ㉲의 대상인 '쥐'는 동물 보호법의 '가' 목의 포유류에 해당한다.

04 인류가 동물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행동이 결과적으로 인류에게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1~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③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05 척추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신경 체계가 인간과 근본적으로 같다는 연구 결과는 동물이 고통을 감각할 수 있는 신경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므로, Ⓐ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반박하고 Ⓑ와 Ⓒ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한다.

오답 해설 ① Ⓐ의 동물 기계론은 동물에게 인간이 지닌 언어 사용, 사고 능력이 없으며 고통에 대한 감각이 없음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동물을 인간과 구분되는 존재로 보고 있다. 이는 언어 사용, 사고 능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인간과 동물을 구분 짓는 견해, 즉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시각에 가깝다. ② Ⓐ의 동물 기계론은 동물을 언어와 사고 능력이 없고 고통을 느낄 수 없으며 기계와 같은 반응만 내보이는 대상으로 본 것이다. ③ 동물에게도 감정이 있다고 판단하며 동물과 인간이 지닌 공통적 속성에 주목한 Ⓑ와 Ⓒ의 시각은 동물 또한 인간과 같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의 바탕이 된다. ④ Ⓑ는 개를 키우는 경험을 통해 동물이 지닌 생명체로서의 속성을 인지하였으므로, 공장식 축산과 달리 관찰하고 교감하는 방식으로 개를 키웠다고 볼 수 있다.

06 ⓐ는 '동식물을 보살펴 자라게 하다.'의 의미인데, ②의 '기르다' 역시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머리카락이나 수염 따위를 깎지 않고 길게 자라도록 하다. ③ 병을 제때에 치료하지 않고 증세가 나빠지도록 내버려두다. ④ 육체나 정신을 단련하여 더 강하게 만들다. ⑤ 습관 따위를 몸에 익게 하다.

07 실시간으로 비대면 의사소통이 가능한 매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카드 뉴스 형식의 매체 자료가 갖는 고유한 특징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 카드 뉴스는 주요 쟁점을 간략한 글과 이미지로 제시하며, 이미지를 옆으로 밀어 보는 형식으로 휴대 전화와 같은 작은 화면에서도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08 네 번째 이미지에서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의 국기 이미지를 제시한 것에서 상징적 이미지 활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국가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두 번째, 다섯 번째 이미지에서 통계 자료를 명시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② 첫 번째 이미지에서 '반려동물 보유세'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 ③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이미지의 제목 모두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④ 통계 자료의 성격에 맞게 원그래프, 꺾은선그래프, 막대그래프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09 다섯 번째 이미지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55%임을 밝히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두 번째 이미지에 제시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7가구 중 1가구라는 정보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전체 가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으로 높다는 점을 드러낸다. ② 두 번째 이미지에 제시된 그래프의 막대 크기를 비교해 보면, 2019년 유기 동물의 수가 2022년보다 높으며, 2019년을 기점으로 2022년까지 유기 동물이 순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④ 두 번째 이미지에서, 2015년 대비 2021년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약 2배 수준으로 확대되었다는 점과 유기 동물 보호 예산 지출 규모가 매해 200억 이상으로 큰 점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비교하여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세 번째 이미지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으로 예상되는 효과를 전망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 근거를 활용하여 반려동물 보유세의 문제 해결력을 증명해 보인 것은 아니다.

10 다섯 번째 이미지에서 여론 조사 결과 찬성 비율은 절반을 약간 넘는 55%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미지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왜곡 가능성이 보인다. 찬성 이외 의견 45%와 찬성 의견의 차이는 10%에 불과함에도 아래 막대의 크기와 찬성 막대의 크기는 약 세 배 정도 크기 차이를 보여 그래프 표시가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유기 동물의 수가 2019년에 비해서는 감소하기는 했으나 10만 마리 이상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 ② 최근 5년간 유기 동물의 수가 매해 10만 마리 이상이라고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각 연도별 수치는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연도별 막대의 상대적 크기로 연도별 차이에 대해 가늠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 수치 확인은 불가능하다. ③ 세 번째 이미지에 제시된 세 개의 그림은 각각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연관된 이미지이다. ④ 두 번째 이미지에 제시된 꺾은선 그래프는 반려동물 시장 규모 확대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점진적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2015년 대비 2021년의 시장 규모는 약 2배가량 확대된 수치임을 보여 준다. 여기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물가 상승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반려동물 수 및 반려동물을 위한 소비 내역이 동일하다는 조건이 주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래프의 변화를 물가 상승률의 크기 차이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에 해당한다.

11 논제에 대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주장의 옳음을 다투는 토론이다.

오답 해설 ① 면접에 대한 설명이다. ② 협상에 대한 설명이다. ④ 연설에 대한 설명이다. ⑤ 토의에 대한 설명이다.

12 양측의 첫 번째 입론과 반대 신문에서는 이익/비용 쟁점에 대한 논쟁이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반대 측 첫 번째 입론의 "봄철과 겨울철 가뭄과 산불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찬성 측과 입장이 같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반대 측 첫 번째 입론의 "산불은 사람의 실수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반대 측 첫 번째 입론의 "하지만 인공 강우의 실용화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가뭄과 산불이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반대 측 첫 번째 입론의 "특정 국가의 인공 강우 시행이 주변국의 강수량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인공 강우를 원활하게 시행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찬성 측 첫 번째 입론에 대한 반대 신문 중 반대 2의 첫 번째 질문("건조한 날이 늘면서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⑤ 찬성 측의 첫 번째 입론에 대한 반대 신문 중 반대 2의 두 번째 발언은 상대가 제시한 근거 자료의 해석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4월과 12월은 건조 일수와 산불 발생 건수의 흐름이 맞지 않는데 찬성 측이 건조 일수와 산불 발생 건수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통계 자료를 제시함으로써("지난 10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 통계에 따르면, 사람이 실수로 낸 산불의 비중이 33퍼센트로 산불 발생 원인 1위입니다.") 상대에게 대안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인공 강우보다 실수로 낸 산불을 막는 게 더 현실적인 산불 예방책 아닐까요?"). 따라서 상대가 제시한 근거의 신뢰성을 지적하거나, 상대의 주장 사이에 모순이 있음을 또는 상대의 주장에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거나, 상대의 주장에 일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14 토론자의 발언을 요약하여 토론 진행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사회자의 역할로 적절하나, 이 글에서 사회자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②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가 입론하겠습니다.", "이어서 반대 측 토론자의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가 입론하겠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④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 시작 전 사회자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 '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는 현 상태의 변화를 주장하는 것으로, 정책 논제인 ㉠과 그 성격이 같다.

오답 해설 ①, ③ 윤리 및 철학적 우위를 다투는 가치 논제에 해당한다. ②, ⑤ 사실의 진위 여부를 다투는 사실 논제에 해당한다.

16 실험 단계에서 성공한 강우량 3.5밀리미터를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찬성 측 토론자 역시 이것이 가뭄과 산불 예방 및 해결에는 미흡한 양임을 인정하였다.

오답 해설 ① '인공 강우'와 '실용화'를 정의함으로써 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명확히 하였다. ②, ③ 가뭄 일수 및 봄철과 겨울철 산불 발생 빈도를 근거로 문제의 심각성을 입증하고 있다. ④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 강우 실험 성과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험 여건과 길지 않은 실험 역사를 감안하여 평가할 부분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인력과 장비, 예산이 확보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17 이 글은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나 해결 방안을 포함하는 정책 논제를 중심으로 주장을 펼치는 토론이다.

오답 해설 ②, ③, ⑤ 가치 논제 토론에 대한 설명이다. ④ 사실 논제 토론에 대한 설명이다.

18 반대 측 첫 번째 입론에 대한 반대 신문에서 반대 1은 인공 강우에 대해 우려하는 여론이 높음을 보여 주는 2021년 미국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인공 강우 시행에 대한 정서적 반감이 있다는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하였다.

오답 해설 ②~⑤ 반대 신문에 대한 각 토론자의 답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답변 전략이다.

19 [C]는 대기질 개선 효과에 대한 추가적 설명을 요구하는 반대 신문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A]는 인공 강우 시행을 반대하는 정서적 반감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는 반대 신문이다. ② [B]는 상대가 제시한 근거의 부적합성을 지적하는 반대 신문이다. ④ [D]는 논제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반대 신문이다. ⑤ [E]는 논제와 관련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언급하여 상대의 앞선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는 반대 신문이다.

20 ⓔ는 우리나라의 물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낙관적임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가뭄과 수자원 부족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아님을 뒷받침한다.

오답 해설 ① ⓐ는 인공 강우 실험의 경제적 가치가 높음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인공 강우 실용화 이익에 대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② ⓑ는 인공 강우의 공기 정화 효과를 언급했으므로, 인공 강우가 가뭄 이외 대기 문제에 효과가 있음을 뒷받침한다. ③ ⓒ는 약한 강수에도 대기 중 미세 먼지가 감소함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인공 강우의 긍정적 영향을 뒷받침한다. ④ ⓓ는 인공 강우 실험에 투입된 예산의 성과가 없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인공 강우 실험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뒷받침한다.

21 반대 측은 두 번째 입론에서 인공 강우의 안전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부정적 여론이 초래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발언 단계상 ⓔ에서 반대 측 입론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은 사회자의 역할에 해당하나, 요약의 내용이 반대 측 두 번째 입론을 왜곡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자가 발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은 토론 단계상 찬성 측 두 번째 입론 시작 전의 사회자 발화로, 발언자와 발언 성격을 지정한 것에 해당한다. ②, ③ ㉡은 찬성 측 두 번째 입론이 끝난 직후의 사회자 발화로, 앞선 입론을 요약하고 다음 발언자와 발언 성격을 지정한 것에 해당한다. ④ ㉢은 토론 단계상 찬성 측 두 번째 입론에 대한 반대 신문이 끝난 직후의 사회자 발화로, 발언자와 발언 성격을 지정한 것에 해당한다.

22 제시된 부분은 반론 단계로, 입론에서 주장한 쟁점 중 자신의 편에 유리한 것을 중심으로 주장을 강화하는 단계이다.

오답 해설 ①, ② 반대 신문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④, ⑤ 입론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23 반대 1의 "과연 인공 강우의 실용화만이 봄철과 겨울철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일까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⑤ 각 토론자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없는 말하기 전략이다.

24 찬성 측 첫 번째 반론에서 언급한, 전 세계적으로 수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다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또한 인공 강우에 대한 국제적 규약이 없는 이유를 찾아보는 것은 토론 참관 후 시도할 수 있는 후속 활동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찬성 측 첫 번째 반론에서 인공 강우의 실용화에 여러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② 찬성 측 두 번째 반론에서 급수 제한이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가뭄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것이지,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다. ④ 반대 측 첫 번째 반론에서 물 공급망 구축과 물 낭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반대 측 두 번째 반론에서 가뭄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에 구름이 없는 기상적 특징이 있음을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지리적 여건이 아니라 기상적 요인에 대한 것이다.

25 ㉤은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 주는 문제 해결 방법 중 하나로, 자발적 물 절약보다 추가 물 공급의 문제 해결력이 높음을 보여 준다.

오답 해설 ① ㉠은 반대 측에서 가뭄 해결 방법으로 제시한 대안이다. ② ㉡은 논제가 채택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문제로, 논제가 국가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③ ㉢은 논제의 실행에 자연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인위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조건으로 인해 효과적인 방안의 실행이 어려움을 드러낸다. ④ ㉣은 가뭄 못지 않게 심각한 문제이면서 인공 강우로 개선할 수 있는 문제로, 논제의 실행이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제5회

본문 230~237쪽

01 ④	02 ①	03 ②	04 ④	05 ②	06 ④	07 ②	08 ④
09 ④	10 ⑤	11 ④	12 ①	13 ④	14 ②	15 ②	16 ③
17 ⑤	18 ④	19 ④	20 ④	21 ④	22 ③	23 ⑤	24 ③
25 ②							

01 '문상을 가서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할 수 없듯이 소통의 맥락에 따라 적절한 능력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를 통해, 문상을 가는 경우 장례 문화라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당시의 의사소통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발화에는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이 거의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상황 맥락은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작용하는 맥락이다. ② 사회·문화적 맥락은 구체적 상황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③ 맥락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언어 행위의 주체, 주제,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⑤ 읽기 상황에서의 맥락도 말하기나 쓰기 상황에서의 맥락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02 맥락과 관련해서는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나, 담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1문단에서 맥락의 구성 요소를 주체, 주제, 목적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③ 1문단에서 맥락을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나누고 있다. ④ 2문단에서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의 차이점을 언급하고 있다. ⑤ 3문단과 4문단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상황에서의 맥락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03 고유어와 외국어가 아니라 고유어와 한자어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오답 해설 ① 고유어는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로,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③ 한자어는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을 의미한다. ④ 외래어와 외국어의 공통점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라는 것이다. ⑤ 외래어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외국어와 달리 그 말을 대체할 수 없는 우리말이 없어 우리말처럼 쓰인다.

04 ㉠과 ㉣은 한자어의 특징이고, ⓐ는 한자어의 예이다.

오답 해설 ㉡은 고유어, ㉢은 외래어의 특징이고, ⓑ는 고유어, ⓒ는 외래어의 예이다.

05 ㉮는 조사 '께서'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는 조사 '께서'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으며, 종결 어미 '-어요'를 사용하여 상대인 청자를 높이고 있다. ㉰는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여 문장의 부사어, 즉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06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는 높여야 할 인물인 '부모'를 '부모님'으로 직접 높이고 있으며(Ⓑ), 객체를 높이는 용언(Ⓐ) '모시다'를 사용하여 목적어, 즉 객체인 '부모님'을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아직 그분의 성함을 기억하고 있다.'는 높여야 할 인물인 '그'를 '그분'으로 직접 높이고 있으며(Ⓑ) '그분'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 '성함'을 사용하고 있다. ② '누나는 여쭐 것이 있다며 할머니 댁에 갔다.'는 객체를 높이는 용언(Ⓐ) '여쭈다'를 사용하여 부사어, 즉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집'을 '댁'이라고 하여 높여야 할 인물인 '할머니'와 관련된 것을 높이고 있다. ③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는 홍시를 잘 잡수신다.'는 주체를 높이는 용언 '잡수시다'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으며, 높여야 할 인물인 '할머니'와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 '연세'를 사용하고 있다. ⑤ '어머니께서는 몹시 피곤하셨는지 거실에서 주무신다.'는 주체를 높이는 용언 '주무시다'를 사용하여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07 '영희야, 선생님께서 찾으셔.'는 조사 '께서'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으며, 상대 높임법의 종결 어미 중 해체('찾으셔')를 사용하여 상대인 '영희'를 낮추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내일 우리 같이 밥 먹어요.'는 해요체('먹어요')를 사용하여 상대만 높이고 있다. ③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는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여 목적어, 즉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으며, 하십시오체('왔습니다')를 사용하여 상대(청자)를 높이고 있다. ④ '이 손수건 좀 할아버지께 갖다 드려.'는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여 부사어, 즉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으며, 해체('갖다 드려')를 사용하여 상대는 낮추고 있다. ⑤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바지를 만드셨어요.'는 조사 '께서'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으며, 해요체('만드셨어요')를 사용하여 상대도 높이고 있다.

08 ㉣은 특수 어휘 '진지'와 '잡수시다'를 통해 주체인 '할아버지'를, 하십시오체('하였습니다')를 사용하여 청자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한편 할아버지보다 낮은 사람인 '고모'에 대해서는 '하셨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하였습니다'와 같이 말하여 주체인 '고모'를 높이지 않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의 '나오셨습니다'는 '커피'를 '손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여 간접 높임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나왔습니다'로 고쳐 말해야 한다. ② ㉡은 선어말 어미 '-(으)시-'를 통해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③ ㉢에서 화자인 장인은 사위에게 높여 말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예사 낮춤인 하게체를 사용하고 있다. ⑤ ㉤의 '아빠'는 화자의 후배이지만 청자인 아들의 입장에서는 높여야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화자는 특수 어휘 '계시다'를 사용하여 주체인 후배('아빠')를 높여 말하고 있다.

09 ㉮의 '-어 버리다'는 주체가 동생에게 신발을 준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나타내는 완료상이다.

오답 해설 ① ㉯의 '-어 있다'는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나타낸다. ②, ③ ㉰의 '-(으)ㄴ'과 ㉱의 '-았-'은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는 것(과거 시제)을 나타낸다. ⑤ ㉲의 '-(으)ㄹ'은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것(미래 시제)을 나타낸다.

10 ㉥는 '기울이셨다'로 볼 때 전체 문장의 절대 시제는 과거이지만, '각별한'의 상대 시제는 과거가 아닌 현재이다. '각별하다'는 형용사로,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ㄴ'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는 '붉었다'로 볼 때 전체 문장의 절대 시제는 과거이며, '떠오른'의 상대 시제도 과거이다. ② ⓑ는 '기억한다'로 볼 때 전체 문장의 절대 시제는 현재이지만, '동그랗던'의 상대 시제는 과거이다. ③ ⓒ는 '있겠다'로 볼 때 전체 문장의 절대 시제는 미래이며, '지킬'의 상대 시제도 미래이다. ④ ⓓ는 '있다'로 볼 때 전체 문장의 절대 시제는 현재이며, '보태는'의 상대 시제도 현재이다.

11 ⓓ의 시제는 과거이므로,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나중이다.

오답 해설 ① Ⓐ의 시제는 현재이므로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한다. ②, ③ Ⓑ와 Ⓒ의 시제는 과거이므로 사건시보다 발화시가 나중이다. ⑤ Ⓔ의 시제는 미래이므로 사건시보다 발화시가 앞서 있다.

12 ㉠(떠나-+-ㄹ)에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이 붙었지만 미래가 아닌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작-+-았-+-다)은 과거 시제로, 형용사에서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하고 있다. ③ '지금'으로 볼 때 ㉢(오-+-겠-+-지)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 '-겠-'은 현재의 사건을 추측하는 데에 쓰이고 있다. ④ '내년에'로 볼 때 ㉣(진학하-+-ㄴ-+-다고)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 '-ㄴ-'은 미래의 사건을 나타낸다. ⑤ ㉤(가-+-았-+-다)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 '-았-'은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하여진 사실인 양 말하는 데에 쓰이고 있다.

13 능동문('동생이 밥을 먹었다.')의 '먹다'에 '-이-'를 결합하여 '형이 동생에게 밥을 먹였다.'로 바꾼 것은 피동 표현이 아니라 사동 표현을 만든 것이다. '먹다'에 결합한 '-이-'는 피동 접미사가 아닌 사동 접미사이다. 한편 '동생이 밥을 먹었다.'를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 '밥이 동생에게 먹혔다.'인데, 이는 어색한 문장이다.

오답 해설 ① 능동문('형이 동생의 방문을 열었다.')의 '열다'에 피동 접미사 '-리-'를 결합하여 '동생의 방문이 형에게 열렸다.'라는 피동 표현을 만들었다. ② 능동문('형이 동생을 잡았다.')의 '잡다'에 피동 접미사 '-히-'를 결합하여 '동생이 형에게 잡혔다.'라는 피동 표현을 만들었다. ③ 능동문('동생이 작품을 만들었다.')의 '만들다'에 '-어지다'를 결합하여 '작품이 동생에 의해 만들어졌다.'라는 피동 표현을 만들었다. ⑤ 능동문('형이 동생의 작품을 파괴했다.')의 '파괴하다'에 '-되다'를 결합하여 '동생의 작품이 형에 의해 파괴됐다.'라는 피동 표현을 만들었다.

14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를 피동문으로 바꾸면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이다. 하지만 이 피동문이 여러 가지의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주어의 동작성이 잘 드러나는 것은 능동문이다. 피동문은 능동문에 비해 주어의 동작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③ '낙엽이 바람에 날린다.'라는 피동문의 능동문은 '낙엽이 바람에 난다.'인데, 자동사인 '날다'가 피동사인 '날리다'가 되었다. ④ '눈이 온 세상을 덮었다.'를 피동문으로 바꾸면 '온 세상이 눈에 덮였다.'이다. 즉, 능동문의 주어인 '눈이'가 피동문의 부사어 '눈에'로 쓰인다. ⑤ '오늘은 날씨가 풀렸다.'는 능동문으로 바꿀 수 없으므로,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할 수 없는 피동문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15 '엄마가 어제 저에게 "내일은 집에 있어."라고 말했습니다.'를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직접 인용의 시간 표현은 발화 당시의 시간 표현에 맞춰 바뀌므로, ⓐ에는 '어제'가 바뀐 '오늘'이 들어가야 한다. 또한 명령문일 경우에는 어미의 모양이 변하므로, ⓑ에는 '"있어."라고'가 바뀐 '있으라고'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첫 번째 문장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엄마가 어제 저에게 오늘은 집에 있으라고 말했습니다.'가 된다. 한편 '친구가 어제 "네가 빌린 내 책 꼭 가져와."라고 말했다.'를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직접 인용의 지시 대상이 바뀌므로, ⓒ에는 '네가'가 바뀐 '내가'가 들어가야 한다. 또한 소유의 대상을 표현하는 말도 바뀌므로 ⓓ에는 '내'가 바뀐 '자기의'가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과 마찬가지로 명령문일 경우에는 어미의 모양이 변하므로, ⓔ에는 '"가져와."라고'가 바뀐 '가져오라고'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두 번째 문장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친구가 어제 내가 빌린 자기의 책을 꼭 가져오라고 말했다.'가 된다.

16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 근거를 바탕으로 글쓴이의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② '소셜 다이닝'이나 이재민을 돕겠다는 누리 소통망의 글과 같은 구체적인 예시를 활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누리 소통망이 타인과의 연결을 도모한다는 보이드와 엘리슨의 견해와 상반된다.'를 통해 전문가의 견해를 간접적으로 인용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⑤ 마지막 문단에서 신문 기사로 보도되었던 내용('텔레비전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누리 소통망이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을 반박하며 주장을 펼치고 있다.

17 '최근 유행하고 있는 '소셜 다이닝' 문화는 누리 소통망에서의 인간관계가 현실의 실질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를 통해 누리 소통망에서 맺은 인간관계가 현실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21세기 누리 소통망의 등장으로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이러한 사례들은 누리 소통망에서의 인간관계가 일시적이거나 형식적이지만은 않으며, 누리

소통망을 활용하여 인간관계를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사용자 스스로 누리 소통망을 균형감 있게 활용한다면 더 나은 인간관계,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 현대 사회에서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주제에서도 벗어난다.

오답 해설 ① ⓐ는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는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는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는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 누리 소통망에서의 인간관계가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는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누리 소통망과 인간관계를 연구한 연구자는 보이드와 엘리슨으로,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온라인상에서의 인간관계에 몰입하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누리 소통망이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으로,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누리 소통망이 등장하기 이전, 즉 전화기나 인터넷이 없던 옛날이나 20세기에 전화기가 보급된 시기에 인간관계가 어떻게 맺어졌는지는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누리 소통망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문화인 '소셜 다이닝' 문화를 인간관계와 연결 짓고 있는 것은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 ㉠은 전화기나 인터넷이 없던 옛날부터 전화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20세기, 누리 소통망이 등장한 21세기라는 시간적 순서의 원리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며, ㉡은 '소셜 다이닝' 문화나 이재민을 돕겠다는 누리 소통망의 글과 같이 구체적 사실을 통해 일반적 결론을 설명하는 귀납적인 논리에 따라, 즉 논리적 순서의 원리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21 〈보기〉는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 참여하자고 재학생들을 설득하는 글로,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쓰는 까닭은 재학생 여러분께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를 통해 글의 주제가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 참여하자.'이고, 예상 독자가 '우리 학교 재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수거된 교복을 방과 후에 학생회실에서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만, '교복을 저렴하게 사는 방법'을 주제로 보기 어렵다. 또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동네 주민들이나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글도 아니다.

22 누리 소통망이 현실의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처음'에서 다루고 있지만, 현실의 인간관계가 누리 소통망에 미치는 영향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누리 소통망과 인간관계'라는 주제로 볼 때 글의 목적은 '정보 전달'보다는 '설득'이 적절하다. ② '중심 내용 3'은 '누리 소통망과 인간관계'라는 주제와 관련이 없으니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제목을 '누리 소통망은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한다.'로 설정하였다. ⑤ '중간' 부분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인 '소셜 다이닝' 문화나 실제 누리 소통망의 글을 추가하고 있다.

23 표현 방법을 정하는 것은 '내용 선정하기'가 아닌 '표현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활동이다.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상한 후 자료를 수집한다.

오답 해설 ①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 여러 매체에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내용을 선정할 때는 쓰기 맥락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야 한다. ③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 중 중심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을 골라야 한다. ④ 주제를 고려하여 글을 이끌어 갈 중심 내용을 선택해야 한다.

24 '형이 어제 "내 몫의 케이크를 꼭 남겨라."라고 말했다.'를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형을 가리키는 '내'는 '자기'로, 명령형의 '"남겨라."라고'는 '남기라고'로 바꾸어 '형이 어제 자기 몫의 케이크를 꼭 남기라고 말했다.'로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친구가 "네 동생은 착해."라고 말했다.'를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듣는 대상을 가리키는 '네'는 '내'로, '"착해."라고'는 '착하다고'로 바꾸어야 한다. ② '철수는 어제 "우리 누나가 어제 결혼했어."라고 말했다.'를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남매 관계를 가리키는 '우리'를 '자기'로, 어제 시점의 '어제'를 '그저께'로, '"결혼했어."라고'를 '결혼했다고'로 바꾸어야 한다. ④ '손자가 나에게 "할아버지, 내일 댁에 계세요?"라고 물었다.'를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호칭어인 '할아버지'는 삭제하고, 높임의 표현을 사용한 의문형의 '"댁에 계세요?"라고'는 '집에 있느냐고'로 바꾸어야 한다. ⑤ '친구가 어제 내게 "내일 서울역에서 만나자."라고 말했다.'를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어제 시점의 '내일'을 '오늘'로, 청유형의 '"만나자."라고'는 '만나자고'로 바꾸어야 한다.

25 ㉠의 직접 인용절에서 '그'가 '나'를 고려해 사용한 높임 표현인 '"갑니다."라고'가 간접 인용절에서는 '간다고'로 바뀌어 나타났다.

오답 해설 ① ㉠의 직접 인용절에서 어제 시점의 '내일'이 간접 인용절에서 '오늘'로 바뀌어 나타났다. '어제'는 인용절 밖에 사용된 시간 부사로, 간접 인용절에서도 바뀌어 나타나지 않았다. ③ ㉡의 직접 인용절에는 "맡겨."라는 명령형이 사용되었는데, 간접 인용절에서는 용언의 어간 '맡기-'에 어미 '-라'와 인용 조사 '고'가 결합하여 '맡기라고'로 바뀌어 나타났다. ④ ㉢의 직접 인용절에서 발화자인 친구의 입장에서 기술된 지시 표현인 '이곳은'은, 간접 인용절에서 '나'의 입장에서 기술된 지시 표현인 '그곳이'로 바뀌어 나타났다. ⑤ ㉢의 직접 인용절에서 감탄형 종결 어미가 사용된 '"붐비는구나."라고'는 간접 인용절에서 평서형 종결 어미가 사용된 '붐빈다고'로 바뀌어 나타났다.

문법 익힘북

01 음운 변동 1 _ 교체

본문 240~241쪽

01 ㄷ 02 ㄱ, ㄷ, ㅂ 03 유음화 04 예사소리 05 ㅈ, ㅊ 06 형식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없다 16 비음화, 방법 17 유음화, 역행 18 뒤 19 구개음화 20 비음화 21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22 유음화 23 실질 24 (1) [바치] (2) 구개음화 25 ② 26 ⑤ 27 ⑤ 28 ④ 29 ④

07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교체가 일어나도 음운의 수에는 변동이 없다.

08 유음화는 'ㄹ'의 위치에 따라 순행 동화(예 칼날[칼랄])와 역행 동화(예 신라[실라])가 모두 나타날 수 있다.

09 '난로[날:로]', '천리[철리]'는 'ㄴ'이 유음 'ㄹ'의 앞에서 [ㄹ]로 바뀌어 소리 나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10 한자어에서 끝소리 '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ㅈ'도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난다.(예 절도[절또])

12 '갈등[갈뜽]', '멸시[멸씨]', '발전[발쩐]'과 같이 고유어가 아닌 한자어에서 끝소리 'ㄹ' 뒤에 결합되는 'ㄷ,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20 '국민'은 [궁민]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음절의 끝소리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비음화에 해당한다.

21 '앞니'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ㅍ'이 [ㅂ]으로 바뀌어 [압니]가 되었다가,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ㅁ]으로 변하여 [암니]가 된다. 따라서 '앞니'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난다.

22 '천리[철리], 신라[실라], 광한루[광:할루]'는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소리 나는 유음화가 일어난 단어이고, '물난리[물랄리]'는 '난'의 'ㄴ' 2개가 앞과 뒤에 있는 'ㄹ'의 영향을 받아 모두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난 단어이다.

23 구개음화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이어지는 환경에서 일어나므로, '밭 + 일 → 밭일[반닐]'과 같이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하는 경우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24 '밭이'는 실질 형태소('밭')와 형식 형태소('이')가 이어지므로 'ㅣ' 앞의 'ㅌ'이 [ㅊ]으로 바뀌어 [바치]로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25 '꽃을'은 받침 'ㅊ'이 연음되어 [꼬츨]로 발음될 뿐 음운이 교체되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꼳]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ㅊ → [ㄷ])가 일어난다. ③ '꽃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꼳만]이 되었다가 비음화에 따라 [꼰만]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ㅊ → [ㄷ] → [ㄴ])가 일어난다. ④ '꽃발침'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꼳발침]이 되었다가 된소리되기에 따라 [꼳빨침]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ㅊ → [ㄷ] / ㅂ → [ㅃ])가 일어난다. ⑤ '꽃꽂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꽃'이 [꼳]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ㅊ → [ㄷ])가 일어난다. 이후 '꽂이'의 받침 'ㅈ'이 연음되어 [꼳꼬지]로 발음된다.

26 '맑다[막따]'는 자음군 단순화(ㄺ → [ㄱ])와 된소리되기(ㄷ → [ㄸ])가 일어난다.

27 '넘기다'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삼고[삼:꼬]'와 같이 'ㅁ'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ㄱ'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된소리로 발음하지만, 사동 접미사나 피동 접미사가 오는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넘기다'의 '-기-'는 사동 접미사이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④ '더듬다[더듬따]'와 '신기개[신:끼개]'는 어간이 각각 'ㅁ'과 'ㄴ'으로 끝나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② '값도[갑또]'는 앞말의 받침이 'ㅄ(ㅂ)'이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③ '닭과[닥꽈]'는 앞말의 받침이 'ㄺ(ㄹ)'이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28 '미닫이[미다지]'는 받침 'ㄷ'이 뒤에 오는 형식 형태소 'ㅣ'의 영향을 받아 [ㅈ]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홑이불[혼니불]'은 형식 형태소('홑-') 뒤에 실질 형태소('이불')가 결합한 것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굳히다[구치다]'는 'ㅌ(ㄷ + ㅎ)'이 [ㅊ]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②, ③ '밥솥이[밥소치]'와 '밭입니다[바침니다]'는 'ㅌ'이 [ㅊ]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⑤ '맏이[마지]'는 'ㄷ'이 [ㅈ]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29 '생산량[생산냥]'은 'ㄹ'이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비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밭이[바치]: 구개음화 ② 덮개[덥개 → 덥깨]: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③ 겉옷음[걷우슴 → 거두슴]: 음절의 끝소리 규칙 ⑤ 줄넘기[줄럼기 → 줄럼끼]: 유음화, 된소리되기

02 음운 변동 2 _ 탈락/첨가/축약 본문 242~243쪽

01 축약, 첨가 02 거센소리되기 03 파생어 04 ㅎ 05 탈락 06 ㅣ 07 ㅌ 08 × 09 × 10 ○ 11 × 12 ○ 13 ○ 14 초성 15 값싸다 16 두 17 — 18 줄어든다 19 축약 20 거센소리되기 21 ㄴ 22 (1) [색년필] → [생년필] (2) 첨가 → 교체 23 (1) [바파고] (2) 거센소리되기(축약) 24 (1) ㉠, ㉣ (2) ㉡, ㉢ 25 ④ 26 ② 27 ② 28 ① 29 ⑤ 30 ③ 31 ③

06 가랑잎: [가랑입(음절의 끝소리 규칙 – 교체) → 가랑닙('ㄴ' 첨가 – 첨가)]

08 '담그– + –아 → 담가'와 같이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09 어간의 끝소리 자음 'ㄹ'은 몇몇 어미 앞에서만 탈락한다.

10 서른여덟: [서른녀덟('ㄴ' 첨가) → 서른녀덜(자음군 단순화)]

11 '좋아[조:아]'의 'ㅎ'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와 만나 탈락한다. 또한 '좋고[조:코]'의 'ㅎ'은 뒤에 오는 'ㄱ'과 만나 [ㅋ]으로 축약된다.

12 급행열차: [그팽열차(거센소리되기 – 축약) → 그팽녈차('ㄴ' 첨가 – 첨가)]

15 '흙까지[흑까지]'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것이다. '값싸다' 또한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갑싸다]로 발음된다. 반면 '잡히다'는 거센소리되기에 의해 [자피다]로 발음된다.

16 '흙하고[흐카고]'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ㄹ'이 탈락하고([흙하고 → 흑하고]), 거센소리되기에 의해 'ㄱ'과 'ㅎ'이 만나 [ㅋ]으로 축약되므로([흑하고 → 흐카고]) 음운의 개수가 2개 줄어든다.

17 '고프– + –아서 → 고파서'에서는 '_' 탈락이 일어난다.

18 '서– + –어서 → 서서'는 'ㅓ'가 탈락한 것이므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19 '널따랗다'는 'ㅎ'과 'ㄷ'이 만나 [ㅌ]으로 축약되어 [널따라타]로 발음된다.

20 '좋지'는 'ㅎ'과 'ㅈ'이 만나 [ㅊ]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21 '담요'는 'ㄴ'이 첨가되어 [담:뇨]로 발음된다.

22 색연필: [색년필('ㄴ' 첨가 – 첨가) → 생년필(비음화 – 교체)]

23 '밥하고'는 'ㅂ'과 'ㅎ'이 만나 [ㅍ]으로 축약되어 [바파고]로 발음되는데, 이는 거센소리되기에 해당한다.

24 (1) ㉠과 ㉣은 모두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 것이다. (2) ㉡은 'ㅎ' 탈락이, ㉢은 'ㅏ' 탈락이 일어난 것이다.

25 'ㅋ– + –어서 → 커서'는 어간의 모음 '_'가 탈락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싫다[실타]'는 자음 축약(ㅎ + ㄷ → [ㅌ])에 해당한다. ② '놓은[노은]'은 자음('ㅎ') 탈락에 해당한다. ③ '울– + –는 → 우는'은 자음('ㄹ') 탈락에 해당한다. ⑤ '건너– + –었다 → 건넜다'는 모음('ㅓ') 탈락에 해당한다.

26 '실학'은 표기 그대로 [실학]으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목화[모콰] ③ 끊기다[끈키다] ④ 밥하다[바파다] ⑤ 빨갛다[빨:가타]

27 '따르– + –면서 → 따르면서'에서는 '_'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담그– + –았– + –다 → 담갔다 ③ 아프– + –아서 → 아파서 ④ 모으– + –아라 → 모아라 ⑤ 예쁘– + –어서 → 예뻐서

28 '눈요기'의 발음은 [눈뇨기]로, 'ㄴ'이 첨가되었다.

오답 해설 ② 막히면[마키면]: ㄱ + ㅎ → ㅋ – 축약(거센소리되기) ③ 물난리[물랄리]: ㄹ + ㄴ → ㄹ + ㄹ / ㄴ + ㄹ → ㄹ + ㄹ – 교체(유음화) ④ 벚나무[벋나무 → 번나무]: ㅈ → ㄷ –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 / ㄷ + ㄴ → ㄴ + ㄴ – 교체(비음화) ⑤ 넣어서[너어서]: 탈락('ㅎ' 탈락)

29 〈보기〉에서는 'ㅎ' 탈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좋아요[조:아요]'에서도 'ㅎ' 탈락이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좁히다[조피다]', '그렇죠[그러쵸]', '하얗다[하:야타]'는 'ㅎ'과 'ㅂ', 'ㅈ', 'ㄷ'이 만나 각각 [ㅍ], [ㅊ],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② '놓는다[논는다 → 논는다]'는 'ㅎ'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ㄷ]으로 교체되었다가 비음화에 의해 다시 [ㄴ]으로 교체된 것이다.

30 '입학[이팍]'에서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축하[추카]'에서도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설날[설랄]'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②, ④ '국수[국쑤]', '역전[역쩐]'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⑤ '여덟[여덜]'에서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31 '잃– + –어서 → 잃어서[이러서]'는 'ㅎ'이 탈락한 것으로, 음운의 축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놓고[노코]'는 'ㅎ'과 'ㄱ'이 만나 [ㅋ]으로 축약된 것이다. ②, ④ '숱하다[숟하다 → 수타다]'와 '파랗다[파:라타]'는 'ㅎ'과 'ㄷ'이 만나 [ㅌ]으로 축약된 것이다. ⑤ '닫히는[다티는 → 다치는]'은 'ㄷ'과 'ㅎ'이 만나 [ㅌ]으로 축약된 후에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03 문장 표현 1 _ 높임 표현 본문 244~245쪽

01 주체 02 부사어 03 상대 04 드릴(드리다) 05 뵙고 06 상대 07 ○ 08 × 09 ○ 10 ○ 11 × 12 ○ 13 선어말 어미 14 께 15 주체 16 어머니 17 상대 18 계시면 → 있으시면 19 ㉠: 아버지, ㉡: 께, 드리다, ㉢: -어요 20 ㉠: ⓒ, ㉡: ⓑ 21 물어봐 → 여쭤봐 22 ② 23 ③ 24 ④ 25 ⑤ 26 ③

08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의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다.

11 '드리다', '모시다'는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16 '어머니, 저는 아버지를 정말 존경합니다.'는 '-ㅂ니다'를 사용하여 말을 듣는 상대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17 '동생이 밥을 먹습니다.'에는 '-습니다'를 사용하여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18 '궁금한 점'은 직접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특수 어휘 '계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9 〈보기〉에서 서술어 '가시었어요'의 주체는 '아버지'(㉠)이고, '아버지'에 대한 높임은 '께서', '-시-'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그리고 객체는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에 대한 높임은 '께', '드리다'(㉡)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한편 화자의 말을 듣는 대상은 '어머니'이고, '어머니'에 대한 높임은 종결 표현 '-어요'(㉢)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20 ㉠: ⓒ는 주체(어머니)를 높이고('께서', '-시-') 상대를 낮추어('-어') 표현하였다. ㉡: ⓑ는 객체(할아버지)를 높이고('께', '드리다') 상대를 낮추어('-어') 표현하였다.

오답 해설 ⓐ는 상대를 높여('-어요') 표현하였다.

21 선유의 마지막 말 중 객체인 '선생님'을 높여야 하므로 '물어보다' 대신 특수 어휘 '여쭤보다'를 사용해야 한다.

22 '교수님'의 소유물인 '책'을 높임으로써 높여야 할 대상인 '교수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 '께서'와 '-시-'를 사용하여 주체를 직접 높이고 있다.

23 '께'와 '드리다'를 통해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께서'와 '댁', '계시다'를 통해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으며, '-ㅂ니다'를 사용하여 상대인 청자를 높이고 있다. ② '-어요'를 사용하여 상대인 청자를 높이고 있다. ④ '께서'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으며, '-시-'를 사용하여 '할아버지'의 눈을 높임으로써 '할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또한 '-ㅂ니다'를 사용하여 상대인 청자를 높이고 있다. ⑤ '께서'와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24 ㉡: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 '께'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25 ⓔ는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로, 주체 높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객체(할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 '께'를 사용하여 객체인 '큰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26 '잡수시다'는 주체(할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이고, '연세'는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할머니의 나이)을 높이는 명사(㉡)이다.

오답 해설 ① 높여야 할 인물(그분)과 관련된 것(성함)을 높이는 명사(㉢)가 사용되었다. ② 객체(할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여쭈다)가 사용되었으며, 높여야 할 인물(할머니)과 관련된 것(댁)을 높이는 명사(㉢)가 사용되었다. ④ 객체(부모님)를 높이는 특수 어휘(모시다)가 사용되었다. ⑤ 주체(어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 '주무시다'가 사용되었다.

04 문장 표현 2 _ 시간 표현 본문 246~247쪽

01 발화시 02 헝용사 03 -겠- 04 과거 05 추측 06 진행상 07 ○ 08 × 09 ○ 10 ○ 11 × 12 × 13 발화시, 사건시 14 앞서 있는, 나중인 15 동사 16 진행상 17 회상 18 완료상 19 알맞는 → 알맞은 20 ⓑ 21 ㉠ 22 ㉠, ㉤ 23 ③ 24 ⑤ 25 ③ 26 ③ 27 ②

08 동사는 어간 뒤에 관형사형 어미 '-는'을 붙여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11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는 무척 재미있다.'에서 '들은'은 동사 어간 '듣-'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붙여 과거를 나타낸 것이다.

12 '그는 지금 문 앞에 서 있다.'는 보조 용언 '-어 있다'를 사용하여 완료상을 나타내고 있다.

19 '알맞다'는 형용사이므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사용해야 한다.

20 ⓑ에 사용된 '-었-'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감기에 걸림.)의 결과 상태(목이 잠겨 있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아직도') 있음을 나타낸다.

오답 해설 ⓐ, ⓓ: '소풍날', '어제'라는 과거의 시간에 대한 사건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았-'은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의 것임을 나타내는 예에 해당한다. ⓒ: '-았-'은 과제 준비를 하기 위해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라는 미래의 일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예에 해당한다.

21 ㉠의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낸다.

오답 해설 ㉡~㉤의 '-겠-'은 모두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22 ㉠의 '먹어 간다', ㉤의 '사용하고 있다'에는 진행상이 드러난다.

오답 해설 ㉡의 '가 있다'와 ㉢의 '써 버렸다'에는 완료상이 드러난다.

23 '-더-'는 과거에 대한 회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오답 해설 ① '-겠-'은 가능성을 나타낸다. ② '-라-'는 미래를 나타낸다. ④ '-ㄹ 것'은 의지를 나타낸다. ⑤ '-었었-'은 단절된 과거를 나타낸다.

24 '빠른'은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로, 형용사 어간 '빠르-'에 관형사형 어미 '-ㄴ'을 붙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동사 어간 '쓰-'에 관형사형 어미 '-던'을 붙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② 형용사 어간 '귀엽-'에 관형사형 어미 '-더-'를 붙여 과거 시제(회상)를 나타내고 있다. ③ 형용사 어간 '조용하-'에 관형사형 어미 '-ㄴ'을 붙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④ 동사 어간 '바치-'에 선어말 어미 '-리-'를 붙여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25 '익어 간다'는 '-어 가다'를 사용하여 곡식이 익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한 진행상이다.

오답 해설 ① '-어 버리다'를 사용하여 이미 소문이 퍼졌음을 나타낸 완료상이다. ② '-고 있다'를 사용하여 발레 학원에 다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을 표현한 진행상이다. ④ '-고 있다'를 사용하여 눈발이 날리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한 진행상이다. ⑤ '-어 있다'를 사용하여 마을 사람들이 마을 회관에 모인 사건이 완결되어 그 결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표현한 완료상이다.

26 ㉢의 '산'은 동사 어간 '사-'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서는 과거 시제를 나타낸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의 '-고 있다'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한 진행상이다. ② ㉡의 '-았-'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 ④ ㉣의 '-어 버리다'는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표현하는 완료상이다. ⑤ ㉤은 동사 어간 '공부하-'에 관형사형 어미 '-ㄹ'이 붙어 미래 시제를 나타낸 것으로, 미래 시제는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

27 ②는 넥타이를 맨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넥타이를 매는 동작이 진행되는 중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진행상을 나타내는 '-고 있-' 뒤에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을 붙여, 형이 과거에 양치질을 하는 동작을 진행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 동작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거나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 ③ '-고 있-'을 통해 안경을 벗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낼 뿐, 안경을 벗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④ '-고 있-'을 통해 그가 연말에 기부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낼 뿐, 기부하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⑤ '-고 있-'을 통해 누나의 생일이 내일이라는 것을 아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낼 뿐, 아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05 문장 표현 3 _ 피동 표현/인용 표현 본문 248~249쪽

01 피동문 02 부사어 03 목적어 04 -되다 05 따옴표 06 간접 07 × 08 × 09 ○ 10 × 11 ○ 12 ○ 13 강조하기 14 라고 15 간접 16 -하- 17 어제는 18 친구가 벌에게 쏘였다. 19 소녀는 나에게 내가 정말 친절하다고 하였다. 20 ㉣, ㉤ 21 ④ 22 ④ 23 ⑤ 24 ① 25 ④ 26 ② 27 ⑤

07 '-우-, -구-, -추-'는 사동 접미사이다.

08 용언의 어간에 '-게 하다'를 붙이면 사동 표현이 된다.

10 '달였다'는 '달이- + -었- + -다'로 분석된다. 즉, 피동 접미사는 사용되지 않았다.

11 '믿겨지다'는 피동사 '믿기다'에 '-어지다'가 중복된 이중 피동에 해당한다.

18 능동문의 목적어('친구를')를 피동문의 주어('친구가')로 바꾸고, 능동문의 주어('벌이')를 피동문의 부사어('벌에게')로 바꾼다. 그리고 피동 접미사 '-이-'를 활용하여 서술어를 '쏘였다'로 만든다.

19 "당신은 정말 친절하세요."에서 '당신은'을 '내가'로 바꾸고, 조사 '라고'를 '고'로 바꾸어야 한다.

20 ㉣: 직접 인용된 발화는 '어제' 말한 것이다. 따라서 ㉣은 어제 시점에서의 '내일'인 '오늘'로 바뀌어야 한다. ㉤: '계십시오'는 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이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아들의 말을 아버지나 어머니가 간접 인용하게 되면 자신을 높이는 표현을 쓸 수 없으므로, 서술어를 '있다'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명령문을 간접 인용할 때에는 '-(으)라고'를 써야 하므로 '있으라고'로 바뀌어야 한다. → 아들이 어제 저에게 오늘 사무실에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21 '나누어집니다'는 '나누-'에 '-어지다'를 붙이는 통사적 피동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예상되어진다'는 피동을 표현하는 '-되다'와 '-어지다'가 같이 사용된 이중 피동이므로, '예상된다'로 고쳐야 한다. ② '닫혀졌는지'는 피동 접미사 '-히-'와 '-어지다'가 함께 사용된 이중 피동이므로, '닫혔는지'나 '닫아졌는지'로 고쳐야 한다. ③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것보다 능동 표현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므로, '그가 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와 같이 고쳐야 한다. ⑤ '말썽이 빚어지고'는 번역 투의 표현으로, 불필요한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말썽을 빚고'로 고쳐야 한다.

22 '태풍에 건물이 흔들리다.'는 건물이라는 주체가 태풍에 의해 흔들림을 당하는 것을 표현한 피동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당기다'는 '물건 따위를 힘을 주어 자기 쪽이나 일정한 방향으로 가까이 오게 하다.'의 뜻으로, 피동 접미사 '-기-'가 붙은 피동사가 아니다. '당기다'는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능동 표현이다. ② '감기다'의 '-기-'는 사동 접미사로, '감기다'는 사동 표현이다. ③ '놀리다'는 '잣궂게 굴거나 흉을 보거나 웃음거리로 만들다.'의 뜻으로, 피동 접미사 '-리-'가 붙은 피동사가 아니다. '놀리다'는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능동 표현이다. ⑤ '숙이다'의 '-이-'는 사동 접미사로, '숙이다'는 사동 표현이다.

23 인용 표현이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쓰는 것을 말한다.

오답 해설 ① 직접 인용할 때에는 조사 '라고'를 사용한다. ② 인용 표현은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구분한다. ③ 앞말이 간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것은 조사 '고'이다. ④ 인용하는 문장에 큰따옴표를 붙이는 것은 직접 인용이다.

24 ①은 '그가 범인이다.'라는 문장이 '나는 생각한다.'라는 문장 속에 부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으로, 인용 표현과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② '네 친구를 사랑한다.'가 간접 인용된 문장이다. ③ '함께 영화를 보자.'가 간접 인용된 문장이다. ④ "곧 새로운 사랑이 올 거야."가 직접 인용된 문장이다. ⑤ '사랑한다.'가 간접 인용된 문장이다.

25 '듣다'는 '들리다(듣- + -리- + -다)'라는 피동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파생적 피동문으로 바꿀 수 없다. '칭찬이 부모님에 의해 동생에게 들렸다.'는 어색한 문장이다.

오답 해설 ①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라는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② '풀이 사람들에 의해 뽑혔다.'라는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③ '문이 누나에 의해 세게 닫혔다.'라는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⑤ '탁자 위에 있는 유리병이 그에 의해 깨졌다.'라는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26 ㉠을 ㉡으로 바꾸면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인 '제가'가 생략된다. ㉠의 목적어는 ㉡에서 주어가 된다.

오답 해설 ①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 ③ '깨- + -었- + -어요'에 '-어지-'가 결합하여 '깨- + -어지- + -었- + -어요'라는 피동 표현이 된다. ④ ㉠은 주어를 통해 화분을 깬 주체를 밝히고 있으나, ㉡에는 화분을 깬 주체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기도 한다. ⑤ 피동 표현은 행위를 당한 대상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27 직접 인용된 발화는 언니가 말한 것이다. 따라서 ㉠에는 주체인 언니를 다시 가리키는 말인 '자기'를 사용한 '자기의'가 들어가야 한다. 한편 명령문을 간접 인용할 때에는 '-(으)라고'를 써야 하므로 ㉡에는 '남기라고'가 들어가야 한다.

06 국어사 _ 고대 국어/중세 국어/근대 국어 본문 250~251쪽

01 한자 02 ㅇ 03 방점 04 -옴 05 가 06 모음 조화 07 × 08 ○ 09 × 10 ○ 11 × 12 ○ 13 거센소리 14 선어말 어미 15 ㅅ 16 이어 적기 17 근대 국어 18 -기 19 모음 조화 20 끊어 적기를 하는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이어 적기를 하였다. 21 ① 22 ② 23 ② 24 ④ 25 ⑤ 26 ② 27 ⑤

07 된소리 계열이 생겨난 것은 중세 국어 시기이다.

09 중세 국어 시기에 쓰인 '-이-/-잇-'은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는 '-숩-/-줍-/-숩-'이 있다.

11 근대 국어에서는 이어 적기, 거듭 적기, 끊어 적기가 섞여서 나타났다.

19 현대 국어의 '서로'를 중세 국어에서 '서르'로 표기한 것은, '서'의 'ㅓ'가 음성 모음이므로 뒤에 오는 모음 역시 음성 모음인 'ㅡ'를 넣어 모음 조화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20 중세 국어에서는 '말ᄊᆞ미', '노미', 'ᄠᅳ들'처럼 이어 적기를 한 반면, 현대 국어에서는 '말이', '사람이', '뜻을'처럼 끊어 적기를 한다.

21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된 것은 근대 국어 시기부터이다.

오답 해설 ② 현대 국어에 없는 'ㅸ, ㅿ, ㆍ' 등의 음운이 사용되었다. ③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이어 적기가 일반적이었다. ④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한 방점이 있었다. ⑤ '뿌메'처럼 음절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이 있었다.

22 된소리 계열이 나타난 것은 중세 국어 시기에 해당한다.

23 'ᄡᅳ- + -움 + 에 → 뿌메'는 음성 모음끼리 결합되어 있으므로 모음 조화가 지켜진 예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몸'과 '일홈'의 'ㅗ', '하ᄂᆞᆯ'의 'ㆍ'라는 양성 모음에 '을'이라는 음성 모음을 가진 조사가 결합했으므로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았다. ⑤ 음성 모음을 가진 어간 '비릇-'에 '-옴'이라는 양성 모음을 가진 어미가 결합했으므로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았다.

24 ㉣은 이어 적기가 사용된 반면, 나머지는 모두 끊어 적기가 사용되었다.

25 'ㅅ'으로 시작하는 합용 병서는 'ᄊᆞᄅᆞ미니라'이다.

오답 해설 ② 'ㅂ'으로 시작하는 합용 병서, ③, ④ 각자 병서

26 '것은'은 '것 + 은'으로, 거듭 적기가 사용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깊- + -은'을 이어 적기한 것이다. ③ '심 + 이'를 이어 적기한 것이다. ④ 'ᄇᆞᄅᆞᆷ + 애'를 이어 적기한 것이다. ⑤ '바ᄅᆞᆯ + 애'를 이어 적기한 것이다.

27 '묻ᄌᆞᆸ고'는 선어말 어미 '-ᄌᆞᆸ-'을 통해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즉, '묻ᄌᆞᆸ고'는 현대 국어처럼 '여쭙다' 같은 특수한 어휘를 사용한 것도, 청자를 높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명사형 어미 '-ㅁ'을 사용한 현대 국어('효도함')와 달리 중세 국어('효도홈')에서는 명사형 어미 '-옴'을 사용하였다. ② 'ᄠᅳ디'에는 음절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ㅳ')이 사용되었다. ③ 목적격 조사 '을'을 사용한 현대 국어('성손을')와 달리 중세 국어('聖孫(성손)ᄋᆞᆯ')에서는 목적격 조사 'ᄋᆞᆯ'을 사용하였다. ④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현대 국어('내셨습니다')와 중세 국어('내시니이다')에서 모두 '-시-'가 사용되었다.

07 한글 맞춤법

본문 252~253쪽

01 한글 02 의사소통 03 표준어, 어법 04 원형 05 조사 06 일찍이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책이요 16 하굇
길 17 주십시오 18 학생으로서 19 널따란 20 백분율 21 시들은 → 시든
22 ㉠: 꽃이, ㉡: 꽃에 23 조사 24 ④ 25 ④ 26 ⑤ 27 ② 28 ② 29 ①

07 제5항 '다만'('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에 따라 '깍뚜기 → 깍두기'로 고쳐야 한다.

08 '맞추다'는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자리에 맞게 대어 붙이다.'의 뜻이고, '맞히다'는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게 하다.'의 뜻이므로, '맞추면 → 맞히면'으로 고쳐야 한다.

10 '들릴'은 용언, 뒤에 오는 '만큼'은 의존 명사이므로 제42항에 따라 띄어 써야 한다.

13 제18항 '1'(어간의 끝 'ㄹ'이 줄어질 적)에 따라 '내밀은 → 내민'으로 고쳐야 한다.

15 제15항 [붙임 3](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에 따르면 '책이요'가 맞는 표기이다.

16 제30항 '2'(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중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에 따르면 '하굇길'이 맞는 표기이다.

17 제15항 [붙임 2](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에 따르면 '주십시오'가 맞는 표기이다.

18 제57항(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에 따라 '로서'와 '로써'를 구분해 적는다.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므로 '학생으로서'가 맞는 표기이다. '로써'는 재료나 수단 또는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19 제21항 '2'의 '다만'(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중 '(1)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에 따르면 '널따란'이 맞는 표기이다.

20 제11항 [붙임 1]의 '다만'(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에 따르면 '백분율'이 맞는 표기이다.

21 '시들은'은 어간('시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을 결합할 때 어간의 끝소리 'ㄹ'을 탈락시키지 않고 '-은'을 붙인 것으로, 잘못된 표기이다. 제18항 '1'(어간의 끝 'ㄹ'이 줄어질 적)에 따라 '시든'으로 적어야 한다.

22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어법에 맞도록 표기하기 위해서는 형태소 본래의 형태를 밝혀 적어야 한다. [꼬치]와 [꼬체]는 연음된 발음이므로, 본래의 형태는 각각 '꽃이'와 '꽃에'가 되어야 한다.

24 '안사람'은 [안싸람]으로 소리 나지만 '안사람'으로 표기하는데, 이는 어법에 맞게 적은 것에 해당한다.

25 '-든지'는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고, '-던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④의 밑줄 친 부분은 '놀랐던지'로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② '닫혔다'는 '닫다'라는 자동사에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사 '-히-',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한 것이다. ③ '귀걸이'는 '귓불에 다는 장식품'을 이르는 말로, '귀고리'와 '귀걸이' 모두 표준어이다. ⑤ '절이다'는 '절다'의 사동사로, '생선이나 야채 따위를 간이 들거나 숨이 죽도록 소금기가 배어들게 하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26 '구름'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①~④ '빛'은 [빋], '옷'은 [옫], '잎'은 [입], '바깥'은 [바깓]으로 소리 나지만 어법에 맞게 쓴 것이다.

27 '젓가락'은 '저'(㉠)와 '가락'의 합성어로,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따라 사이시옷이 붙은 것이다. 반면 '숟가락'은 '술'(㉡)과 '가락'의 합성어로, 한글 맞춤법 제29항(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에 따라 받침 'ㄹ'이 'ㄷ'으로 바뀐 것이다.

28 '늘리다, 발굴, 검정, 아기'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에 해당하며, '먹는다[멍는다], 북극점[북끅쩜], 밟는다[밤:는다]'는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에 해당한다.

29 '무덤'의 어원은 '묻- + -엄'인데, '묻-'은 명사가 아니라 용언 어간이므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 '고랑'의 어원은 '골(명사) + -앙'이다. ③ '이파리'의 어원은 '잎(명사) + -아리'이다. ④ '바가지'의 어원은 '박(명사) + -아지'이다. ⑤ '지푸라기'의 어원은 '짚(명사) + -으라기'이다.

08 어휘 _ 고유어/한자어/외래어/전문어/사고 도구어 본문 254~255쪽

01 고유어 02 개념 03 고유어 04 외래어 05 전문어 06 ○ 07 × 08 ○ 09 ○ 10 ○ 11 × 12 고유어 13 외래어 14 사고 도구어 15 마음 16 외래어, 외국어 17 산소, 우주 18 (1) 구름, 빨강 (2) 간식, 책 (3) 로켓, 망토 19 외래어, 외국어 20 ② 21 ① 22 ③ 23 ③ 24 ④

07 바꾸어 쓸 수 있는 우리말이 존재하는 것은 외국어이다.

11 '버스'는 외래어이고 '레스토랑'은 외국어이다.

17 '꽃, 흙, 하늘, 아기'는 고유어, '산소(酸素), 우주(宇宙)'는 한자어이다.

18 '구름, 빨강'은 고유어, '간식(間食), 책(冊)'은 한자어, '로켓(rocket), 망토(manteau)'는 외래어이다.

19 '피아노(piano)'는 대체할 어휘가 없으므로 외래어이지만, '게스트(guest)'는 '손님'이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으므로 외국어이다.

20 전문어는 전문 분야의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위해 만든 것은 아니다. ②는 은어에 대한 설명이다.

21 '노랗다, 누렇다, 노릇하다, 누르스름하다, 샛노랗다'는 색채어가 발달했음을 보여 주는 예이며, '달다, 달콤하다, 달짝지근하다, 들척지근하다'는 미각어가 발달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이를 통해 우리말 고유어에 감각어가 발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음성 상징어가 발달한 것은 맞지만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다. ③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말이 많은지는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④ 하나의 말이 지닌 의미의 폭이 넓은 말은 많으나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다. ⑤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이 많은지는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22 '고치다'라는 고유어가 '개혁하다', '치료하다', '교정하다', '수정하다', '수선하다' 등의 한자어로 대응되는 것은 그만큼 고유어의 의미의 폭이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유어에 비해 한자어의 의미가 더욱 세분화되어 있음을 뜻한다.

오답 해설 ① 고유어에 비해 다의어가 적다고 볼 수 있다. ②, ④, ⑤ 고유어에 비해 동음이의어가 많거나, 반의 관계가 뚜렷하거나, 상위어가 발달되어 있는지는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23 〈보기〉의 의사 1과 의사 2는 '심계 항진', '안구 진탕', '연하 곤란' 등의 전문어를 사용하여 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어는 전문 분야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오답 해설 ① 전문어는 성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전문어는 세대와 관계없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④ 듣기 거북한 말에 대해 우회적으로 발화하는 것은 완곡어법에 해당한다. ⑤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말은 유행어이다.

24 〈보기〉의 밑줄 친 '분류', '구분'은 사고 도구어로, 이는 전문어와 달리 여러 학문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오답 해설 ①~③ '분류(分類)'와 '구분(區分)'은 한자로 된 사고 도구어이다. 사고 도구어는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드러내는 말이다. ⑤ '분류'와 '구분'은 '나누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두 '나누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09 품사 1 _ 체언/용언 본문 256~257쪽

01 보어 02 인칭 03 순서 04 서술어, 활용 05 성질 06 보조 용언 07 × 08 ○ 09 × 10 × 11 ○ 12 ○ 13 명사, 대명사 14 명사 15 동사 16 들어온 17 형용사, 동사 18 보조 용언 19 수, 일 20 (1) 데 (2) 그, 여기 (3) 일하는 (4) 멀다 21 허름하다 22 ③ 23 ② 24 ⑤ 25 ① 26 ④ 27 ② 28 ① 29 ③

07 '그를 잊을 리 없다.'에서 '리'는 의존 명사이다.

09 '아이 셋 중에 한 명이 매우 뛰어나다.'에서 수사는 '셋'뿐이다. '한'은 수 관형사이다.

10 '다르듯'과 '그러하다'는 모두 형용사이다.

19 우리(대명사)가(조사) 할(동사) 수(명사 – 의존 명사) 없는(형용사) 일(명사)도(조사) 있다(형용사).

20 그(대명사)가(조사) 일하는(동사) 데(명사 – 의존 명사)는(조사) 여기(대명사)서(조사) 멀다(형용사).

21 나(대명사)는(조사) 허름한(형용사) 책방(명사)에서(조사) 곰팡이(명사) 슨(동사) 헌책(명사)을(조사) 뒤적이며(동사) 학창(명사) 시절(명사)을(조사) 보냈다(동사). → 형용사는 '허름하다' 하나뿐이다.

22 우리(대명사)는(조사) 시골(명사) 할머니(명사) 댁(명사)에서(조사) 즐겁게(형용사) 하루(명사)를(조사) 보냈다(동사). → 수사는 들어 있지 않다.

23 '어느'는 뒤에 오는 체언 '저녁'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오답 해설 ① '나위'는 의존 명사이다. ③ '여기'는 대명사이다. ④ '그것'은 대명사이다. ⑤ '한두째'는 수사이다.

24 '마주치다'는 동사이다.

오답 해설 ①~④ '파랗다', '비슷하다', '뛰어나다', '높다'는 모두 형용사이다.

25 '느낀 대로 표현하고 싶었다.'의 '대로'는 명사(의존 명사)이다.

오답 해설 ② '잘못'은 명사이다. ③ '열'은 수사이다. ④ '만큼'은 명사(의존 명사)이다. ⑤ '무엇'은 대명사이다.

26 '되고 싶었다'의 '싶다'는 소망의 뜻을 더하는 보조 용언이다.

오답 해설 ①의 '놀다', ②의 '인사하다', ③의 '가다', ⑤의 '오다'는 모두 실질적인 뜻을 지닌 본용언으로 사용되었다.

27 '쌓다'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본용언이다.

오답 해설 ①의 '놓다', ③의 '체하다', ④의 '듯싶다', ⑤의 '보다'는 모두 본용언의 의미를 더해 주는 역할을 하는 보조 용언으로 사용되었다.

28 옛날(명사) 사진(명사)을(조사) 보니(동사) 기뻤던(형용사) 기억(명사) 하나(수사)가(조사) 떠올랐다(동사). → '옛날'은 명사이다.

29 〈보기〉의 ㉠은 의존 명사이다. ③의 '때'는 자립 명사로, '때가 되었다.'처럼 문장의 첫머리에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①의 '터', ②의 '지', ④의 '만큼', ⑤의 '바'는 모두 의존 명사로, 문장의 첫머리에 쓸 수 없다.

10 품사 2 _ 관계언/수식언/독립언 본문 258~259쪽

01 가 02 서술 03 명사 04 부사 05 못 06 아이고 07 × 08 ○ 09 × 10 ○ 11 ○ 12 × 13 보조사 14 보격 조사 15 관형사, 부사 16 관형사 17 오늘 18 감탄사 19 의, 은, 이다 20 (1) 가 (2) 을 (3) 에 21 보격 조사 22 ㉠: 수사, ㉡: 관형사, ㉢: 명사 23 ㉠, ㉡ 24 ㉠: 명사, ㉡: 부사 25 ㉠: 감탄사, ㉡: 관형사 26 (1) ㉡, ㉣ (2) ㉠, ㉢ 27 ⑤ 28 ④ 29 ② 30 ②

07 같은 조사끼리 결합할 수 있으므로, 조사는 다른 조사 뒤에도 붙을 수 있다.

09 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다.

12 '민수야'는 '명사 + 호격 조사' 형태의 독립어이지만, 감탄사는 아니다.

19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에서 '의'는 관형격 조사, '은'은 보조사,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다.

20 '아이가'의 '가'는 주격 조사, '의자에'의 '에'는 부사격 조사, '책을'의 '을'은 목적격 조사이다.

21 '되다', '아니다'가 쓰인 문장에서 주어에 붙은 '이/가'를 제외하고 다른 체언에 붙은 '이/가'는 보격 조사이다.

22 ㉠은 자식이 세 명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수사이다. 그리고 ㉡은 뒤에 오는 체언 '살'(의존 명사)을 수식하므로 수 관형사이다. ㉢은 '순서가 가장 먼저인 차례'가 아니라 '여러 형제자매 가운데서 제일 손위인 사람(맏이)'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명사이다.

23 ㉠은 뒤에 오는 '말'이라는 체언을 수식하고, ㉡은 뒤에 오는 '사람들'이라는 체언을 수식하므로, 둘 다 관형사이다.

오답 해설 ㉢은 '일처리'를 수식하지만, '빠르고', '빠르니'와 같이 활용하는 형용사이다.

24 ㉠은 '을'이라는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의 기능을 하므로 명사이다. 그리고 ㉡은 뒤에 오는 용언 '먹어서'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25 ㉠은 뜻밖에 놀라운 일이나 딱한 일을 보거나 들었을 때 하는 말로, 감탄사이다. 그리고 ㉡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관형사로, 뒤에 오는 체언 '상황'을 수식한다.

26 '이'(㉡)는 체언 '사과'를, '그'(㉣)는 체언 '연필'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또한 '이리'(㉠)는 용언 '오다'를, '그리'(㉢)는 용언 '보내다'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27 '마다'는 '낱낱이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오답 해설 ① '하고'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②~④ '에', '랑', '이며'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28 '과연'은 부사이다.

오답 해설 ①의 '첫', ②의 '무슨', ③의 '아무', ⑤의 '온갖'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29 '대로'는 의존 명사이다.

오답 해설 ①의 '모름지기', ③의 '일찍이', ④의 '같이', ⑤의 '살랑살랑'은 모두 부사이다.

30 ㉡과 ㉢은 감탄사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아버지를 부르는 말로, 명사가 독립어로 쓰인 것이다. ㉣ 화제를 전환하거나 상반되는 내용을 제시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11 문장 성분 _ 주성분/부속 성분/독립 성분

본문 260~261쪽

01 보어 02 점수를 03 이상한, 마을로 04 물정에 05 독립어 06 ○ 07 × 08 ○ 09 ○ 10 × 11 주어 12 예쁘다 13 정보의 14 공원에서 15 부사어 16 나는, 동창생을, 만났다 17 보니, 우울하다 18 ㉠: 주어, ㉡: 부사어, ㉢: 목적어, ㉣: 서술어 19 관형어 20 ② 21 ② 22 ④ 23 ② 24 ③ 25 ④ 26 ②

07 주어는 '그는'이고, '귀감이'는 보어이다.

10 부사어 '너무'는 관형어 '헌'을 수식한다.

16 '나는 어제 길에서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생을 만났다.'에서 주어는 '나는', 목적어는 '동창생을', 서술어는 '만났다'로, 이들이 주성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어제', '길에서', '우연히'는 부사어, '초등학교'는 관형어이다.

17 '어두운 하늘을 보다.(보니) + 괜히 기분마저 우울하다.'의 형태이므로, 서술어는 '보니'와 '우울하다'의 2개이다.

18 '어머니께서'는 주어, '형에게'는 필수적 부사어, '용돈을'은 목적어, '주셨다'는 서술어에 해당한다.

19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으로, 단독으로 쓰일 수 없는 것은 관형어이다.

20 그들은(주어) 어린(관형어) 소년에게(필수적 부사어) 중요한(관형어) 임무를(목적어) 맡겼다(서술어). → 보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21 '고래는 어류가 아니다.'에서 주어는 '고래는'이고, '어류가'는 보어이다.

오답 해설 ①, ③ '너만'과 '나도'는 '체언 + 보조사'로 이루어진 주어이다. ④ '아버지께서'는 '체언 + 주격 조사의 높임말(께서)'로 이루어진 주어이다. ⑤ '학교에서'는 '체언 + 주어가 단체일 때 쓰이는 주격 조사(에서)'로 이루어진 주어이다.

22 '동생도 이제 나만큼 컸다.'에서 '나만큼'은 부사어이다. 목적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주스나'는 '체언 + 보조사'로 이루어진 목적어로, '마시다'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② '얘기'는 목적격 조사 '를'이 생략된 형태의 목적어로, '듣다'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③ '야구는'은 '체언 + 보조사'로 이루어진 목적어로, '좋아하다'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⑤ '밥만이라도'는 '체언 + 보조사 + 보조사'로 이루어진 목적어로, '먹다'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23 '연신'은 부사어이다.

오답 해설 ①, ③, ⑤ 동사의 활용형이 관형어로 쓰였다. ④ 형용사의 활용형이 관형어로 쓰였다.

24 '친구마저'는 '체언 + 보조사'로 이루어진 주어이다.

오답 해설 ① '광화문으로'는 '체언 + 부사격 조사'로 이루어진 부사어이다. ② '조용히'는 부사 단독으로 이루어진 부사어이다. ④ '그래서'는 접속 부사 단독으로 이루어진 부사어이다. ⑤ '어지럽게'는 '용언의 어간 + 부사형 어미'로 이루어진 부사어이다.

25 ㉠야호(독립어 – 독립 성분)! ㉡우리가(주어 – 주성분) ㉢드디어(부사어 – 부속 성분) ㉣힘든(관형어 – 부속 성분) ㉤관문을(목적어 – 주성분) ㉥통과했어(서술어 – 주성분). →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인 ㉡, ㉤, ㉥이고, 부속 성분은 부사어, 관형어인 ㉢, ㉣이며, 독립 성분은 독립어인 ㉠이다.

26 '아'는 독립어(감탄사)로, 독립 성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세월의'는 관형어, '이토록'은 부사어, '빠른'은 관형어로, 부속 성분은 모두 3개이다. ③ ㉠은 독립어로 독립 성분이고, ㉢은 부사어로 부속 성분이므로, 둘 다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세월의 흐름은 빠른 것인가!'). ④ ㉡은 뒤에 오는 체언 '흐름'을, ㉣은 뒤에 오는 체언 '것'을 수식하고 있다. ⑤ ㉡은 체언 '세월'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되어 있으며, ㉤은 체언 '것'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활용형('인가')으로 결합되어 있다.

Memo

Memo